



Part 01

Africa

국가별 정보 아프리카

- 01 가나 30
- 02 가봉 38
- 03 나이지리아 44
- 04 남아프리카공화국 50
- 05 모로코 56
- 06 세네갈 64
- 07 수단 72
- 08 앙골라 78
- 09 짐바브웨 82
- 10 카메룬 88
- 11 케냐 92
- 12 코트디부아르 102
- 13 콩고 112
- 14 탄자니아 116



| 01

아프리카

Ghana



source - 가나대사관

가나



시차 | 한국보다 9시간 늦음
화폐 단위 | Cedi
대사관 홈페이지 | <http://gha.mofat.go.kr>
가나정부 홈페이지 | www.ghana.gov.gh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일부 지역에서 부족 간 분쟁은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전쟁 또는 내란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 연말연시 또는 선거철에는 치안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야간 이동을 더욱 자제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다른 서부 아프리카에 비해 치안 상태가 좋은 편이나 소매치기, 절도사건, 총기 강도 사건은 자주 발생하므로 주야간 모두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 공항에서 여행객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들어 주거나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현지인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소매치기는 아니더라도 별도의 수수료 요구한다.
- 호텔 등에서 미화 지폐 또는 금 저가 판매 제의를 하는 위조지폐 유통조직 또는 금 관련 사기 범죄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절대 관심을 보이거나 응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의 감시에 걸릴 경우 공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노상강도 및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 한적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공항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호의를 베푸는 척 접근하여 소매치기를 해 가는 수법이 많다.

[대책]

- 중요한 물품은 가급적 휴대하지 말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을



현지
치안 상황

경계해야 한다.

- 범인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 반항하면 범인이 흉기를 사용하게 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범인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요청해야 한다.
-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도난 사고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도난 물품에 대한 경찰 보고서(Report)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사례 2] 차량 강도를 만났을 때

- 차량이 정차한 순간에 문을 열고 소지품을 강탈한 후 준비해 놓은 차를 타고 도주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 차내에 절도범의 표적이 될 만한 물건이 있을 경우 차량 유리를 파손한 후 절도하는 경우도 있다.

[대책]

- 항상 차 문을 잠그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주정차를 삼간다.
- 귀중품을 차내에 남겨 두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 남겨 놓을 경우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택시를 이용한 강절도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호텔 프런트에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아는 사람에게 택시 차량 번호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 앉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출발 전 목적지까지의 대략적인 시간과 경로를 확인해 둔다.

[사례 3] 운전 중 대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 외국인이 사고를 냈을 경우 지나가던 제삼자 현지인이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경우가 많다.
- 군중심리에 의해 흥분하여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책]

-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신변 안전을 우선시하되, 많은 현지인이 접근하는 경우 경찰에 빨리 신고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
-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가급적 직접 운전하지 말고 현지 기사를 채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화물차의 적재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물건을 많이 실은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재래시장이나 빈민가를 여행할 때에는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말고, 가급적 친분이 있는 현지인 또는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이동한다.



대중교통

• 버스

- '트로트로' 라고 불리는 12~15인승 승합차가 주된 대중교통 수단이며, 요금은 가나 화폐 단위로 시내는 45~50페소, 시외는 2,5~3,0Cedi이다(1세디=100페소 =한화 1,000원, 2008년 8월 기준).

불규칙적으로 운행하므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동해야 한다.

• 장거리 시외버스

- STC(State Transportation Corporation)를 이용하며 요금은 10~20Cedi 정도이다.

• 택시

-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중고차를 이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며 우리나라의 티코, 구형 프라이드를 이용한 택시도 자주 볼 수 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탑승 전 요금을 흥정해야 한다. 5km 이내의 거리는 거리에 따라 약 2~4세디 정도, 30km 정도의 거리는 약 10세디이다.

• 교통패스 등의 개념은 없으며 모두 현금을 내고 이용해야 하고 별도의 팁은 없다.

도로교통

- 부실 공사로 도로 노면에 파인 곳이 많으며, 특히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노상이 파인 곳뿐만 아니라 갓길의 하수구도 주의해야 한다.
-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보험 서류도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벨트도 전원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이 운전하면 현지 경찰의 금품 요구가 많으므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택시나 승용차들이 도로교통 신호나 표지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노후 차량이 많고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행인 및 소떼, 양떼 등이 있으므로 운전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타이어 파손이 자주 발생하므로 노후 차량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 연말연시 야간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을 세운 후 습격하여 금품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밤늦은 시간의 운행은 자제한다.

기후

- 가나의 기후는 열대기후로 남동해안은 온난 건조, 남서해안은 고온 다습하며, 북부 지방은 고온 건조한 날씨이다.
- 대체로 4~9월은 우기, 10~3월은 건기에 해당한다.



- 1~3월은 하르마탄 시즌이라 불리며,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를 동반한 건조한 바람인 하르마탄(Harmattan)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안 좋다.
- 연평균 기온은 27°C이며, 강우량은 1,500mm 내외이다.
- 우기에는 밤낮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체질에 따라 춘추복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 우기(4~9월)에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가옥과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우기에 북부 지방을 여행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 건기에는 법으로 금지된 화전으로 인해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종교는 기독교(69%), 회교(15.6%), 토속종교(8.5%) 등으로 구성된다.
- 전통적으로 화장실에서 왼손을 사용하던 습관이 있어서 왼손으로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을 예의로 아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다. 지금은 식사할 때 포크나 스푼을 이용하고 화장지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습관도 변화하고 있다.
- 현지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편이다. 관공서나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또는 빈민가 등에서 허가 없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일반적인 민원이 아닌 이상 사전 약속이 필요하며, 출입 시 보안검색 등의 절차는 없으나 일 처리는 매우 느리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P.O.Box GP 13700 No.3 Abokobi Rd, East Cantonment, Accra, Ghana
- 전화 : +233-21-776157, 777533
- 팩스 : +233-21-772313
- E-mail : ghan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gha.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233-244-020297 / +233-244-321858 / +233-244-322902

근무 시간

- 월, 화, 목, 금 : 08:30~16:00(점심시간 12:30~14:00) / 수 : 08:30~13:00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가나 공휴일
- ※ 가나 공휴일
- 1월 1일 : New Year's Day
- 3월 6일 : Independence Day
- 5월 25일 : Good Friday, Easter Day, 아프리카 연합의 날

- 6월 4일 : Revolution Day
- 7월 1일 : Republic Day
- 12월 첫째 금요일 : Farmer's Day
- 12월 25일 : 성탄절
- 12월 26일 : Boxing Day
- 이슬람 휴일 2일 등(월력에 따라 매년 변경)

영사협력원 연락처

- 토고 : +228-909-8490
- 베냉 : +228-948-2525

비자 정보

- 사증 면제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입국 비자는 주한 가나대사관(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193-3 삼호빌라 / 02-3785-1427)에서 받을 수 있다.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를 소지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국립의료원에서 접종 및 카드 수령).
- 장기 체류 비자는 주재국 입국 후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체류 비자 신청 시, 주재국 이민국에서 국내 '무범죄경력증명서' 도 요청하고 있으므로 주재국에 도착하여 대사관을 통해 신원조사를 한 후 범죄경력증명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2~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국 출국 전 경찰서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아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예방접종

- 가나 입국 2주 전 말라리아약 복용 및 황열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파상풍, 장티푸스, A형 간염 예방접종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통관

- 술 : 1병(1리터 이하)
- 담배 : 시가 100개 또는 담배 20갑 이하
- 향수 : 250mL 이하
- 면세 한도 금액(일반 면세 기준) : 여행 중 사용할 의류, 스포츠용품, 장난감, 유리용품, 전자제품 등은 면세이다. 동일인의 연속적인 입국 시에는 다를 수 있다.
- 외국환 신고 : 입국 시 외국환 반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출국 시 미화 현금 \$3,000 또는 수표 \$5,000 이상은 제한이 있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소량의 의약품은 반입이 가능하다. 장기간 복용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휴대가 가능하다.
- 식품 : 유아용 우유, 소량의 식품 등은 휴대가 가능하다. 과다 휴대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반입 불허 품목 : 마약, 화약, 수은 함유 의약 비누, 유독품, 오염된 식품, 감염된 동식물, 흙, 인화물질, 외설물, 무기류, 위조지폐 등
- 관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 금화, 미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약품(판매용), 화폐 문양 상품, 수갑, 열쇠 가공용 기계, 고농도 유지방 함유 분유, 도박 기계, 동식물, 뱀, 수은, 가금류 생산품 등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치아 및 피부질환 치료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진료 수준도 의심스러운 편이다. 장기 거주 예정인 경우 부인병(비뇨기, 유방 및 자궁 계통)은 출국 전 정밀검사를 받고 가는 것이 좋다.
- 일반적인 약품은 시중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평소 질병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약품을 구해서 오는 것을 권장한다. 단 풍토병에 관해서는 현지 의사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
- 국제협력의사(외과 전공)가 2008년 6월 주재국에 부임하여 테마 폴리클리닉(022-202775~7)에서 근무 중이다.
- 주요 병원 연락처
 - 아크라시 : 37 Military Hospital 021-776111, 776115 / Korle-Bu Hospital 021-665401, 673033 / Nyaho Medical Centre 021-775341, 775291 / Lister Hospital & Fertility Centre 021-812325 / Kumoji Hospital 021-778905
 - 테마시 : General Hospital 022-302694~6 / Polyclinic 022-202775~7 / Port Clinic 022-206879, 206342 / Women's Hospital 022-304332 / Narh Bitá 022-204425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91
- 소방서 : 192
- 앰블런스 : 193

차량 수리

- 국산 자동차 수리를 위한 대리점은 있으나, 현지 엔지니어의 기술력이 많이 뒤떨어진다. 특히 고가의 부품에 대해서는 현지 보관 중인 부품이 별로 없으며 해외 주문

하여 수리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현대자동차 지정 대리점 : Auto Plaza(아크라) 021-246288
- 기아자동차 지정 대리점 : RANA Motors(아크라) 021-230112
- 쌍용자동차 지정 대리점 : Modern Auto Service(아크라) 021-224316

팁 제도

- 주요 식당 등에서 2~5세디 정도의 팁을 준다.

한국과의 시차

- 그리니치 표준시(GMT)와 동일하며 한국 시간보다 9시간 늦다.
- 일광시간 절약제(Summer Time)는 없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전압 변동이 심하므로 정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전압 안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가나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가나웹 : <http://www.ghanaweb.com>

언어

- 공용어 : 영어
- 현지어 : Gha, Fante, Ewe, Twi, Haousa, Dagbawi, Nzima 등 7개 언어

| 02

아프리카

Gabon



source - 가봉대사관

가봉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CFA
대사관 홈페이지 | <http://gab.mofat.go.kr>
가봉정부 홈페이지 | www.legabon.org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가봉(Gabonese Republic)은 아프리카 중부 서해안, 대서양에 접하고 적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콩고공화국, 북쪽은 카메룬 및 적도기니와 인접하고 있다.
- 1960년대 중반 이후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망간, 목재, 우라늄)에 힘입어 아프리카 국가 중 개인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로서, 1990년대 초반 정세가 불안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봉고 대통령의 장기 집권(41년)하에 인근 지역 중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가난한 주변국으로부터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에 대처하고 자국인 고용 증가를 위해 외국인 체류증 발급 제한과 국경 검문검색 강화, 시내 차량 불심검문 등으로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여행자는 여권, 운전자는 면허증 등을 항상 휴대하고 검문 시 제시해야 한다.
-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자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과 불리한 근로 조건에 불만을 품어 노상강도, 택시 강절도, 가택 침입 절도, 권총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현지인 밀집 거주 지역 또한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경찰의 불심검문

- 음주 단속을 하지 않지만 주재국 경찰의 불심검문이 자주 있다. 각종 증빙서류(여권,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소화기, 안전표지판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치안 상황



[대책]

- 늦은 귀가 시 가족에게 전화로 위치를 알린다.
- 현금이나 귀중품은 차량에 보관하지 않는다.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장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에서 사체 수습을 하지 말고 신속히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다.

대중교통

• 버스(SOGATRA)

- 일반 요금은 1구간 100CFA(약 \$0.25)이며, 앞문 승차 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지불한다.

• 택시 버스(TAXIBUS)

- 요금은 1구간 200CFA(약 \$0.5)이며, 우리나라 승합차와 같은 차량으로 택시와 같이 승하차장 없이 수신호로 승차가 가능하다.

• 택시

- 시내 구간 개인당 요금은 500CFA(약 \$1.2)이며, 승차 시 운전기사와 방향 및 금액을 합의한 후 승차한다.
- 공항-시내 구간은 2,000CFA(약 \$4.8), 공항-오웬도시 구간은 4,000CFA(약 \$9.6)이다.
- 팁 및 기본요금은 없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 사항

- 외국인, 노약자 및 여자는 특히 차량 강절도를 주의해야 한다.
-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 반드시 2~3인이 함께 탑승한다.
- 최근 2~3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택시 강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

- 운전 시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증과 보험 서류는 차량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 프랑식으로 오른쪽 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기후

- 열대우림 기후로서 기온이 서늘하고 비가 덜 오는 건기에 여행하는 것이 좋다.
- 대우기는 3~6월, 대건기는 6~9월, 소우기는 10~12월, 소건기는 1~3월이다.
- 우기는 고온다습하고 비와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건기에는 말라리아모기와 각종 병



- 해충이 있으므로 여행 시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평균 기온은 25~28℃, 최저 기온은 7월 18℃, 최고 기온은 4월 35℃ 정도이다.

자연재해

- 우기에는 천둥, 폭우 등으로 인해 도로 유실이 발생해 차량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광서 및 박물관 등의 영업시간

- 우체국 : 09:00~12:00, 15:00~18:00 / 토, 일요일 휴무
- 식당 : 낮 12:30~15:30, 저녁 19:00~23:00
- 대형 상점 : 09:00~12:00, 15:00~18:00 / 일요일 휴무
- 은행 : 07:45~11:30, 14:45~16:00 / 토, 일요일 휴무
- 박물관 : 09:30~12:00, 15:00~17:30 / 토, 일요일 휴무

대인관계 문화

- 국민성은 개방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한다.
- 사진 촬영은 군사 시설, 공항, 금지된 지역 외는 가능하나 주재국인 촬영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B.P. 2620, Libreville, GABON
- 전화 : +241-73-4000(대사관 대표 전화)
- 팩스 : +241-73-9905
- E-mail : gabon-ambcoree@mofat.go.kr
- 홈페이지 : <http://gab.mofat.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241-0623-7218

근무 시간

- 월~금 : 08:30~17:30(점심시간 12:30~15:00)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가봉 공휴일
- ※ 가봉 공휴일
- 1월 1일 : New Year's Day (신정)
- 3월 12일 : Renovation Day
- 3~4월 : 부활절 및 라마단 종료일
- 5월 1일 : 노동절, 5월 하순 (오순절)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6월 초 : 양의 축제
- 8월 16~18일 : 독립기념일
- 11월 1일 : 만성절
- 12월 25일 : 성탄절
- ▶ 가봉 정부의 휴무 일정에 따라 대사관 휴무 일정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여행 전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국제인증 황열병 예방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 비자 발급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비자신청서 1부, 항공일표부 1부, 호텔예약확인서(관광비자), 현지 초청장 및 출장증명서(비즈니스), 수수료 50,000원
- 비자 신청 접수 및 발급 시간 : 월~금(09:00~12:00, 13:30~16:00)
- 주한 가봉 대사관 연락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 02-793-9575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약 2주
- 찾아가는 법 :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1번 출구, 이태원역 2번 출구 약 200m 우리은행 건물 4층

입국 심사

- 좁은 공항으로 인해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며, 도착 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입국 라인에서 여권, 세관신고서, 황열병 접종 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입국 심사는 여권에 주재국 입국 비자, 여권의 본인 확인을 거치며, 출입국 카드에 채류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확인한다.

출국 절차

- 비행기 이륙 3시간 전 공항 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항공사 직원은 짐을 부치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을 발급해 준다.

예방접종

- 가봉은 황열병, 파상풍 위험 지역으로서 입국 전 예방접종이 요망된다. 특히 황열병 국제공인 예방접종 카드는 입국 시 필히 지참해야 한다. 가봉에서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말라리아 약 복용 방법 : 여행 출발 2주 전 복용
- 수돗물은 가급적 끓여 마시고 시중에 판매되는 물을 구입하여 마신다.

환전

- 고급 호텔 이외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며, 모든 결제는 현금이 원칙이다.
- 세파프랑(CFA) 지역으로 CFA는 유로화와 고정 환율(1유로 : 655.957CFA)이므로 미

달리화보다는 유료화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다.

- 전반적으로 의료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의료비가 비싼 편이다.
- 프랑스 의사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질병 치료 및 예방접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가봉은 악성 말라리아 지역인 바, 말라리아로 의심되는 증상을 느낄 시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77 / 화재 신고 : 18 / 앰블런스 : 76-1026 / 한인회 : 77-2341

차량 운전 문화

- 3개월 이상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수도(리브르빌)에 서는 자가 운전이 가능하나, 도로 포장 상태가 나쁜 지방도로는 4WD 차량과 운전 기사를 같이 렌트하여 여행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 야간 운전 시 대로변 무단 횡단, 임의 차선 변경, 추월, 과속 등으로 인해 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특히 야간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팁 제도

- 호텔, 식당 서비스 이용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텔이나 공장에서 짐을 이동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1.5 정도 현지화를 지불하면 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으며 서머타임은 없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한국 전자제품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가봉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여행 전문 소개 자료 : Gabon, Sao Tome & Principe(The Bradt Travel Guide)
- 여행 전문 사이트 : <http://www.africaguide.com>

언어

- 공용어 : 프랑스어



| 03

아프리카

Nigeria



source - 나이지리아대사관

나이지리아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Naira

대사관 홈페이지 | <http://nga-abuja.mofat.go.kr>

나이지리아정부 홈페이지 | www.nigeria.gov.ng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최근 내란, 전쟁 등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납치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 무장 단체들은 다이너마이트, 선박 설치 총포, 대공미사일 밀매 등 다양한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2008년 6월 셸(Shell) 정유 시설을 공격한 사건도 무장 단체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 니제르 델타 지역 무장 단체들이 Oil Bunkering(석유 절도)을 통해 소득원을 찾다가 정부에서 2006년부터 이를 강력히 단속하면서 외국인 납치로 범죄 양상이 전환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우리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을 '여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두었으며, 기업인들 또한 무장 경찰을 대동하고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 납치가 빈번한 지역은 리버스주, 바엘사주, 델타주 3곳이다. 특히 이조족(나이지리아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석유 시설이 밀집해 있는 각 주의 하구 지역에서 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 수도인 아부자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무장 강도들에 의한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2008년 7월 아부자 경찰 본부 근처 사거리에서 무장 강도 6명이 주차 차량을 강취하면서 차량 탑승자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 라고스 및 니제르 델타 지역은 아부자에 비해 치안 상황이 훨씬 나쁘다. 무장 강도의 은행 습격, 노상강도,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현지
치안
상황

- 현지 교민들의 경우 매년 2~3회나 강도를 당할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무장 강도를 만났을 경우

[대책]

- 나이지리아 여행은 항공편이 안전하며, 육로 이동은 삼간다.
- 무장 강도나 무장 단체의 위협을 받았을 때는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 순응하면 인명을 해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야간 통행은 엄격히 자제하고, 주간에도 교통이 혼잡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가급적 안내인을 대동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2] 차량 관련 사건

[대책]

-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문을 잠그고 창문도 닫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사고 처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현장을 떠난다.
- 도시 외곽에서 운전 중 경찰의 검문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응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은 삼간다.
-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주나이지리아 대사관(09-461-2701, 070-3400-6846)이나 주라고스 분관(01-271-6295, 080-2290-5494)에 도움을 청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니제르 델타주(포타코드 포함) 지역은 무장 단체의 잦은 출몰 및 외국인 납치가 빈번하다.
- 라고스(최대 항구 도시) 지역은 치안 부재로 강도 및 절도가 빈번히 발생한다. 극심한 교통 혼잡을 틈탄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외국인이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이 전무하다.
- 필요 시 렌터카나 지인의 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도로교통

- 도로교통이 낙후되어 있으며 차선 표시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 전무하다.
- 지방의 도로 사정은 훨씬 더 열악하여 일반 승용차로는 여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기후

- 나이지리아의 남쪽 구릉지대 이남 지역은 대체적으로 열대우림 기후, 북쪽 지역은 사바나 기후로 건기(12~5월)와 우기(6~11월)로 나뉜다.
- 수도 아부자는 사바나 기후로 건기에는 온도가 30℃ 이상 상승하며, 우기에는 비교적 선선하다.
- 최대 항구 도시인 라고스는 열대우림 기후이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고온 다습한 것이 특징이다.
- 매년 12~2월에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하르마탄이라는 오염된 바람(약한 황사와 비숫)이 매우 건조한 기후를 형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자연재해

- 가뭄으로 인한 재해보다는 폭우로 인한 도로 및 원시 가옥 등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 이슬람 종교 및 기독교가 공존하는 국가이다.
-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계율에 따라 정해진 시간마다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들에게 조롱하는 언행을 삼가고 기도자의 앞으로 건너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이슬람교도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해당 교도들의 절대적 반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옷차림은 현지인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일반적인 옷차림을 권장한다.
- 지방은 아직까지 현대적인 법 체계보다는 현지 부족의 관습과 부족장의 명령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부족의 관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칫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 주소 : No.9 Ovia Crescent Off Pope John II St, Maitama, P.O.Box 6870, Abuja, Nigeria
 - 전화 : +234-9-461-2701
 - 팩스 : +234-9-461-2702
 - E-mail : emb-ng@mofat.go.kr
 - 홈페이지 : <http://nga-abuja.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234-703-400-6846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주라고스 분관
 - 주소 : Plot 10A&B, Layi Ajayi Bembe St., Parkview, Ikoyi, Lagos, Nigeria
 - 전화 : +234-1-271-6295
 - 팩스 : +234-1-271-6291
 - E-mail : khtim880@nate.com
 - 홈페이지 : <http://nga-lagos.mofat.go.kr>

근무 시간

-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 월~목 : 08:00~16:00(점심시간 12:30~14:00)
 - 금요일 : 08:00~12:00
- 주라고스 분관
 - 월요일~금요일 : 08:00~17:00(점심시간 12:30~14:00)
- 휴무 : 토요일,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나이지리아 공휴일
 - ※ 나이지리아 공휴일
 - 1월 1일 : 신년
 - 해당일 : 부활절
 - 5월 1일 : 노동절
 - 5월 29일 : 민주주의 날
 - 10월 1일 : 독립기념일
 - 12월 25~26일 : 성탄절
 - 해당일(무슬림력) : 기타 이슬람교 휴일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입국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전화 : 02-797-2370)에 문의한다.
- 입국 전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해야만 나이지리아 입국이 가능하다.
- 말라리아 예방약을 미리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치료약은 현지에서 판매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 입국 시 총기, 화약류 등은 법률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하나,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는 가능하다.
- 본국 출국 전, SOS 의료보험(www.internationalsos.co.kr) 가입을 추천한다.
- 일반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며, 병원 최초 방문 시 약 \$150 정도 든다.
- 아부자 시내 주요 병원(영어 사용 가능)
 - National Hospital : 09-2342-686~9(앰블런스 이용 가능)
 - Abuja Clinic : 09-2344-599

- 라고스 시내 주요 병원(영어 사용 가능)
 - Reddington Hospital : 01-271-5341(앰블런스 이용 가능)
 - St. Francis Hospital : 01-269-2305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아부자 지역] • 경찰 : 199
- 도로 안전부 : 09-523-3691
 - 수도국 : 09-234-1559
- [라고스 지역] • 경찰 : 119

차량 수리

- 차량의 기본적인 수리는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서 가능하다.
- 아부자 지역
 - Lucky Motors Enterprises : 080-5628-3694
 - Aseu Motor Ent : 080-3450-6324
- 라고스 지역
 - Daewoo Autoland Nigeria Ltd(한국인 경영) : 01-773-6501~2

팁 제도

- 정해진 팁 제도는 없으나 보통 \$1~2 정도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이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240V / 50Hz
- 전압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전압안정기 사용을 권장한다.
- 한국 전자제품은 현지에서 판매하는 어댑터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주요 정보 안내 : <http://www.dawodu.com/nigeria4.htm>
- 일간지 The This Day : <http://www.thisdayonline.com>
- 일간지 The Guardian : <http://www.guardiannewsngr.com>

언어

- 영어



| 04

아프리카

Republic of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화폐 단위 | Rand
대사관 홈페이지 | <http://zaf.mofat.go.kr>
남아공정부 홈페이지 | www.gov.z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전쟁, 내란, 테러 등의 위험은 없는 국가이다.
- 단 2008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외국인 혐오자들에 의한 방화, 폭행 등으로 100여 명의 외국인(대부분 인접 국가에서 이주해 온 흑인)이 피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매년 강도 사건이 우리나라의 60배 이상 발생하는 등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
- 살인 사건은 하루 평균 52.6명이 사망, 강도는 하루 평균 922건, 성폭행은 하루 평균 144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 불법 입국자가 늘어 기존 남아공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
- 비교적 안전하다는 소위 '시큐리티 콤파운드(security compound)' 지역에서도 강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Trio 범죄(가정 침입 강도, 사업체 침입 강도, 차량 강도)는 수도권에서는 점차 감소 추세이나, 콰줄루나탈주, 노스웨스트주, 음푸말랑가주, 이스턴 케이프주 등지에서는 30.5~92.4%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옷차림 보고 공항에서부터 미행

- 공항에서부터 여행객의 복장, 짐의 규모 등을 보고 표적으로 삼아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미행하여 호텔 입구에서 강도를 벌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현지
치안 상황

[대책]

- 공항에 도착하여 숙소로 이동 시 흑인 4~5명이 탄 차량이 계속해서 뒤따라올 경우, 차를 세우지 말고 대사관이나 경찰서로 곧장 간다.

[사례 2] 경찰 사칭 공갈단 및 무장 강도 침입

- 경찰관으로 위장한 공갈단에 의한 금품 갈취 등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4~5명의 무장 강도가 숙소 및 가정집을 침입하여 물품을 강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책]

- 강도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항하지 말고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
- 강도들은 반항할 경우, 단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쉽게 총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사례 3] 다운타운 지역에서의 강취 사건

- 요하네스버그 다운타운 지역을 보행하는 여행객(특히 배낭여행객)의 뒤에서 입을 막고 금품을 강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책]

- 요하네스버그 버스터미널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되며, 버스터미널을 이용할 때에도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가급적 조속히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여행객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지역은 주로 요하네스버그 다운타운인 파크역(Park Station) 및 베리아(Berea), 예오빌(Yeoville), 힐부로(Hillbrow) 지역이다.
- 위의 지역들은 요하네스버그 중심부 지역으로 인근국과의 육로교통 수단인 국제 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흑인 밀집 우범지역으로 한낮에도 거주자들조차 출입을 삼가는 지역이다.
- 강도들의 특징으로는, 젊은 흑인 남자들이 대부분이며 길 안내를 자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여행객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인도한 후, 5~8명이 순식간에 에워싸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한다.

대중교통

- 남아공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개인 승용차로 다니며, 흑인들은 택시(우리의 미니버스에 해당)와 기차를 주로 이용한다.
- 여행객들은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교통수단을 준비하거나, 숙박업소 차량 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교통

- 남아공의 도로 사정은 선진국 수준이며,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 대부분의 차량들이 120~140km로 과속을 하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로터리식(round) 사거리가 많으며, 오른쪽 진입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반드시 정차했다가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출발한다.

기후

- 아열대성 기후로 동부 지역이 서부보다 온난 다습하다. 연평균 기온은 17°C 정도이다.
- 1년은 여름(11~3월)과 겨울(6~9월)로 나누어지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 가을이 짧게 지속된다.
- 수도권은 대체로 청량한 기후로 일조시간이 길다. 남단 케이프타운은 지중해성 기후로서 연중 10~25°C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연재해

- 전반적으로 사이클론 등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나 인도양에 접한 동남부 해안 지역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최근 해안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한 적이 있다.
- 다종교, 다민족 및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나 민족 또는 인종을 차별하는 언행은 삼가야 하며, 특히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관공서의 일처리는 매우 느리고 시일도 오래 걸리는 편이고 까다롭다. 관공서나 은행 등 대부분 기관의 영업시간은 08:00(08:30)~15:30(16:00)까지이다.
- 대부분 관공서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고 있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Green Park Estate #3, 27 George Storrar Drive, Groenkloof, Pretoria 0181, South Africa
- 전화 : +27-12-460-2508
- 팩스 : +27-12-460-1158
- E-mail : korrsa@mweb.co.za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홈페이지 : <http://zaf.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사고 +27-72-136-7615 / 여권 등 일반 영사 +27-82-716-2098

근무 시간

- 월~금 : 08:30~16:30(점심시간 12:00~13:00)

※ 남아공 공휴일

- 1월 1일 : New Year's Day
- 3월 21일 : Human Rights Day
- 3월 21일 : Good Friday (Friday before Easter Sunday)
- 3월 24일 : Family Day (Monday after Easter Sunday)
- 4월 27일 : Freedom Day
- 5월 1일 : Workers Day
- 5월 2일 : Public holiday
- 6월 16일 : Youth Day
- 8월 9일 : National Women's Day
- 9월 24일 : Heritage Day
- 12월 16일 : Day of Reconciliation
- 12월 25일 : Christmas Day
- 12월 26일 : Day of Goodwill

영사협력원 연락처

- 케이프타운 김상철 : +27-21-82-902-1302
- 마다가스카르 송금희 : +261-3207-58316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남아공과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객은 9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체류는 한남동에 소재한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 통관
 - 공항 및 항만에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수하물을 찾은 후, 신고 물품이 있으면 세관 카운터에 신고한다. 세관신고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된다.
 - 반입 금지 품목 : 꿀, 마약류, 포르노물, 식물(씨앗, 뿌리 등), 조리 안 된 고기류, 보석류 원석, 총기 및 탄약, 드라이아이스, 가구, 모피, 기타 위험한 물건
 - 면세 품목 : 와인 2리터, 위스키 등 기타 술은 1리터, 담배 200개비, 시가 20개, 파이프담배 250g, 향수 50ml 이내인 경우
 - 입국 시 현금 소지에는 제한이 없다.

- 의료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사립 병원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거액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검사 없이 간단한 진료는 병원비가 미화 \$100 안팎이다.
- 병원 이용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국공립 병원은 시설이 열악하여 백인 및 관광객은 이용하지 않는다.
-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 및 대형 슈퍼마켓(Woolworth, Pick & Pay, Spar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거액(2천만~5천만 원)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대사관 또는 한인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0111 / 앰블런스 : 10177

팁 제도

- 식당의 경우 총 금액의 10% 정도가 관례화되어 있다.
- 주차나 주유 등 사소한 도움을 받았을 경우 1~2Rand(130~250원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고 있으나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250V / 50Hz
- Hz가 한국과 상이하지만 정밀기기(오디오 등)를 제외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Load Shedding이라고 하여 전력 공급이 일정 시간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남아공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남아공 여행 전문 사이트
- <http://www.southafrica.net> / <http://www.southafrica.info>

언어

- 영어, 아프리칸스(Afrikaans), 줄루어 등 11개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 전 국민의 약 20%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대도시 거주민은 대부분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

| 05

아프리카

Morocco



모로코



시차 | 한국보다 9시간 늦음
 화폐 단위 | Dirham
 대사관 홈페이지 | <http://mar.mofat.go.kr>
 모로코정부 홈페이지 | www.pm.gov.m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서부 사하라 지역은 모로코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으나 폴리사리오가 계속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므로 여행을 자제한다.
- 2006년 8월 대규모 테러 조직 적발, 2007년 3월 연쇄 자살폭탄 테러 사건 발생, 2007년 8월 테러 음모 사건이 적발되는 등 테러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테러 발생 시,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본인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한다.
- 2007년 7월 최대 테러 경계령(적색경보)을 발령한 바 있으나 9월 8일을 기해 중간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로 하향 조정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모로코는 입헌군주국으로 정치, 경제, 종교 등 제반 분야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로코 전역에 걸쳐 치안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단, 극심한 빈부 격차 및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 강절도 등 생계형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 배편으로 유럽과 연결되는 북쪽 항구 도시 탕제에서는 현지어(프랑스어 또는 아랍어)에 익숙지 않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날치기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노상강도

- 새벽이나 늦은 밤에 주로 흉기로 위협을 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빈번하다.



현지
치안
상황

[대책]

-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사관에 신속히 연락한 후 방문한다.
-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한 후 대사관에 연락한다.
- 남녀 불문하고 야간 여행이나 혼자 원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피하고, 외곽 지역이나 시내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출입을 삼간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탕제(Tanger)
 - 유럽(스페인)에 근접한 항구 도시로 유럽을 목적으로 한 밀입국자들과 마약 거래자 등 범법자들이 많아 여행객을 노리는 강철도 사건도 빈번하다.
 - 배편 출입국 시 제3국인의 한국 여권 위조 사례가 많아 여권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사관에 연락한다.
- 카사블랑카(Casablanca)
 - 모로코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로 외국 관광객들과 사업가를 노리는 날치기 및 강도가 많다. 특히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항구 주변을 조심해야 한다.
- 페스(Fès)
 - 주요 관광지인 메디나는 골목이 무척 비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소매치기가 많은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호객 행위도 심하므로 가이드를 동반하는 게 안전하다.



대중교통

• 시내버스

- 도로 곳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버스 번호도 잘 표시되어 있으나 버스 시간 및 목적지는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다.
- 요금은 3디르함, 3.5디르함, 4디르함으로 목적지, 버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버스 안내원이 버스 내에서 요금을 받는다.

• 택시

- 대형 택시(Grand Taxi) : 벤츠 구형으로 정원(6명)이 차야 출발하며 항상 가격 흥정을 해야 하고 도시 간 연결 및 시내 구간도 가능하다.
- 소형 택시(Petit Taxi) : 도시별로 색상이 다르며 정원은 3명이다. 기본 1,40디르함부터 시작하고 100m당 0,20디르함씩 미터기가 올라간다.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요금이 할증(50%)되며 합승이 가능하다. 미터기를 조작하기도 하므로 구간별 요금을 미리 알아 둔다.
- 라바트의 경우 일정 구간을 정액으로 소형 택시를 탈 수 있는 소형 택시 정류장

- 있다. (예 : 라바트 아그달 지역에서 센트레빌까지 4디르함)
- 역 바로 앞이나 CTM 버스 정류장 입구의 택시들은 높은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이나 정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탄다.

• 시외버스

- CTM이 대표적이며 각 도시에 있는 CTM 정류장에서 탈 수 있고 수화물도 같이 취급한다(<http://www.ctm.co.ma>).

• 기차

- 국립철도청(ONCF)이 운영하는 철도(1, 2등석)가 구간별로 있다.
- 1등석은 좌석제이나 2등석은 그렇지 않고 현재 구형 기차와 신형 기차가 동시 운행 중이다(<http://www.oncf.ma>).

도로교통

-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나라로(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운전 시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방어 운전이 필수적이다.
- 도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고속도로도 갓길에 없는 노선이 있으며, 불쑥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기도 하므로 과속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 시골길에서는 동물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빈번하다.
- 교통사고 또는 강력사고 발생 시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보다는 경찰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연고자 확인 등 행정 절차가 우선시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도 경찰이 도착하지 않으면 사람을 이동시킬 수 없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경찰을 부르기 전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 보호를 위한 효율적 조치를 위해 대사관 사고 처리 담당관 전화번호(061-78-7722, 061-29-1356)를 항상 소지한다.
- 대도시 중심가에 주차할 경우 주차 구역 내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 구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 안내원이 주차를 도와주고 자동차를 봐주며 1~2디르함을 받는다(관광지에서는 5디르함).
-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다소 난폭해져 신호 무시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특히 교차로 주위에서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기후

- 북부 지역 :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은 온난 다습하고 여름은 고온 건조하다.
- 중부 지역 : 대륙성 기후로 겨울은 한랭하고 여름은 서부 사하라 사막의 열풍으로 고온 건조하다.



기후와
자연재해



- 남부 지역 : 사막성 기후로 고온 건조하며 주야간 기온 차가 심하다.
- 우기는 11~4월로 온난 다습(평균 15°C)하며, 건기는 5~10월로 고온 건조(평균 28°C)하다. 8월(평균 18~28°C)이 가장 덥고, 1월(평균 8~17°C)이 가장 춥다.

자연재해

- 폭풍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는 없으나, 모로코 북쪽 알 호세이마(Al Hoceima)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몇 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 2004년 2월 진도 6.3의 지진으로 500여 명 사망, 2,000여 명이 부상당했다.
- 1990년 진도 6.0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종교

- 99%가 이슬람교(수니파)를 믿으며 종교적인 전통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다섯 번씩 아잔(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이 울리며 길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 라마단 기간(금식 기간으로 약 한 달)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이 금지되며 대부분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
- 라마단 기간 동안 현지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차량 운전 시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현지인들을 자극할 만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옷차림 및 인사

- 모로코 전통 옷인 질레바(위아래가 연결된 옷)와 전통 모자(챙이 없음)를 착용하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 평상복 차림의 사람이 더 많다.
-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옷차림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여행 시 노출이 심하지 않은 복장이면 큰 문제는 없다.
- 평소 인사로 서로 번갈아가며 뺨을 맞대거나 악수를 한다. 미혼인 여성에게는 가능하나 혼인한 여성에게 남성의 뺨 인사는 금지되어 있다.

사원 방문

-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곳곳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스크 방문은 무슬림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으나, 유명한 관광지의 큰 모스크는 정해진 시간에 입장료를 내고 방문할 수 있다.

사진 촬영

- 일반적으로 항만·공항·군사 지역은 사진 촬영 제한 지역이다.
- 대부분의 모스크는 내부를 촬영할 수 없으나, 일부 허용하는 모스크도 있으며 사진

촬영 시는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꺼려하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찍어야 하며, 특히 시장에서는 사진 촬영 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서부 사하라 지역 등 분쟁 지역에서의 사진 촬영 및 취재는 제한되고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송용 취재, 촬영 등은 사전에 공보부의 취재 허가를 받은 후, 관할지 경찰서에 사전 신고 후 촬영이 가능하다(공보부 전화 : +212-7-766016).

외국인 금기 사항

- 모로코 국왕이나 왕가를 포함한 국왕제 비난, 이슬람 종교에 대한 모독, 서부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 주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절대 금물이다.
- 현지인과 종교 관련 토론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현지인에 대한 타종교 포교 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모로코는 회교 국가이므로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소란을 피우는 일은 금물이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41, Mehdi Ben Baraka, Souicci, Rabat – Maroc
- 전화 : +212-37-751767
- 팩스 : +212-37-750189
- E-mail : morocco@mofat.go.kr
- 홈페이지 : <http://mar.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212-61-787722

근무 시간

- 월~금 : 09:00~18:00(점심시간 12:00~14:00)
- 라마단 기간은 모로코 관공서 근무 시간에 따라 조정한다. (예 : 09:00~15:00, 점심시간 없이 계속 근무)

※ 모로코 공휴일

- 1월 1일 : 신정
- 1월 9일 : 이슬람 신정*
- 1월 11일 : 독립청원기념일
- 3월 19~20일 : 선지자 탄생일*
- 5월 1일 : 노동절
- 7월 30일 : 모하메드 6세 국왕 즉위 기념일
- 8월 14일 : 서부 사하라 수복 기념일



긴급 영사
연락망



- 8월 20일 : 반프랑스 식민통치 끝기 기념일
 - 8월 21일 : 청소년의 날 겸 국왕 탄생일
 - 10월 1~2일 : 라마단 종료일*
 - 11월 6일 : 녹색 행진 기념일
 - 11월 18일 : 독립기념일
 - 12월 8~9일 : 양 희생제일*
- ▶ * 표시는 회교력 기준이므로 매년 달라지며 유동적임.

사증

- 모로코와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1993년 9월 1일)되어 있어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 투자, 취업 및 사업 등 장기 체류 시 주한 모로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현지에서 자격이 갖추어질 경우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체류증(Carte de Séjour)을 취득하거나, 다른 나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한다.

외환

- 외환 반입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모로코화(디르함)의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사용 후 남은 디르함은 출국 시 공항에서 환전해야 한다.
- 환전 시 환전증명서가 없으면 환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환전증명서는 반드시 보관해 둔다. 공항에서는 환전증명서 제시가 필수 사항이다.

휴대품 통관

- 마약, 무기류 등을 제외한 일반 여행자 휴대품 통관은 까다롭지 않다.
- 술, 담배, 화장품류 등 면세 통관 수량은 유럽 국가와 비슷하나, 과도한 샘플 또는 동일한 샘플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간주, 관세를 부과한다.
- 카메라, 쌍안경, 개인용 장신구, 라디오 등 개인 휴대품 및 위스키 1병, 포도주 3병, 담배 10갑 이내는 개인 휴대품으로 면세 통관한다.
- 취재, 촬영을 위한 장비 등은 공항에서 신고 후 통관해야 한다.
- DVD, CD, 비디오카세트 등은 검열이 심하므로 가급적 휴대를 삼간다.



- 수도인 라바트에는 UN병원, Sheikh Zayed, Clinique Agdal 등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있으며 외국(특히 프랑스)에서 수련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떨어지므로 특히 치과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에 진료를 받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 지병 또는 전문의의 진료 또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진찰을 받은 후,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기록을 가지고 간다.
- 간단한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으나 중요한 약품일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약들이 수입품으로 한국보다는 약값이 비싸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도둑, 강도 신고 : 177
- 범죄 및 경찰 : 19
- 화재 및 응급환자(앰블런스), 응급의료센터 : 15

차량 수리

- 큰 도시에는 차 브랜드별 정비소가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전문 정비소도 많이 있으므로 차를 쉽게 수리할 수 있으나 수리비는 다소 비싼 편이다.

팁 제도

-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5~10%를 지불한다.
- 역이나 호텔에서 짐을 들어줄 때는 5~10디르함의 팁을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9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TV, Video는 MESECAM 방식으로 멀티 시스템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 컴퓨터, 오디오, 에어컨,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 사용이 가능하다.

모로코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모로코 관광 안내 : <http://www.tourism-in-morocco.com>
- 출판사 아세트(Hachette)사의 《Maroc》, 론리플래닛 가이드북 'Morocco' 편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베르베르어(Amazigh어)
- 상용어 : 프랑스어(제1외국어)
 - 초등학교 과정 이수자는 웬만한 프랑스어 회화는 구사가 가능하다.
 - 외교협력부 등 관공서, 학계 등 지식인은 대부분 프랑스어로 소통한다.
- 통용어 : 스페인어(북부 지중해 연안 및 일부 남부 해안 지방)

| 06

아프리카

Senegal



source - 세네갈대사관

세네갈



시차 | 한국보다 9시간 늦음
화폐 단위 | CFAF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en.mofat.go.kr>
세네갈정부 홈페이지 | www.gouv.sn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북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말리, 북쪽으로는 모리타니아, 남쪽으로는 기니비사우와 기니에 둘러싸여 있고, 세네갈 영토 내 감비아가 세네갈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일찍 민주화가 이루어져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으로 전쟁, 내란, 테러 등의 위험은 인근 국가(코트디부아르 등)에 비해 낮다.
- 외국인 및 외교단 거주지 등 다카르 지역 전반의 치안은 양호한 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물품 등을 노리는 절도 등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간 통행 시 주의해야 한다.
- 세네갈 남부 카자망스 지역의 경우,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이 활동하고 있어 현재 여행 자제 지역(2단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험 지역으로 간주된다.
- 인근국인 기니, 기니비사우 등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 내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말리의 경우 동북부 지역에 이슬람 계열 반군인 투아렉(Touareg)이 주기적으로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북서아프리카 지역이 마약 밀매 운송로의 새로운 루트로 부상하고 있어, 인근 국가 접경 지역 등지에서는 출입국자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항 및 국경에서 의심을 살 만한 물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홀로 다니는 여성을 목표로 하는 절도가 많으므로 가급적 일행을 이루어 다니고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영어가 거의 통용되지 않



현지
치안
상황

는 상황이므로 대사관 및 교민회에 도움을 청한다.

- 다카르 시내(독립광장 부근), 외교단 밀집지역(Fann residence), 신흥 부촌(알마디 지역) 등은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으나,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물품을 노리는 절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현지인들의 물건 강매와 소매치기

-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당 앞, 관광지 등지에서 현지인들이 물건을 판다든지, 돈을 요구하면서 둘러싸는 경우가 있다.

[대책]

- 외국인들이 주위를 산만하게 하여 소매치기, 강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피한다.
- 시내 중심이나 쇼핑 거리는 항상 소매치기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현지인들이 친한 척하면서 동전을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

[사례 2]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집적거림

- 이슬람 문화권인 세네갈에서는 남자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는 관습이 있으며, 외국인 여성에게는 과도하다고 느낄 만큼 집적거리는 일이 많다.

[대책]

- 본인이 불편함을 느낄 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피한다. 어중간한 태도나 미소를 보이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사례 3] 현지 경찰의 단속

- 간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찰이 있다.

[대책]

-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때는 경찰의 지시대로 관련 서류를 보여 주고 순순히 응대해야 한다.
- 단 위반 사항이 없을 때는 명확한 위반 사유를 물어보아야 한다.

대중교통

• 일반 버스(흰색 또는 푸른색 대형)

- 구간별 요금 징수 : 1구간 150세파프랑, 2구간 250세파프랑
- 버스카드(한 달 사용) : 어른 16,000세파프랑, 학생 12,000세파프랑
- 최근 인도 TATA사의 버스를 도입하여 버스 환경이 나아지긴 했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 마을버스(Car Rapid로 통칭)

- 차량이 노후하고, 위생 환경이 취약한 승합차 규모의 버스로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택시

- 팁은 지불하지 않으며 요금을 미리 협상한 후 탑승해야 한다.

- 중심가 : 600~1,000세파프랑 내외

- 중심가~외부 주거 지역 : 1,500~3,000세파프랑 내외

- 중심가~공항 : 3,000~4,000세파프랑 내외(40여 분 소요)

• 기차

- 시내 중심역에서 다카르 근교 출퇴근 기차를 운행한다.

- 노선 : Centre Dakar - Pikine, Centre Dakar - Rufisque, Centre Dakar - Thies(지방도시), Centre Dakar - Mali(접경국)

도로교통

• 도로 포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게 수월하다.

• 안전벨트 착용 규제는 없으나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좌석 수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 시내 중심가 및 외곽 지역의 빈 공간이면 주차가 가능하며, 현지인들이 몰려들어 차량을 지켜주겠다고 할 경우 한 명을 지정해 두면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100세파프랑을 지불하면 된다.

기후

• 건기(11~6월)와 우기(7~10월)로 나뉘며, 특히 7~8월간 스톨성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 수도 등이 끊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 다카르, 투바 등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는 수인성 질병(콜레라)이 발생하는 바, 7~8월에 세네갈을 방문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연재해

• 세네갈은 지반이 안정적인 곳으로 지진 피해는 없으며, 태풍 등 천재지변 발생도 드문 편이다.

• 관광에서의 일 처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정확한 시간을 약속한 후 방문한다.

• 이슬람 사원 출입 시 옷은 단정히 입어야 하며, 신발은 꼭 벗어 맨발로 출입해야 한다.





- 국가법상 국교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국민의 93%가 이슬람인 관계로 가급적 이슬람 정서를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세네갈은 '테랑가(Terranga, 친절)의 나라' 로 불리는 만큼 외국인에게 호의적이며,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치안이 양호한 편이다.
- 세네갈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가급적 친절하게 응대하고 거절할 때는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27, route de la Corniche Ouest x rue David Diop, Fann Residence, B,P,5850 Dakar Fann, Dakar, Senegal
- 전화 : +221-33-824-0672
- 팩스 : +221-33-824-0695
- E-mail : senegal@mofat.go.kr
- 홈페이지 : <http://sen.mofat.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221-77-637-3069

근무 시간

- 월, 화, 목, 금 : 08:00~16:00(점심시간 12:00~14:00)
- 수요일 : 08:00~13:00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세네갈 공휴일

※ 세네갈 공휴일

- 1월 1일 : Jour de l' An
 - 1월 19일 : Tamkharit
 - 3월 20일 : Maouloud
 - 3월 23일 : Paques
 - 3월 24일 : Lundi de Paques
 - 4월 4일 : Fete Nationale
 - 5월 1일 : Ascension
 - 5월 12일 : Pentecote
 - 8월 15일 : Assomption
 - 10월 2일 : Korite
 - 11월 1일 : Toussaint
 - 12월 9일 : Tabaski
 - 12월 25일 : Noel
- ▶ 이슬람 명절은 월력(음력)에 따라 변동됨.



여행 전

- 세네갈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한 세네갈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고, 사증은 방문 목적에 따라 그 종류와 구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입국 전 사증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주한 세네갈 대사관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남산빌딩 4층
 - 전화 : 02-745-5554 / FAX : 02-745-5524
- 장기 체류 시 현지 관련 기관을 통해 비자 연장 및 체류증을 신청해야 하며, 체류증의 경우 비자 기간 만료 4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체류증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세네갈 현지에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경찰청 조회에 4~6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출국 전, 한국 내 경찰청에서 미리 발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 여권 분실에 대비해 여권과 비자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별도로 보관하고, 만약 분실했을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여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 심사

- 입국 심사는 다카르 공항에서 이루어지며, 통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3~5개의 입국 심사 라인 중 한 곳에 줄을 선 후, 출입국 기록 카드(기내에서 나눠 주면 미리 작성해 둔다), 여권,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 준다.
- 세네갈 공항의 경우 짐이 분실되거나 늦게 도착(하루 또는 이틀)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귀중품의 경우 반드시 기내 수화물로 지참하는 게 좋다.

출국 절차

- 입국장과 출국장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출국장 내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면 항공사 직원은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을 발급해 준다. 에어프랑스 티켓은 신는 화물이 없을 경우 출국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e-ticket 자동발권기에서 발권이 가능하다.
- 출국장 인근에는 환전을 권유하는 잡상인(바나바나)들이 다수 있으나, 안전상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 입국 전 황열병 예방접종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국립의료원이나 인천공항 접종소에서 미리 예방접종을 받아 입국한다. 예방접종 유효 기간은 1회 주사로 10년간이다.
- 필수 요건은 아니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다카르 시내에 주인 없는 개들이 활보하고 있다.

- 말라리아의 경우 현지 약국에서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통관

- 신고 물품은 사진기 2대 이상, 방송 촬영용 카메라 장비, 금(200g 이상), 담배 200개 비 이상, 시가 50개비 이상 등
- 입국 시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1,000,000세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출국 시 2,000,000세파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세네갈 입국 시 총기류, 마약류 등은 반입 금지 품목이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국립병원은 많은 현지인 환자로 인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응급 환자의 경우 큰 개인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 다카르 시내에 병원이 많으며, 수술을 요하는 큰 질병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의료 수준이 괜찮은 편이다. 종합병원 이용 시 대기번호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 의약품은 오직 약국(Pharmacie)에서만 판매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은 처방 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약명은 같으나 생산지가 다른 유사품이 간혹 있다. 의약품은 전량 수입품이며, 가격이 비싼 편이다.
- 외국인인 이용하는 큰 개인병원의 경우 진료비만 20,000세파프랑이며,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가 상당히 비싸다.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7
- 화재, 앰بول런스 : 18

차량 수리

- 수리 및 점검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 부품의 경우도 한국 시장 가격의 8~10배에 달한다.

팁 제도

- 식당의 수준, 음식 값에 따라 차등이 있다.
 - 현지 식당 : 100~200세파프랑(약 \$0.5)
 - 중급 식당 : 500~1,000세파프랑(약 \$1~\$3)
 - 고급 식당 : 1,000~3,000세파프랑(약 \$3~\$8)
-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할 때는 팁이 필요 없으며, 호텔 숙박 시 3성급 기준으로 1박당 500~1,000세파프랑 수준이다.

- 호텔, 공항에서 짐을 이동해 주는 경우에도 100~500세파프랑 사이의 팁을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9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정전이 잦고 전압이 매우 불안정하여 현지 거주자들의 경우 대부분 전압안정기 및 UPS를 사용한다.
- 한국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헤르츠의 차이로 인해 고장 발생률이 높다.

세네갈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여행 전문 사이트
 - <http://www.lonelyplanet.com>
 - <http://www.senegal-touris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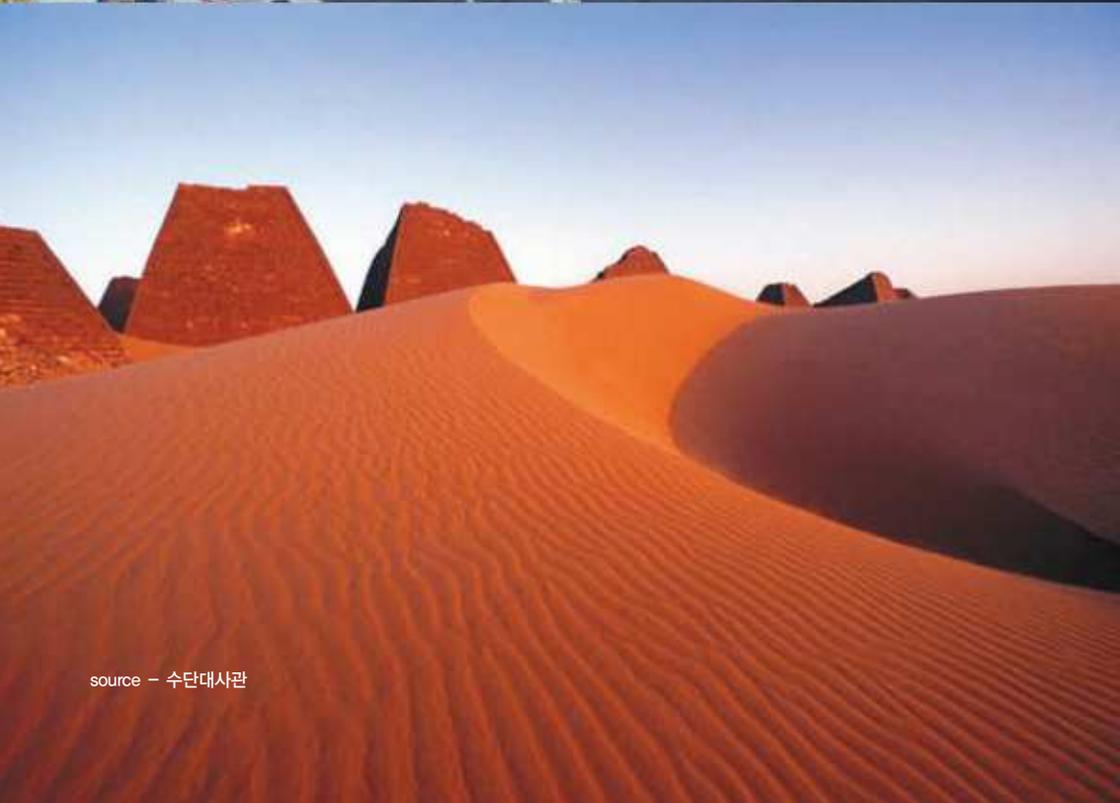
언어

- 공용어 : 프랑스어

| 07

아프리카

Sudan



수단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늦음
화폐 단위 | SDG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dn.mofat.go.kr>
수단정부 홈페이지 | www.sudan.net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수단의 알 바시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다르푸르(Darfur) 관련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단 내 유엔군을 축출하겠다고 하고 있어, 향후 수단의 국내 정세가 매우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 2005년 1월 남북 수단 간에 20여 년의 내전이 종료되었으나, 2003년 이후 다르푸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남북 수단 간 경계 지역에서는 종족 간 국지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다르푸르 반군인 정의평등운동(JEM)이 2008년 5월 10일 수도 인근까지 공격해 왔으며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황

- 수도인 카르툼(Khartoum) 지역에는 주재국 정부의 반서방 정세에 부응하는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08년 1월 미외교관이 피살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 다르푸르 지역 정세는 매우 불안하며, 유엔 직원 및 인도 지원 요원에 대한 공격이 잦아 구호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다르푸르 및 남부 수단 주바(Juba) 등 일부 지역 방문은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 카르툼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는 일은 자제하고, 카르툼 내에서도 군중집회 장소는 피해야 한다.
- 특히 현지인과의 대화 시 주재국 정세(ICC기소, 2009년 선거 등)를 화제로 삼는 것



현지
치안 상황

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옴두르만(Omdurman), 카르툼 외곽 지역
- 수단 - 에티오피아 국경지대(Kasala)
- 남부 수단 - 북부 수단 경계지대(종전 이후에도 국지 분쟁 수시 발생)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대중교통에 이용되는 차량은 거의 노후 차량으로 운행 중 고장의 위험이 있으며, 차량 고장으로 승객이 차를 미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 택시

- 현지인에 비해 요금을 2~3배 더 요구하므로 탑승 전 반드시 가격 흥정을 해야 한다.
- 또한 목적지 이동 중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택시를 탑승해야 한다.
- 기본요금은 5SDG이며 이후 1km당 1SDG가 추가된다. 시외 장거리 이동엔 약 20km에 20~25SDG 정도이다.
- 암자드(다마스 택시)는 국산 다마스를 이용한 택시인데, 요금은 택시보다 조금 싼 편이다.
- 렉사(3륜차)는 1km당 1SDG인데 구간·지역별로 운행되어 이동에 제한이 있다.

• 버스

- 요금은 구간별로 계산하며,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여 동일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버스의 종점, 노선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 버스형은 요금이 0.4(40Piasters)~1.5SDG 정도이며, 승합차형은 1~2SDG이다.

도로교통

- 주요 간선도로만 포장되어 있으며 중앙선, 차선 구별선,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많다.
- 훼손된 도로가 대부분이며, 도로 중간 중간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거나 고장 차량이 도로 중앙에 멈춰 있는 등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가 드물어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렵다. 특히 마차, 당나귀를 조심해야 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북부 사막지대 : 여름철에 40℃ 이상 올라가는 건조한 날씨이다.

- 중부 사바나 지대 :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며 일교차가 심하다.
- 남부 열대우림 지대 : 우기가 8개월, 강우량 2,000mm이다.
- 3~6월, 8~11월은 고온 건조하고 자외선이 강하다.
- 11~3월은 한국의 가을 날씨와 유사하며 건조하고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

자연재해

- 우기에 북부 지역의 강우량은 많지 않으나 하수시설 미비로 도로 및 마을이 쉽게 침수되며, 서부 다르푸르, 남부 수단 지역은 우기 시 도로 소실로 육상 이동이 크게 제한된다.
- 북부는 4~8월 중 수시로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인 하붐(Habub)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자연재해는 거의 없는 편이다.
- 남부는 우기철 나일강 범람(North Kordofan, Unity State)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 무슬림 여자들은 히잡(머리와 가슴 부위를 가리는 것)을 착용하고, 바지를 입지 않는다.
- 주류 판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 주류 유통이 엄격히 통제된다. 공항 입국 시 주류 휴대는 절대 금지이다.
- 회교국이지만 하지만 타종교의 신앙 제약은 없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House No. 55, Al-Jazira Street 56, Khartoum2, P.O.Box 2414, Khartoum, Sudan
- 전화 : +249-1-8358-0031~2
- 팩스 : +249-1-8358-0025
- E-mail : ssudan@mofat.go.kr
- 홈페이지 : <http://sdn.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장성길 영사 : +249-9-1217-2813
 - 이경태 행정원 : +249-9-1069-9442
 - 조아라 행정원 : +249-9-1215-0103

근무 시간

- 일요일~목요일 : 08:30~16:00(점심시간 12:00~14:00)
- 휴무일 : 금요일, 토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수단 공휴일



※ 수단 공휴일

- 1월 1일 : 독립기념일
- 1월 19일~1월 23일 : 하지 (성지 참배 후 희생제)
- 2월 20일 : 이슬람 신년 (New Islamic Hijiri Year)
- 4월 21일 :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드 탄신일
- 5월 2일 : 부활절 계기 춘절 (Sham El Nassim)
- 6월 30일 : 국가 구제 혁명 기념일
- 9월 2일 :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드 승천일
- 11월 4일~11월 7일 : 파제절 (금식월 종료 후 축제, Eid Al Fitr)
- 12월 25일 : 성탄절

▶ 회교력(월력)에 따른 공휴일로 보통 하루 전에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어 매년 차이가 있음.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입국 전 반드시 주한 수단 대사관(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 02-793-8692)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 시 에이즈 검사가 필수이다.
- 한 달 이상 장기 체류 시 입국 후 3일 이내에 내무부 이민국에 외국인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 출국 시 Exit 비자 또는 Exit & Reentry 비자가 필요하다.
- 황열병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말라리아 약은 장기 복용하면 건강에 해로우므로 발병되면 복용해도 된다.
- 수단 내에서는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현금을 소지해야 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의료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었으며 병원 및 의료 시설이 불결하여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
- 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며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영어가 통용된다. Doctor's Clinic은 Africa road에 위치한다.
- 병원비(Doctor's Clinic의 경우)
 - 의사 상담 : 일반의 상담 25SDG, 전문의 상담 150SDG
 - 약제비 : 100~170SDG
 - 혈액 검사 : 말라리아검사 10~15SDG, 에이즈검사(비자 신청 시 필요) 70SDG
 - 입원비 : 200SDG/일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999
- 화재 신고(지역별로 직접 연락해야 함)
 - Khartoum : 018-377-4444
 - Khartoum : North 018-531-3113
 - Omdurman : 018-755-2152
- 응급 후송(각 병원에 직접 연락해야 함)
 - Doctor's Clinic : 018-347-1973
 - Saheroon : 018-325-5315
 - Police Hospital : 018-327-4534

팁 제도

- 계산서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팁은 지불하지 않는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전기는 선불제로 지정된 장소에서 구입하여 집에 설치된 전자 계량기에 직접 입력한다. 전압이 불안하므로 안정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단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수단 정부 : <http://www.sudan.net>

언어

-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카르툼 등 일부 대도시에서 영어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다.
- 각 지방에는 부족언어(약 100여 개 이상)가 사용되기도 한다.

| 08

아프리카

Angola



앙골라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KZ(관자)
대사관 홈페이지 | <http://ago.mofat.go.kr>
앙골라정부 홈페이지 | www.angola.org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주재국 정부는 종전 후 군무기가 회수되지 않고, 불법 거래된 총기들을 회수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 1999년 들어 정부군의 대공세로 대부분의 반군 장악 지역을 회복하면서 반군 세력이 약화 추세에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황

- 가출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떼를 지어 다니며 강절도 행위를 하므로 대낮에도 도로 활보를 삼가야 한다.
- 2007년 11월 독일 경제 사절단원들이 대사관 앞 도로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대낮에 강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경찰에 의한 탈취 범죄

-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차량 운행 중 여권 및 일체 소지품을 경찰에게 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책]

- 저녁에 주로 경찰들에 의한 탈취 행위가 일어나므로 중요한 서류 및 값비싼 물건들은 차내에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경찰에게 여권을 압수당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권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현지
치안 상황



대중교통

- 사전에 호텔이나 여행사, 렌트 회사를 통해 교통수단을 예약해야 한다. 자동차를 외
국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푸른색의 미니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여행객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도로교통

- 앰블런스가 사이렌을 켜도 비켜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 차가 막히면 20분 거리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흐린 날씨가 계속된다.
- 9월부터 10월까지지는 간헐적으로 소량의 비가 내리다가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며 간혹 시간당 100ml가량의 많은 비가 내려 교통이 마
비되기도 한다.
- 특별한 자연재해 발생은 없는 편이다.



- 제출한 문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항상 사본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접수를 하고 나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 길을 걷는 도중에도 여기저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다가와 노골적으로 돈을 요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공무원은 물론 경찰들 또한 금품 수수가 만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
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Centro de Convencoes Talatona (Chalet A101) Luanda Sul, Angola
- 전화 : +244-226-420103
- 팩스 : +244-222-370426
- E-mail : korembassy_angol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ago.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244-912-554000
- 근무 시간 : 월~금 08:00~16:30(점심시간 12:00~13:30)

영사협력원 연락처 및 한인회 회장

- 영사협력원(김경옥 SG서비스사 근무) : +244-925-644765
- 한인회 회장(안영택 인터블고 근무) : +244-923-761443

-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며 출국 2주 전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세관 통과 시 걸려서 세금을 냈을 경우 세금 지불 영수증을 꼭 받아둬야 한다.
 - 세관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세관원이나 경찰이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무반응으로 대하고 세관 근무자들의 눈을 자주 마주치지 않는 게 좋다.
 - 만약 짐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짐 찾는 곳 뒤편 한쪽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고 공항을 떠난 뒤 다음 비행기 편을 확인하고 찾으러 가야 한다.
 - 화물 도난 사고가 빈번하므로 중요 물품은 기내용 가방에 넣어 둔다. 특히 액체성 음식물의 경우 세관에서 검색 또는 시비 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
- 미비한 교통 시설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 병원 시설은 내전 후 신축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현지의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상류층 고위 간부나 회사 임원급,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차량 수리

- 앙골라에 차량 정비사가 부족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팁 제도

-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앙골라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주앙골라 한국 대사관 : <http://ago.mofat.go.kr>

언어

- 공용어 : 포르투갈어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 09

아프리카

Zimbabwe



짐바브웨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화폐 단위 | Z\$

대사관 홈페이지 | <http://zwe.mofat.go.kr>

짐바브웨정부 홈페이지 | www.zim.gov.zw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립, 서방 세계의 짐바브웨에 대한 지원 중단 및 각종 제재로 인해 정세가 다소 불안정하나, 반정부 시위나 폭력 등은 없다.
- 특히 2008년 6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NGO 활동을 중지시켰으나, 9월 1일을 기해 NGO 활동이 재개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생활고 가중 및 실업자 증대로 인해 야간에 주거 침입 강절도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일몰 후엔 외부 출입과 개별 이동은 삼가며, 특히 야간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옆 창문을 깨뜨리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므로 차량 내에 가방 등 물건을 방치해 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저렴한 곳에 투숙하는 경우 숙소 내부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찰을 사칭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외환 교환 사기

- 외환을 높은 환율의 현지화로 교환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현지인들이 많다.

[대책]

- 길거리나 숙소 등에서 높은 환율로 현지화를 교환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금을 노린 강도 또는 경찰(중앙은행 단속반원)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한다.



현지
치안 상황



[사례 2] 다이아몬드 등 광물 사기

- 2007년 말경에 동부 무타레(Mutare) 인근의 마랑게(Marange)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이 대량 발견되면서 현지인(심지어 경찰까지도)들이 외국인에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대책]

- 다이아몬드 밀매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도 한국계 외국인이 경찰 당국에 체포,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 다이아몬드 사기의 경우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값싼 숙소나 현지인들이 밀집한 식당이나 정류장 등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대중교통

- 각 도시를 연계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고,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유류 부족, 잦은 철로 고장 등으로 인해 운행이 비정기적이다.
- 시내에는 미니버스(15인승 정도)가 운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 택시도 24시간 운행하고 있으나 야간에 탑승하기는 위험하다.
- 택시 요금은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와 운전사와의 합의에 의한 정액제로 구분되며, 미터기 택시의 경우 탑승 전에 반드시 현지화 환율 대비, 적당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

- 영국의 영향으로 차량이 좌측 운행, 즉 오른쪽 핸들이다.
-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움푹 파인 도로가 가끔 있으므로 야간이나 우기에 운전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잦은 정전으로 인해 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가 있으니, 교차로에서는 여타 방향을 잘 살펴보고 운행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인 경우에는 별도의 우측 신호가 없고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지난 후 우회하기로 되어 있다.
- 전력난이 아주 심하게 대부분의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아예 없으므로 야간 운전은 가능한 한 삼간다.

기후

- 아열대 기후로 연평균 강우량은 700mm 정도이다.
- 우기(여름)는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이며, 건기(겨울)는 4월에서 10월까지이다.
- 10~11월경이 가장 더우며(평균 16~27°C), 6~7월이 가장 춥다(평균 7~21°C).
- 여름철의 경우 한낮에는 30°C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관광지인 빅토리아 폭포나 호수(강가) 지역은 저지대라 무덥다. 고지대인 수도 하라레의 경우에는 습기가 거의 없어 무더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자연재해

-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다.
-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특이한 관습은 없으며, 여타 아프리카인들보다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교육 수준과 자존심 또한 아주 높다.
- 짐바브웨 국민들을 비하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하며, 주재국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 또는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말도 삼가야 한다.
- 성격상 면전에서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길을 물었을 때에도 모른다는 답변 대신에 호의적으로 엉뚱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
- 주재국 대통령궁 주변에서는 사진 촬영은 물론 차를 정차해서도 안 된다. 단 대통령 차량이 이동할 경우 모든 차량은 길가에 정차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rd Floor(Red Bridge), Eastgate Building, 3rd Street/R, Mugabe Road, Harare, Zimbabwe
- 전화 : +263-4-756541
- 팩스 : +263-4-756554
- E-mail : admirok@zol.co.zw
- 홈페이지 : <http://zwe.mofat.go.kr>
- 근무 시간 외 직원 비상연락처
 - 교민담당 영사(휴대전화) : +263-912-261368
 - 대사관 행정원(휴대전화) : +263-11-206329

근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 08:00~17:00(점심시간 12:30~14:00)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짐바브웨 정부 공휴일은 휴무이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영사협력원 연락처

- 짐바브웨 내에는 영사협력원이 없으며, 당관에서 관할하는 인근국인 말라위(영어 사용)와 모잠비크(포르투갈어 사용)에는 영사협력원을 두고 있다.
 - 말라위 : 조용덕(+265-8-535798, 한인회장 겸직)
 - 모잠비크 : 주명환(+258-82-3300620)

비자 정보

- 일반적인 단수 입국 비자는 짐바브웨 공항이나 국경 이민국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복수 비자는 시내에 위치한 이민국에서 발급한다.
- 일반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30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비자 연장 수수료를 내고 매 1회 1개월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총 체재 가능 기간은 6개월).

예방접종

- 짐바브웨 내에는 특별한 풍토병이 없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특히 여름인 우기(11~3월)에 수도 하라레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이나 빅토리아 폭포, 카리바 호수, 모기가 많은 저지대 무더운 지역 등을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으니 필히 1주일 전에 예방약을 복용한다.

통관

- 마약, 총기류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출국 시 상아, 코뿔소 뿔, 귀금속 원석, 동물가죽 등의 경우 반출허가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물품 구입 시에는 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반출허가증을 요구해야 한다.
- 짐바브웨 화폐는 반출이 불허되므로 가지고 있는 짐바브웨 화폐는 출국 전에 모두 환전해야 한다.
- 외화 반출 또한 엄격히 제한하여 출국 시 \$1,000 이상은 반출을 불허하므로 출국할 때를 대비하여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외환 보유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환전

- 외환을 현지화로 환전할 경우 은행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 공항이나 은행에서 환전하지 말고 교민에게 문의한 후 환전한다.
- 물건을 구입할 경우 현금으로 지불할 때와 수표로 지불할 때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교민에게 사전에 문의한다.
- 관광객의 경우에는 호텔 등 일정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외화로 지불해야 하며, 외국인인 암시장에서 외환을 현지화로 환전하다가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 가정의에게 먼저 검진을 받은 후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전문의에게 가야 한다. 응급 상황일 때는 곧바로 응급센터로 갈 수 있다.
- 모든 병원에서 영어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약을 제외하고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 수 있다.
- 약값은 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 약품은 국내에서 구입해 간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777777
 - 출동을 요청하나 차량(유류) 부족 등을 핑계로 늦게 오거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출동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앰블런스(MARS) : 734513(하라레 지역), 011-600002(휴대폰)
 - 구급 차량을 요청할 경우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빨리 출동하지 않아 직접 가서 데려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응급의료센터(Truma Center) : 700666~7(하라레 지역)

차량 수리

- 인근 남아공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 온 중고 차량(특히 일본제 차량)이 많아 중고 차량 부품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 차량 부품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리나 오일 교환 등의 비용도 비싼 편이다.

팁 제도

-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률적인 팁 제도는 없으나, 사용 금액에 따라 성의로 직원에게 약간의 팁을 제공하면 된다.

짐바브웨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짐바브웨 온라인 뉴스 : <http://www.newzimbabwe.com>

전력 사용 현황

- 220~240V / 50Hz

언어

- 토착 언어 : 쇼나어
- 영어가 일반 공용어나 발음 및 억양이 미국식과 달라서 알아듣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2008년 초순에 유가 등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폭동이 발생하여 최대 도시인 두알라에서 시민 수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외견상 특이 사항이 없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외국인에 대한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 간혹 발생한다. 야간 주거 침입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주택에 경비견을 배치하고 있다.
- 외국인이나 외교관의 경우 대도시 내에 안전한 구역에 주로 거주하며, 치안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도난 및 강도사건

- 도난 및 강도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대책]

- 강도를 만났을 때 심하게 반발할 경우 강도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일몰 후에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이 도보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시내 중심지, 특히 이슬람권 주민 밀집 지역은 주간에도 위험하니 주의한다.

카메룬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CFAF
대사관 홈페이지 | 없음
공고정부 홈페이지 | www.spm.gov.cm

대중교통

-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이 전무한 실정이라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야 한다. 렌터카 비용은 대단히 높으며(하루 최고 미화 \$200 이상) 차량의 상태도 좋지 않다.
- 택시가 있으나 위험하며, 요금도 운전기사와 사전에 협상해야 한다.
- 대부분의 택시는 일정한 노선을 주행하며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합승을 시키므로 매우 불편하다.

도로교통

- 도로의 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가능한 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 현지인의 운전 습관이 난폭하여 방어운전이 필수적이며 접촉사고 우려가 높다.
- 교통량이 많은 시내 중심지에만 신호등 수 개소가 있으며 신호는 한국과 동일하다.

기후

- 야운데 - 해발 900여 미터로 연중 한국의 봄기를 기후이며 습도도 적당하다.
- 두알라 - 적도 기후이며 고온 다습하다.

자연재해

-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관공서에 대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현지 안내원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Box 13286 Yaounde, Cameroon
- 전화 : +237-2220-3756
- 팩스 : +237-2220-3757
- E-mail : cameroon@mofat.go.kr / korean.embassy.yaounde@gmail.com
- 홈페이지 : 준비 중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이수원 서기관 : +237-9749-1642
 - 유홍근 참사관 : +237-9499-7661
 - 한인회장 박성욱 : +237-9633-3716, supak007@chol.com

근무 시간

- 08:00~16:00

영사협력원 연락처

- 한인회장 박성욱 : +237-9633-3716, supak007@chol.com

출입국 시
유의 사항



비자

- 입국 전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주한 카메룬 명예 영사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르네상스타워 1004호 / 02-586-2011)에서 발급 가능

예방접종

- 황열병 예방접종이 필수이며, 말라리아, 파상풍, A형 간염 등 기타 접종이 권장 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레바논 등 중동 지역 출신 의사들이 다수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지 병원의 수준은 저조한 실정이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일반) : 17
- 화재 신고 : 18
- SOS : 112 / 113
- 응급환자(앰블런스) : 119

차량 수리

- 기술력이 뒤떨어지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팁 제도

- 현지 화폐 500CFAF(미화 약 \$1) 정도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잦은 정전으로 UPS 사용 권장

카메룬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주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237-2220-3756)에 문의 요망

언어

- 불어가 대부분 통용되며 영어도 다소 통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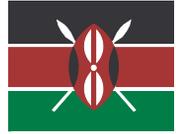
| 11

아프리카

Kenya



케냐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늦음
화폐 단위 | KSh
대사관 홈페이지 | <http://ken.mofat.go.kr>
케냐정부 홈페이지 | www.kenya.go.ke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케냐는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인도양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서쪽으로는 수단과 우간다, 남쪽으로는 탄자니아와 접하고 있다.
- 2007년 12월 27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적인 폭동이 발생하여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5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 2008년 2월 28일 대연정 합의 후 정치적인 안정을 찾고 있으나, 많은 난민이 난민 캠프에 거주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소말리아, 수단 등 인접 내전국으로부터의 총기 유입과 계속된 경제 침체로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 수도인 나이로비의 교외 지역은 우범 지역이 많으므로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나이로비 시내 중심 지역도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여행을 삼간다.
- 최근 케냐 내에서 총기 무장 강도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선 폭력 사태 이후 생필품 물가가 37% 폭등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생계형 강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차량 강도

- 심야에 강도들이 불법 로드 블록(Road block)을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
치안 상황

[대책]

- 차에 타는 순간 문을 잠그고, 유리창은 5cm 이상 내리지 않는다.
- 차내에 물건 보관 시 트렁크에 둔다.
- 야간 또는 외곽도로에서 노상에 정차하지 않도록 한다.
- 주택 출입문 앞에서는 항상 경계한다.
- 지름길보다는 대로를 택한다.
- 야간 또는 외곽도로에서 추월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은행에서 나온 후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는 피한다.
-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재빨리 현장을 이탈한다.
- 강도의 요구 및 경찰의 정차 또는 정지 명령 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도주하면 범죄자로 보고 현장 사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사례 2] 노상강도

- 과거에는 강도들이 현금, 휴대폰, 귀중품들을 강탈해 가지만 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대책]

- 강도를 당한 경우에는 강도가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강도들을 쳐다보거나 절대 머뭇거리지 않도록 한다.
- 지갑에 \$100 정도를 소지하고 다닌다.
- 대낮에도 보행자를 여러 명이 에워싸고 휴대품을 강탈하기도 하므로 시내 보행은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외진 곳을 걸거나 도로에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 일출 전 일몰 후 호텔 밖으로 도보로 외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강도로 오인 받은 경우에는 무슨 수를 쓰든 도망쳐야 한다. 군중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 3] 주택 강도

-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 주택을 겨냥한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책]

- 집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가정부, 운전기사, 경비원이 알지 못하게 한다.
- 실내 출입자(특히 운전기사)를 극히 제한한다.
- 비상벨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다.
- 직접 구입한 자물쇠를 추가로 사용한다.
- 열쇠는 절대 현지인에게 맡기지 않는다.
- 집에 들어온 후 반드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습관화한다.

- 부수기 어려운 철문 또는 철창, 창살을 설치한다.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집 안에 일정액의 현금을 보관해 둔다.
- 강도가 집 안으로 들어온 이상에는 비상벨도 누르지 말고 순순히 응한다.

[사례 4] 교통사고

- 관광지로 가는 도로는 대부분 도로 폭이 좁고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위 요철이 많은데, 이로 인해 타이어 펑크 및 차량 전복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대책]

- 여행 시에는 가급적 4륜구동 차량을 이용하거나 규모가 큰 여행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마타투(15인승 승합차)에게는 언제나 양보 운전한다.
- 간선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중앙선 쪽 차도로 운행한다.
- 도로의 장애물(동물, 웅덩이 등)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것이라 예상하고 운전한다.
- 음주 사고 시 집단 폭행을 당하기 쉬우므로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경찰(999)에 신고부터 한다.
- 출국하기 전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둔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나이로비 교외 지역
 - Kasarani G.S.U Stretch
 - Westlands Museum Roundabout
 - Westlands Kabete Road
 - Mombasa Road Between Kencell Hqrs 7 Cabanas
 - Jogoo Road Near Maziwa Stage
 - Waiyaki Way Near Kangemi Fly Over

대중교통

- 버스
 - 15인승 승합차(마타투)와 City Hopper(녹색 대형 버스)의 시내 근거리 기본요금은 20케냐실링이며 주황색 버스는 기본요금 30케냐실링이고 거리에 따라 증액된다.
 - 교통 정체, 악천후, 대중교통 인가증 단속 등으로 버스의 운행량이 급감할 경우 통행 요금을 임의로 2~5배로 인상하므로 탑승 시 승무원에게 확인해야 한다.
 - 공항버스는 환율에 따라 \$5 또는 그에 상당하는 케냐실링을 지불하고 시내행 또



는 공항행을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 시내 방문 시 외국인 여행객은 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호텔 프런트에 요청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콜택시 : JIM CAB 712-2565, 0733-735499 / JATCO 0733-701494 / WONDERVIEW 0733-678953
- 요금은 보통 흥정하여 결정하나, 통상적으로 도심지 내의 경우 300~1,000케냐실링, 공항에서 나이로비 도심지까지(약 20km, 30분 소요)는 1,000~1,500케냐실링 정도이다.

• 시외버스

- 냉방 장치가 없고 좌석이 불편한데다가 타는 곳도 나이로비 역전 광장, 도심지 골목 등에 있어 이용하기가 어렵다.
- 몸바사행 버스는 나이로비 도심지 동쪽 재래상가 부근의 터미널(River Road)에서 오전 5편, 저녁 4편이 운행되는데 편도 요금 800~1,500케냐실링, 운행 시간은 약 9시간이다.
- 킬리만자로 여행객은 나이로비 시내 Kingsway Tyre 뒤편에서 1일 2회(08:30, 14:00) 출발하는 미니버스를 타고 탄자니아 아루샤(Arusha)와 모시(Moshi)까지 (08:30편만 모시까지 연장 운행) 이용할 수 있는데(아루샤까지 5시간 소요), 왕복 요금은 케냐 거주인은 2,000케냐실링, 비거주인은 \$60이다(모시까지는 3,000케냐실링 또는 \$70).

• 기차

- 나이로비-몸바사와 나이로비-키수무만 이용 가능하며, 나이로비에서 저녁 7시에 출발하여 몸바사에는 오전 8시, 키수무에는 아침에 도착하고 몸바사, 키수무에서도 저녁 7시에 출발하여 나이로비에는 아침 9시에 도착한다.
- 나이로비-몸바사 간 열차는 침대칸을 운영하여 외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나(사전 예약 필요) 나이로비-키수무 간 열차는 침대칸이 없이 좌석 칸을 현지인과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 나이로비-몸바사 간 열차의 왕복 요금은 1등침대 6,750케냐실링, 2등침대 4,980케냐실링, 좌석칸(비지정제) 800케냐실링 정도이다.

• 항공편

- 나이로비-몸바사 간 중대형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으며 기타 도시 및 사파리 관광지(Masai Mara, Amboseli)에는 경비행기로 운송한다.
- 나이로비에서의 몸바사, 키수무, 엘도렛, 말린디/라무행 항공편은 나이로비국제공항(JKIC)을 이용하며, 몸바사행의 경우 1일 10편 정도 운항되고, 왕복 요금은 시즌에 따라 15,000~20,000케냐실링 정도이다.
- 나이로비에서 기타 도시 및 관광지로의 항공편은 경비행기 전용의 윌슨 공항(Wilson Airport)을 주로 이용하며 계절에 따라 1일 1~2편 운항한다.

도로교통

- 우기가 지나면 도로면에 웅덩이가 많이 생겨 타이어 파손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차량은 우측 핸들이며, 좌측통행이다.
- 차량 고장 시 도로상에 세워둔 채 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운전 시 특히 주의한다. 나뭇가지를 꺾어 노면에 둔 것은 고장 차량 표시이므로 나뭇가지가 도로에 있을 경우 절대 감속해야 한다.
- Round-about 시스템에 의한 교차로가 많으며, 규정상 우측 진입 차량이 우선이나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차량이 많고,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간선도로 구조가 U턴 직후 좌회전, 도로 횡단 후 우회전하도록 설계된 곳이 많아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해야 하는 곳이 많다.
- 나이로비 시내에서 노상 주차할 경우 주차관리원에게 1일 70케냐실링을 내고 주차 확인증을 받아 차량 앞쪽에 보이도록 비치해야 하며, 사설 주차장의 경우 통상 1일 200케냐실링이다. 주차확인증이 없을 경우 클램프(Clamp)를 설치하며, 일과 시간 내에 운전자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기후

- 적도를 통과하고 있으나, 동부 해안 지방과 북부 사막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고원 평원지대로 한국의 초가을 날씨처럼 낮에만 덥고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다.
- 계절 차가 거의 없으며, 1년에 두 번의 우기(대우기 : 3~5월, 소우기 : 10~12월)가 있으나 건기와 우기의 차가 뚜렷하지 않다. 연간 기온 차는 4°C 안팎이며 일교차 15°C 안팎이다.
- 나이로비가 소재한 중부 고원 지역은 최대 높이 3,000m의 리프트밸리(Rift Valley)가 관통하고 평균 고도 1,600m로 저습 냉량한 온대성 사바나 기후이다. 기온은 최저 10~14°C, 최고 22~26°C이다.
- 빅토리아 호수에 인접한 서부 지역은 평균 고도 1,100m로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다. 기온은 최저 14~18°C, 최고 30~34°C이다.
- 북부 및 서북부 지역은 매우 뜨겁고 건조한 반사막 및 사막성의 사바나 초원 기후이며, 동부 해안 후배지 평원 지역(평균 고도 128m)은 고온 다습한 열대 해양성 기후이다. 기온은 최저 20~21.5°C, 최고 33~34.5°C이다.

자연재해

-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는 없으나 건기에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우기의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





- 관공서의 일 처리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모든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둔다.
- 일 처리가 매우 느리다고 큰 목소리로 항의하면 오히려 케냐인들을 분노케 하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므로 주의한다.
- 쉽게 'Hello, my friend' 하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하므로 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 단순한 인사 정도로만 받아들인다.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절하게 거절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P.O.Box 30455-00100 GPO, Nairobi, Kenya
- 전화 : +254-20-222-0000
- 팩스 : +254-20-221-7772
- E-mail : emb-ke@mofat.go.kr
- 홈페이지 : <http://ken.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엄명용 영사 : +254-736-831831
 - 이현우 서기관 : +254-735-831506

근무 시간

- 월~목 : 08:30~16:00(점심시간 12:30~13:30)
 - 금 : 08:30~14:00
 - 토,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케냐 공휴일 휴무
- ※ 케냐 공휴일
- 1월 1일 : New Year's Day
 - 4월 10일 : Good Friday
 - 4월 13일 : Easter Monday
 - 5월 1일 : Labour Day
 - 6월 1일 : Madaraka Day
 - 9월 21일 : Eid al-Fitr (End of Ramadan)
 - 10월 10일 : Moi Day
 - 10월 20일 : Kenyatta Day
 - 11월 28일 : Feast of the Sacrifice
 - 12월 12일 : Independence Day
 - 12월 25일 : Christmas Day
 - 12월 26일 : Boxing Day

- ▶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이 휴일이 되며, End of Ramadan(Eid al-Fitr)은 달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공휴일법, Public Holidays Act).

비자

- 케냐 입국 비자는 주케냐 한국 대사관에서 받을 경우 3개월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복수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한국에서 출국 전에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 주한국 케냐 대사관(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43-36 / 02-3785-2903~4)
- 케냐 입국 후 비자 유효 기간 연장은 1회(3개월) 가능하며 최초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동아프리카 3국 협정에 의해 제외되므로 그 외의 국가로 출국했다가 입국해야 한다.

단수 여권, 여행증명서

- 단수 여권은 인정되나 여행증명서로는 케냐 체류를 위한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국은 가능하다. 가령, 서울→남아공→케냐→서울의 관광 일정으로 여행 중 남아공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환승은 가능하나 케냐에서의 사파리 여행을 위한 입국은 불가능하다.

예방접종

- 국적과 관계없이 황열병 우려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게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Yellow card)를 요구하며,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통관

- 입국 시 휴대 허용 품목
 - 술 종류 : 와인 한 병 또는 알코올 농도 21% 이상인 주류 750ml 이하
 - 담배 :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이하
 - 향수 : 35ml 또는 1pint 이하
 - 현금 : \$5,000 이상 휴대한 경우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 의약품 : 의사 처방전을 휴대한 경우 복용 약품 반입 허용
 - 음식 : 휴대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허용
 - 마약이나 무기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 총기류의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반입이 허용된다.
- 입국 반입 금지 품목 : 과일류, 모조 총기류, 장난감 권총, 육류 및 육류 가공품과



가금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폐기처분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나이로비의 경우 동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일정 수준 시설을 갖춘 병원(나이로비 병원 및 Aga Khan 병원 등)이 있으며, 키자베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병원(외국인 의사가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진료함)이 있다.
- 약국은 시내 빌딩과 상가 주위에 산재해 있고, 항생제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나 감기, 두통 등 가벼운 증세는 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시내 약국은 오후 6시경에 문을 닫는다. 야간에는 나이로비 병원과 Aga Khan 병원 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 나이로비 외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처치만 하고, 차량이 없는 경우 나이로비로 환자를 운송하는 앰블런스를 요청하면 된다.

※ 질병 예방법

- 풍토병으로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와 리프트 밸리열(Rift Valley Fever), 음식물에 의한 살모넬라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의한다.
- 몸바사, 키수무 등 저지대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약을 충분히 준비해 간다.
- 말라리아 예방약은 식후에 복용하고 복용 직후 말라리아 증세와 같이 두통, 오한, 무기력증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살모넬라는 상한 음식물 섭취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육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익힌 것이라도 오래된 것은 먹지 말고, 채소도 깨끗이 씻어서 먹는다. 너무 익은 과일 섭취도 삼간다.
- 오염된 모기에게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혈액, 체액에 접촉하여 전염되는 리프트 밸리열은 감염된 가축의 고기 또는 우유의 섭취를 통해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고기나 가공 처리되지 않은 생우유는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돗물은 끓여서 마시거나 생수를 사먹는 것이 안전하다.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범죄, 화재, 앰블런스 및 긴급 구조 요청 : 999(휴대폰은 020-999)

차량 수리

-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운행 중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 시 차량 견인 서비스 보험(Auto Assured)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경찰관이 현장 확인 후 차량을 이동해도 좋다는 말이 있을 때까지 임의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 가입 보험사에 즉시 연락을 취해 사고 확인을 받고(Motor Accident Report Form 작성), 정비소에 차량 입고 후 경찰서에서 사고확인서(Police Abstract)를 받아 정비소에 제출하면, 보험사 직원이 정비소에서 고장 부분을 확인한 후 수리 개시를 승인해 준다.

팁 제도

- 모든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업원 또는 도우미 1인당 50케냐실링 (또는 \$1)의 팁을 주면 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40V / 50Hz
- 한국의 일부 가전제품(220V, 60Hz)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정전이 자주 되고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전자제품은 정전 시 전기를 차단했다가 전기 공급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전기가 연결되는 어댑터를 사용하고, 컴퓨터는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축전지를 사용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UPS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케냐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케냐 정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enya.go.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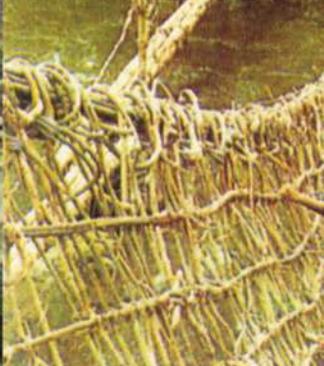
언어

- 공용어 : 영어, 스와힐리어

| 12

아프리카

Ivory Coast



source - 코트디부아르대사관

코트디부아르



시차 | 한국보다 9시간 늦음
화폐 단위 | CFA
대사관 홈페이지 | <http://civ.mofat.go.kr>
코트디부아르정부 홈페이지 | www.refer.ci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1999년 쿠데타 이후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2002년 내전으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불안 상태가 계속되어 왔으나, 2007년 3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 현재 평화 정착을 위해 유엔 평화 유지군 9,000여 명, 프랑스군 2,500여 명이 주둔 중이므로 정부군(남)과 반군(북)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 앞으로 정세가 확실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속히 원만하게 실시되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정부가 각 지역과 부족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나, 현재 선거는 계속 지연 상태에 있다.
- 정세 불안 기간 동안 외국인에 가장 위협적 요소가 되었던 것은 급진 우익파(애국 청년단)가 주도한 프랑스 배척 운동이었다.
 - 2004년에 프랑스와 관계가 악화되자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고, 이들은 외국인, 특히 프랑스인들을 공격했다.
 - 이때 프랑스인 및 상당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철수했으며, 현재 정세가 안정되자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
 - 이 당시 동양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는 했으나 피해를 입은 사례는 비교적 적었다.
- 현재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물가 폭등과 민생 파탄을 이유로 하는 시위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자주 폭력 사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위 현장 및 군중이 밀집한 곳에는 접근을 삼가야 한다.



현지
치안
상황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내전 이후 총기 3백만여 점이 민간인에게 유포되어 무장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내전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경찰의 치안력이 거의 부재하며 실업률은 아비장 등 대도시의 경우 최대 70%에 육박해 있어 치안 불안 요소가 상당하다.
- 총기를 소지한 자들에 의한 생계형 범죄는 현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인이 대상이 되고 있다.
- 야간에 고급 주택 및 사무실에 무장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사설 경비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있으나, 무장 강도를 퇴치할 정도의 성실성과 방어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 현지 시장(market) 등 군중이 밀집한 곳에서는 납치기, 소매치기가 많으며 외국인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폭행, 갈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귀중품, 고가 카메라 등은 눈에 띄지 않게 휴대하고 현지인 안내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 이곳의 무장 강도와 납치 강도들은 순전히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휴대하고 있는 물건과 지갑을 건네주면 더 이상의 위해는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현금을 휴대하지는 말되, 안전을 위해 30,000세파프랑(약 \$70) 정도는 소지하는 게 좋다.
- 종전에는 시내 주요 도로에 보안군 및 경찰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여 차량 검문을 하면서 운전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 발표로 대부분 사라졌다. 이들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서류 등을 요구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등 모든 시비를 걸쳐 시간을 끌다가 운전자가 소정의 금액(1,000세파프랑)을 지불하면 놓아주곤 한다. 정세 및 치안 상황에 따라 앞으로 다시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외국인 운전 차량을 노린 강도

-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책]

- 야간이나 한적한 곳에서는 차를 세우지 말고 계속 주행하는 것이 좋다.
- 타이어 불량일 경우에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했다면 가급적 마을이나 검문소가 있는 부근까지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례 2] 금융사기 사건

- 나이지리아, 가나 등 영어권에서 성행했던 금융사기 사건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대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위조한 예치증명서, 정부기관

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송금을 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 일단 이러한 제의에 관심을 보이면 송금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추가로 계속 요구하며, 누적되는 경우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까지 이른다.

【대책】

- 이러한 사기범들의 제의는 이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여행자들도 사기 범칙의 대상이 된다.
- 특히 여행자들에게는 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등의 제의를 하여 선금 및 수수료를 요구하여 가로채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식적으로 볼 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거래는 일단 의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 신용카드는 유명 호텔 이외에는 거의 통용되지 않으며 쉽게 부당한 사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호텔에서 전자 승인 처리하는 것 이외에 복사용 먹지를 대고 손으로 기입하는 전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민속품, 토속 기념품 상점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부풀린 가격을 제시하므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수도 아비장 시내에서도 트레시빌(Treichville), 아자메(Adjame), 아보보(Abobo) 지역은 특히 조심해야 하며 낮에도 혼자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야간 도보 통행은 지역을 막론하고 위험하다.
- 도시 이외의 지역은 치안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안내자를 대동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다. (※미국 대사관 직원은 수도에서 35km 이상 여행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북부 지방의 중심지인 부아케(Bouake)에서는 반군의 소요 및 주민들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 주요 간선도로를 여행하는 경우 정부군, 반군, 민병대 등 각 지방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세력들의 검문소가 있어 과거에는 이들이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철거되었다. 단 북부 지방에는 아직 검문소가 남아 있거나 철거되었다가 재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 코트디부아르는 내전 이후 관광 시설을 유지, 보수하지 않아 관광객이 거의 황폐화되었으나, 해변에는 휴양 시설(호텔 및 식당)이 약간 있다. 그러나 해안이 파도가 세고 얇은 수심에서 바로 절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숙련된 수영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해변 수영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익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중교통

- 버스
 - 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200~500세파프랑 정도인데, 운행 간격이 긴데다가 운



행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 15~20인승 소형 버스도 대부분 심하게 노후한데다가 차량 지붕에까지 과다 인원이 승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택시

- 주황색 택시는 일반적인 택시로서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고 요금도 높지 않다. 기본요금은 125세파프랑이며, 시간 거리 병산제로 30세파프랑/100m, 10세파프랑/분이다.
- 시내 곳곳에 교통 체증이 심하므로 미리 가격을 흥정하고 탑승하는 것이 유리하다.
- '워러워러' 라고 불리는 노란색 또는 파란색 택시는 300세파프랑 이내의 저가 교통수단이다. 허가된 지역 내에서 간선도로만 따라서 합승을 하면서 운행한다.
- 시내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된 중고차가 운행 중이며, 출퇴근 시간 및 점심 시간에 도로 정체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승객용 철도는 없으며, 수도 아비장과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 항공 노선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한국과의 연결편은 두바이 경유 아랍에미리트 항공(주 5회 운항)과 파리 경유 에어프랑스(매일 운항)가 있다. 아프리카 지역 간 연결 항공편은 국제항공 운송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된 비행기를 사용하여 사고의 위험이 많다.

도로교통

-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도로 사정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80% 이상이 15년 이상 된 도로이며, 정세 불안 이후 운전 여건이 좋지 못하므로 렌터카 등을 이용한 자가 운전은 가급적 삼간다.
-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가 택시(워러워러)는 역주행, 차선 간 주행, 무단 U턴, 급정거 등 상식 밖의 운전을 하여 매우 위험하다.
- 노후된 차량이 많아 도로 주행 중 정지, 고장이 많으며 야간에 전조등, 미등 없이 운행하는 차도 있다.
- 보행자 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차도 갓길로 다니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으며,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일부러 부딪쳐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운전 중 차량끼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차를 움직이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만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주행 중 사람을 친 경우, 특히 외곽 지역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는 주변 현지인들의 집단 공격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 밖으로 나오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과 동행하여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

기후

- 열대우림 기후로서 거의 연중 고온 다습하다. 연평균 기온 27°C, 연강우량은 1,200~1,500mm이다.

자연재해

- 열대성 소나기가 심하게 내릴 때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때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외출을 삼간다.
- 배수 시설 부재로 주요 도로가 일시 범람하는 경우가 많다.
- 12~2월 사이 건기에는 하르마탄(Harmattan)이라고 하는 먼지바람(황사)이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불어온다. 먼지바람은 특히 뇌수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 시기에 여행하는 경우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 관공서, 레스토랑, 상점 등에서 일 처리가 매우 느린 편이다.
- 돈이나 물건 등을 건넌 때 왼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이슬람교 영향),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좋아하나 일부 부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허락을 요청하는 등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외국인 여행자가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경찰에 인신 구속되는 경우 구타, 고문 등 신체적 위협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Rue Monseigneur Kouassi, lot 100, Cocody Ambassade 01 BP 3950 Abidjan, Côte d'ivoire
- 전화 : +225-2248-6701
- 팩스 : +225-2248-6757
- E-mail : ambcoabj@mofat.go.kr
- 홈페이지 : <http://civ.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윤희섭 영사 : +225-0500-0370
 - 박선호 총무 : +225-0530-0568

근무 시간

- 월, 화, 목, 금 : 09:00~17:00(점심시간 12:00~14:00)
- 수요일 : 09:00~12:00
- 토,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코트디부아르 공휴일 휴무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코트디부아르 공휴일

- 1월 1일 : 새해 첫날
- 5월 1일 : 노동절
- 8월 15일 : 성모 승천일
- 11월 1일 : TOUSSAINT
- 11월 15일 : 평화의 날
- 12월 7일 : 독립기념일
- 12월 25일 : 성탄절

▶ 부활절, ASCENSION, PENTECOTE, RAMANDAN, TABASKI는 매년 날짜가 변경됨.

사증 및 노동 허가

• 입국 시 반드시 입국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 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청암빌딩 2층 / 02-3785-0561

예방접종

- 입국 전 황열병 예방주사는 필히 접종하고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 간혹 비자를 취득하고 나서 입국할 때 황열병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항에서 5,000세파프랑(약 \$13)을 내고 접종을 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 열대 지역 말라리아는 특정 치료약(클로로퀸)에 대한 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사와 상담한 후 이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약으로 발병 억제 및 치료를 해야 한다.
- 기타 장티푸스, 뇌수막염 등의 질병이 만연하므로 음식물을 익혀 먹고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식당에서 음료수에 섞여 나오는 얼음은 비위생적인 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레스토랑이 아닌 경우 주문 전에 빼달라고 요구한다.

통관 및 공항 출입

- 출입국 시 모두 입국 신고서, 출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영어로 작성이 가능하다.
- 세관 신고서는 없으나 모든 수하물을 회수한 후 X-ray 검사대를 통과시켜 세관 검사를 하게 된다. 문제가 될 물품은 미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 서류 검사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공항 밖으로 나갈 때까지 여러 기관(공항 경찰, 세관, 헌병대 등)의 직원이 수차례 여권 및 화물표(baggage tag)를 검사한다. 이때 정규 재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검사를 요구하거나 검사인이 수고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고 정당한 공항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면세 반입이 가능한 품목
 - 주류 1병(종류에 관계없이 1리터 이하)
 - 껌 200개비, 시가 25개비, 입담배 150g 중 택일
 - 퍼품 1병 또는 오드투왈렛 1병
 - 6개월 이상 사용한 개인 생활용품
 - 망원경, 휴대용 타자기, 카세트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일반 카메라(2대, 필름 5통)
- 반입 불허 또는 검사, 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
 - 마약, 화약, 상아, 가죽, 식물, 과일, 꽃, 의약품, 무기류, 탄약 및 군수품, 금지 서적, 예술품, 수집품, 금, 보석
- 외환 신고
 - 입국 시에 휴대하는 현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모두 사용하지 않고 출국 시 다시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입국 시에 미리 신고해 두어야 한다.
 - 예로 출국 시 250,000세파프랑(약 \$600)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갈 경우, 입국 시 본인이 가지고 들어왔음을 신고한 증명서, 은행에서 본인 이름으로 환전한 증명서, 은행에서 본인 이름으로 인출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 위반 시 해당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약식 벌금부터 인신 구속예까지 이르는 처벌 규정이 있다.
- 예술 공예품 및 토산품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길거리 상점에서 값싸게 구입한 것 포함) 출국 시 공항에서 제지된다. 출국 전 미리 문화부 산하 박물관(플라토 지역 소재)에서 '예술품 반출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신청서 1건당 1,000세파프랑, 예술품 1점당 300세파프랑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허가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공항에서 반출이 불허되거나 압수당하게 된다.

- 아비장 시내의 의료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으로 응급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과 소규모 병원들이 다수 있다.
- 병원을 이용하려면 병원에 예약(전화 예약 가능)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응급 환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응급실을 통해 예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영어의 통용은 매우 어렵지만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소통이 가능하다.
- 아비장 시내 종합 병원
 - Polyclinique International Sainte Anne-Marie(PISAM) : 2248-3131
 - Polyclinique Avicennes : 2121-1300~2
 - Polyclinique Internationale Hotel Dieu : 2125-7919~20
 - Polyclinique Internationale de l' dénié : 2021-5353





- Polyclinique des II Plateaux : 2241-4621, 2241-3320

- 약국에는 유럽에서 수입된 약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으며,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 수도 이외의 지역은 의료 시설 및 약국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여행 시 비상약품을 반드시 휴대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11, 170
 - 소방서 : 180, 0781, 1818
 - 긴급 의료 지원 : PISAM 병원 2248-3131 / PISAM 응급실 2248-3112 / SAMU(앰블런스 등 응급 의료 서비스) : 185, 2244-3445
 - 분실물 신고 센터 : 130
- ※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신속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연락 후 마냥 기다리지 말고 다른 수단을 병행하여 강구해야 함.

차량 수리

- 시내에는 차량 정비소가 있으나 부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

팁 제도

- 식당 : 1,000세파프랑 정도 지급
- 호텔, 공항 : 500세파프랑 정도 지급
- 기타 잔심부름 : 100~200세파프랑 정도 지급

한국과의 시차

- 그리니치 표준 시간을 사용하며, 한국 시간보다 9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전압이 한국과 같으므로 한국의 전기, 전자제품의 사용이 가능하나 플러그 모양이 다르므로 어댑터 없이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여행 가이드 사이트
 - <http://www.lonelyplanet.com>
 - <http://www.africaguide.com>

- <http://wikitravel.org>

언어

- 공용어 : 불어
- 각 지방마다 30여 개의 토착어를 사용한다. 영어의 통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기타

- 코트디부아르의 통화는 서부 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이 발행하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 공용 통화인 세파프랑(CFA)이고, 환율은 1유로=656CFA로 고정되어 있다. 환전은 은행이나 호텔에서 가능하며, 호텔 환전 시 환율이 좋지 않다.
- 시내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한 전화는 도시 전역에 있는 노점 핸드폰 대여소 또는 호텔이나 우체국을 이용해야 한다. 전화 요금은 시내 통화 1분당 100~150세파프랑 정도이다.
- 우편물은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하며, 우편배달 제도가 없으므로 우체국에 직접 가서 우편물을 수령해야 한다. DHL, EMS 등을 통한 우송도 가능하나, 현재 한국에서 코트디부아르로 EMS 발송은 중지 상태이다.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2006년 수도인 킨샤사에서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으며, 2007년 3월 말에는 5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2008년 9월 이후 동부(부카부) 지역에서 르완다 반군, 콩고 정규군, 르완다 정규군 사이에 우려할 만한 분쟁이 있는 상태이며 국제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 2006년 이후 국경 문제로 앙골라와 마찰이 있는 상태이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주요 도시 중심부 내의 은행, 환전소, 고급 레스토랑 주변에서 강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경관 사칭 강도

- 노상에서 경관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소지품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책]

- 경관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여권 사본만을 제시한다.

[사례 2] 재래 시장에서의 주의사항

- 재래시장은 소매치기가 많으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주변을 소란스럽게 한 후 같은 패거리가 등에 멘 가방을 열어 현금 등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

콩고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FC
대사관 홈페이지 | 2009. 02 개설예정
콩고정부 홈페이지 | www.minfinrdc.cd



- 택시는 합승이 원칙이며 다수의 현지인이 합승한 택시를 탈 경우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

- 주변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한다.
- 가급적이면 택시 합승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여자 승객이 탑승한 택시를 이용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킨샤사 : 낮에는 재래시장, 현지인 집단 거주 지역, 축구 경기 등이 열리는 공공장소에서 조심하고 밤에는 전 지역에서 주의해야 한다.
- 루분바시를 포함한 동부 지역 : 광산 지역, 재래시장, 관광지

대중교통

- 버스 :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며 시설이 불결하다.
- 택시 : 개인택시가 있으나 특별한 표식은 없다. 요금은 사전에 흥정하고 탑승해야 한다.
- 기차 : 국철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

- 도시간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킨샤사-마타디, 킨샤사-말루꾸 등)를 제외하고는 비포장 상태이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시내에서 택시, 승용차의 앞자리에 탑승 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정부 고위인사 탑승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신속하게 도로 옆에 정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킨샤사 : 연평균 25~30°C의 열대성 기후이며, 우기(10~4월)에는 고온 다습하고 건기(5월 말~10월 초)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도가 떨어진다.
- 동부 : 고산 지대로 비교적 날씨가 서늘하나 자외선이 강하다.

자연재해

- 킨샤사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없지만, 우기에 지방의 경우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 빈민가에서 송전선의 전선을 절단한 후 전기를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기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전통적인 지방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 촌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다. 음료를 대접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경찰, 군인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저지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 시 경찰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 아침 7시 30분과 저녁 6시에 진행되는 국기 게양 및 하강식 중에는 관공서 주변 모든 차량이 정지하고 주위 사람들도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65 Boulevard Colonel Tshatshi, Gombe, Kinshasa
- 전화 : +243-81-982-0302
- 팩스 : +243-122-0564
- E-mail : amb-rdc@mofat.go.kr
- 홈페이지 : 2009년 2월 개설 예정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최현구 서기관 : +243-81-950-0295
 - 소호용 행정원 : +243-99-017-7568

근무 시간

- 월~금 : 08:00~16:00(점심시간 12:00~14:00)

- 반드시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9 세종대우빌딩 702호 / 02-722-7958)에서 입국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수수료 10만원, 기간 1주일.
- 황열병 예방접종(유효기간 : 10년, 접종 후 3일 이후 입국)은 필수이다.
- 통관 시 이민국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조사차 사무실로 불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영어로 비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도 보내주지 않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의료 수준이 열악하여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특히 국립 병원은 수도와 시내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문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 응급병원(CPU) : Av du Commerce/Bas Congo / +243-99-982-6505, 80-5687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킨샤사 경찰청 : +243-112 / 119, +243-880-2466
- 긴급 출동반 : +243-99-832-2359

차량 수리

- Afroma : +243-81-884-4782, +243-99-801-0210

팁 제도

- 카페 및 식당 : 통상 몇 백 프랑 정도의 잔돈을 남겨 놓는다.
- 포터 : 짐 1개당 1,000FC / 룸메이드 : 500FC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230V / 50Hz(한국은 60Hz)

콩고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http://www.congo-siteportail.info>
- <http://www.cdc.gov>

언어

- 불어, 닝갈라어



출입국 시
유의 사항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 14

아프리카

Tanzania



탄자니아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늦음
화폐 단위 | Tsh
대사관 홈페이지 | <http://tza.mofat.go.kr>
탄자니아정부 홈페이지 | www.tanzania.go.tz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아프리카 내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종교나 종족 간의 마찰로 인한 내란이나 테러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고위 각료 등의 각종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다.
- 특히 야당들이 부정부패 관련 고위 인사들의 명단 및 부패 혐의를 공개했으며 정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해 서방 원조 국가들도 조사 촉구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주재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빈곤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시 중심부 내에서는 은행, 환전소, 고급 레스토랑 등 주변에서 강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며, 우리 교민에 대한 피해는 주로 경찰 및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주거 침입 강도 및 자동차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및 부룬디 국경 접경 지역인 키고마(Kigoma), 루크와(Rukwa) 지역은 인접국의 정세 여하에 따라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그 밖에 세렝게티 국립공원, 응로롱고로 분화구 등 관광지의 주요 관문인 아루샤(Arusha)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악물 강도나 경찰관을 사칭한 공갈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대낮에도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주재국은 아프리카국 중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다르에스살람 내의 주요 도시나, 국경 접경 지역, 그리고 주요 관광 지역 등을 여행할 때는 신변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현지
치안 상황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환전 사기

- 일반적으로 외국인 또는 여행자가 현지 실정을 잘 모르고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노리고 환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암거래를 요구하는 이가 많다.
- 일반적인 수법으로는 암거래상이 구석진 곳으로 안내하며 돈을 세어 보여 주고 안심시킨 다음, 나중에는 백지를 섞어 미리 넣은 돈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책]

- 절대 환전소가 아닌 곳에서 환전하지 말고 암거래상이 이상한 곳으로 안내하려고 할 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례 2] 버스나 차량 탑승 시

- 탄자니아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이에 교통 체증 또한 심각하여 여행자들이 현지 버스를 탑승할 경우 여러모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책]

-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는 소매치기 범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중요한 소지품을 소지하고 버스에 탑승하지 않도록 한다.
- 버스 탑승을 위해 한꺼번에 차도로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자칫 신체적인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지 않는다.
- 차량 이동 시에는 되도록 창문 쪽보다는 안쪽으로 앉아 휴대폰 등 소지품 분실 방지에 유의한다.

[사례 3] 여성 여행객에게 집적거림

- 탄자니아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특히 여성 관광객에게 현지 남성들이 외설적인 농담과 신체적인 접촉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책]

-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꾸 없이 지나가거나, 만일 불편한 행동을 당할 때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가능한 한 눈에 띄는 의상이나 화려한 색상의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 POSTA 앞 버스 정류장 : 소매치기가 많다.
 - 잔지바로 가는 선착장
 - 카리아코(Kariako) : 상권 지역으로 강절도 사건이 빈번하다.

- 키논도니(Kinondoni) : 약물 복용자 다수, 강도 사건이 매우 빈번하다.
- 아루샤(Arusha)
 -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가는 주요 관문 중의 하나이며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아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케냐 인접 지역으로는 최근 케냐 사태와 관련하여 치안이 악화되어 왔다.
- 잔지바르(Zanzibar)
 - 이슬람교도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옷차림에는 크게 제한은 없으나 소매치기나 강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 키고마(Kigoma)와 루크와(Rukwa) 지역
 - 인접국(콩고민주공화국 및 부룬디)의 정세 여하에 따라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교통

- 버스
 - 현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달라달라' 라는 시내버스가 있다. 소형(봉고형)은 요금이 250실링, 대형(버스형)은 단거리 300실링, 장거리 500실링이다. 때에 따라 한가한 낮 시간이나 봄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기본요금에서 50~100실링 할인, 할증을 임의로 조정하기도 한다.
 - 모든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콘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동행해 버스 안에서 요금을 받고 티켓을 주고 있다.
- 택시
 - 기본요금이 따로 없고 모든 택시 가격은 운전사와 탑승자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므로 탑승 전에 가격 흥정을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부르는 값의 1/2 가격이나 2/3 가격선에서 흥정이 된다. 그러나 아주 근거리일 경우에도 1,000실링이 최소 가격이다.
- BAZAZI(피키피키)
 - 2명 정도가 탑승 가능한 소형 택시로 최근 1~2년 사이 수도 다르에스살람을 중심으로 급격히 보급된 교통수단이다.
 -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절반 가격이며 단거리 이동에는 유용하나 문이 없는 이유로 최근 야간에는 이동 중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간이나 장거리 이용 시는 적절치 않다.

도로교통

- 도로 상태는 근 1~2년 사이 많이 좋아졌으나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비포장인 곳이 많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주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건물이나 식당을 제외하고는 공공 주차장에서는 시간당 500실링 정도를 주차비로 받고 있다.
- 차량 핸들(오른쪽)과 차선 방향은 한국과 반대이다.
-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어 위험하며, 야간 운전 시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반대 차량의 경우 상황등을 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 운전 시 어려움이 많다.
- 수도인 다르에스살람은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선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해안 지역은 열대성 기후(20°C 이상), 고원지대는 아열대 기후(10~20°C)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더운 시기는 11~5월이며, 가장 시원한 시기는 우기가 막 끝난 6~8월이다.
-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매우 무덥다고 생각하나 다르에스살람과 잔지바르의 경우 한국의 열대야에 비해서는 오히려 덜 습해 불쾌지수는 낮은 편이다.
- 세렝게티 국립공원 근처는 오히려 한국의 10월 같은 쌀쌀한 날씨로 이곳을 방문할 때는 긴 외투를 준비하는 게 좋다.

자연재해

- 탄자니아 본토는 동쪽으로 인도양을 인접하고 건기(6~10월, 1~2월)와 우기(11~12월, 3~5월)가 뚜렷한 열대성 기후로 우기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홍수 피해를 입고 건기에는 가뭄이 심해 식수난과 정전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대우기에는 강수량이 많으므로 비포장 길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홍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이슬람교도를 비롯해 인도계, 아랍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성의 경우 상의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짧은 하의는 되도록 피한다.
- 근래에는 현지 젊은 여성들도 유럽 관광객들의 영향을 받아 의식이 많이 바뀌는 추세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눈에 띄는 복장은 현지 남성들에게 불미스런 일을 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자제한다.
- 박물관을 방문할 때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그 외 세렝게티 공원 같은 곳은 촬영이 가능하다. 여행 시 현지인을 동반하여 사진 촬영을 원할 경우, 상대방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현지인 중에는 외국인과 사진 촬영을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특히 무슬림인 경우, 사진 촬영이 본인의 영혼을 빼앗긴다고 믿어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Plot No. 97, Msese Road, Kingsway, Kinondoni P.O.Box 1154, Dar es Salaam, Tanzania
- 전화 : +255-22-266-8788 / 7539
- 팩스 : +255-22-266-7509
- E-mail : embassy-tz@mofat.go.kr
- 홈페이지 : <http://tza.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이동규 부영사 : +255-754-360931
 - 권혁운 참사관 : +255-754-309630

근무 시간

- 월~금 : 09:00~17:00(점심시간 12:00~13:30)
 - 토,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탄자니아 공휴일 휴무
- ※ 탄자니아 공휴일
- 1월 1일 : New Year's Day
 - 1월 12일 : Zanzibar Revolution Anniversary
 - 3월 19일 : Maulid Day
 - 3월 21일 : Good Friday
 - 3월 24일 : Easter Monday
 - 4월 7일 : The Shekh Abeid Amani Karume Day
 - 4월 26일 : Union Day(1964년)
 - 5월 1일 : Workers Day
 - 7월 7일 : Saba Saba Day
 - 8월 8일 : Nane Nane Day
 - 10월 2일 : Idd-EL Fitr
 - 10월 14일 : Mwalimu Nyerere Day
 - 12월 9일 : Independence Day(1961년)
 - 12월 25일 : Christmas Day
 - 12월 26일 : Boxing Day

비자 정보

- 관광 비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공항 출입국 관리소(수수료 : \$50, 입국 시 바로 발급)
 - 한국 내 탄자니아 명예 영사관(수수료 : 6만 원, 소요 기간 : 1일)
- 거주 목적(사업, 취업, 선교 등)인 경우에는 사전에 체재 인정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긴급 영사
연락망



출입국 시
유의 사항

탄자니아 입국 전에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소요 기간 2~3개월 이상).

※ 주한 탄자니아 명예 영사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67 유성빌딩 / 02-508-7411

출국 전 예방접종

- 탄자니아만 여행할 경우 특별히 필요한 예방접종이 없으나 아프리카 주변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으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공항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탄자니아 여행 시는 말라리아약을 준비해 가는 게 좋고 예방약보다는 치료약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말라리아약이 강하고 완전한 예방약이 될 수 없으므로 미리 약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간에 해가 될 수 있다. 말라리아 검사와 약 구입은 현지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가능하며, 심한 몸살감기(독감)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고열과 주로 팔다리 마디가 쭉시는 증세를 보일 경우 빨리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다.

통관

- 통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입출국 시 본인의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출입국 카드를 해당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탄자니아의 의료 체계 실태는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 많은 현지인들도 비용이나 부족한 의료진 등으로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 병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 그나마 의료비가 싼 국립이나 구립병원 또한 수도와 시내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많은 환자로 붐벼서 실제적으로 지방의 현지인은 우리나라 보건지소와 같은 규모에 가장 기본적인 소량의 약과 문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 영어 사용이 가능한 병원
 - Aga Khan Hospital : +255-22-211-4096
 - Muhimbili Medical Center(국립병원) : +255-22-215-1298
-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하지만 간단한 비상약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 탄자니아에서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또한 현지인처럼 병원의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진 부족 현상으로 대기 시간이 평균 2~3시간으로 오래 걸린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일반) : 995
 - Airport Police Station : +255-22-284-4010
 - Oysterbay Police Station : +255-22-266-7322
 - Port Police Station : +255-22-211-6287
- 화재 신고 : 112, +255-22-218-4543/4546
- 응급환자(앰블런스) : 112

차량 수리

- KOREAN GARAGE : +255-797-860096

팁 제도

- 특별히 팁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0~2,000실링 정도를 주는 경우가 있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240V / 50~60Hz

탄자니아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여행 전문 사이트 : <http://www.lonelyplanet.com>

언어

- 공용어 : 영어, 스와힐리어(스와힐리어가 보편적임)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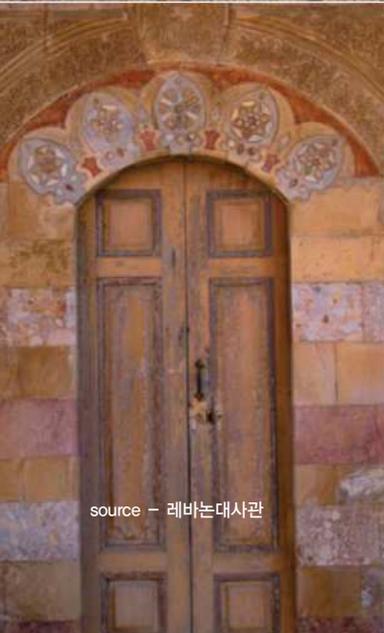
The Middle East

국가별 정보 중동

- 01 레바논 126
- 02 리비아 136
- 03 사우디아라비아 142
- 04 아랍에미리트 148
- 05 알제리 158
- 06 예멘 164
- 07 오만 174
- 08 요르단 178
- 09 이란 186
- 10 이스라엘 196
- 11 이집트 204
- 12 카타르 212
- 13 쿠웨이트 218
- 14 튀니지 224

| 01
중동

Lebanon



source - 레바논대사관

레바논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화폐 단위 | LBP
대사관 홈페이지 | <http://lbn.mofat.go.kr>
레바논정부 홈페이지 | www.lj.gov.lb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현재 레바논은 여행 경보(Travel Warning)가 지정되어 있다. 최근 레바논의 전쟁, 무력 충돌, 테러 등 불안한 정세로 인해 한국 정부는 레바논 전 지역을 Travel Warning 3단계인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 한국 정부의 레바논에 대한 Travel Warning 지정
 - 2006년 3월 8일 : 레바논 전 지역 '여행 자제' (2단계, 신변안전 특별 유의)
 - 2006년 7월 20일 : 레바논 전 지역 '여행 제한' (3단계, 가급적 여행 삼가, 긴급 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
 - 2006년 9월 29일 : 남부 리타니(Litani)강 이남 '여행 제한', 리타니강 이북 '여행 자제'
 - 2007년 1월 26일~현재 : 레바논 전 지역 '여행 제한'
- 각 정·종파 간 권력 분점 형태인 트로이카 정치 체제(대통령은 기독교 마로나이트, 총리는 회교 수니파, 국회의장은 회교 시아파만 할 수 있도록 규정. 기타 정부 조직 등에도 정·종파 간 분배를 통한 균형 유지)을 수립하여 불안한 정치적 동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내부적으로는 정·종파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등 중동 국가와 미국, 유럽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으로서 국내외적인 분쟁, 테러, 납치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헤즈볼라가 대이스라엘 항전 명목으로 공공연히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레바논 내에는 베이루트를 포함한 전국에 12개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산재하여 40여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의 은거지가 되고 있는 등 구조적으로 항상 위험과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



현지
치안 상황

- 2008년 5월 헤즈볼라 사설 통신망 조사 및 공항 경비대장 경질 결정에 대한 아랍측의 반발로 레바논 여야 지지세력 간 무력 충돌이 촉발되어 65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했으며, 아랍 국가들의 긴급 중재로 2008년 5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레바논 여야 정파 간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정세로 관찰되고 있으나 헤즈볼라의 세력 강화(5만여 요원, 이스라엘 사정권 3만여 기의 로켓포 보유, RPG 등 중화기로 무장)에 따른 이스라엘과의 충돌 가능성, 특히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핵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또는 서방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을 배후 공격하는 세력으로 헤즈볼라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긴장 상태이다.
- 레바논의 국토 면적이 10,425km²(한국의 경기도 면적)로서 유사 시 전 국토가 전장화될 수 있는 소국가이며, 분쟁 발생 시 베이루트 국제공항이 단기간(분쟁 발생과 거의 동시에) 마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여행자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2008년 6~8월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Tripoli)시 인근에서 집권연합 지지 세력 이슬람 수니파와 헤즈볼라 등 야권 세력이 지원하는 알라위(Alawit) 세력 간 무력 충돌로 22명의 사망자 및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2008년 7월 19일 레바논 남부 시돈(Sidon)시 인근 '알 힐웨흐(Ain al-Hilweh)'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고위 간부 등 3명이 사망하는 등 내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2008년 6월 이후 극심한 전력난으로 베이루트 중심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정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 베이루트에서 다마스쿠스로 이동하는 산간도로 및 베카 등 일부 지역에서 차량 도난 및 무기를 사용한 차량 강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 평상시 정치 정세와 관련 없는 민생 치안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내부 정·종파 간 갈등 여파 및 시리아, 이란, 이스라엘, 서방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여하에 따라서 시위, 테러, 납치, 내부 무력 충돌, 대외 전쟁 등의 위험이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고급 차량 운행 시

- 고급 차량으로 야간에 한적한 산간도로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강취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책]

- 무력 충돌이나 시위가 발생한 지역 및 인근 지역은 가급적 여행을 삼간다.

- 국내 또는 레바논 내 지인들에게 여행 일정 및 비상 시 연락망을 알려놓고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인근 경찰 및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레바논의 정국이 불안하거나 유혈 충돌 발생 시 대사관에 입출국 일정, 숙소, 전화 번호 등을 통보하여 유사 시 안전 여부 파악이 가능토록 한다.

[사례 2] 사진 촬영 및 현지화 사용 정보

- 레바논 내에서 아무 곳에서나 사진을 찍다가 피랍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신용카드(credit card) 대신 미국 달러와 현지화(LBP-레바논파운드)가 대부분 통용된다.

[대책]

- 레바논 정부군이나 헤즈볼라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서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외국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거나 쇼핑할 때 미국 달러를 사용할 경우 거스름돈을 현지화로 돌려주면서 계산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꼭 확인한다. \$1는 1,500LBP 고정 환율이며 은행, 환전소, 호텔 등에서 환전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무력 충돌이나 시위가 발생한 지역 및 인근 지역은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특히 아래 지역들은 서방국들도 여행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Avoid all travel’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역들이므로 접근을 삼간다.
- 레바논 내 12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주변
 - 트리폴리(Tripoli)시 : Nahr el-Bared, Beddawi 캠프
 - 베이루트(Beirut)시 : Mar Elias, Sabra, Shateela, Dbayeh 캠프
 - 사이다(Saida)시 : Mieh ou mieh, Ein el-Helweh 캠프
 - 티르(Tyr, Sour)시 : Al Bas, Rashidiyeh, Burj al-shamali 캠프
 - 바알베크(Baalbek)시 : Wavell 캠프
-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UNIFIL 주둔 지역
-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의 중부 및 북부 지역
- 최근 ‘수니’와 ‘알라위’ 세력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트리폴리 인근 지역

대중교통

- 시외버스, 10인승 내외 규모의 소형 버스, 택시 등이 있다.
- 소형 버스는 차량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무분별 합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상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시리아 국경에서 베이루트까지 이동할 때 잠시 이용하는 경우는 있다.

- 택시는 합승택시와 콜택시(Allo Taxi) 두 종류가 있다.
 - 택시 번호판은 모두 red plate이다(일반 차량은 white plate). 합승택시는 운전자 재량으로 4인까지 합승하며 기본요금은 약 \$20이다.
 - 콜택시는 합승하지 않으며 구간에 따른 기본요금이며 약 \$8~10이다.
 - 합승택시 운전자는 무조건 'OK', 'No problem' 이라고 말하며 탑승시킨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도 많고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탑승 전에 가격을 흥정한 후 탑승하고 잔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시내 일반 합승택시들은 대부분 심하게 노후된 차량이 많고 불결하며 냉방 장치가 없다.
- 베이루트에서 트리폴리 등 주변 도시로는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 국제 항공편은 두바이,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카이로 등 노선이 많으며 한국과의 연결편은 대부분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한다. 또한 레바논은 시리아와 인접해 있고 시리아는 요르단과 인접해 있어 요르단-시리아-레바논을 연계하여 여행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

- 레바논은 도로교통의 기본여건 및 교통질서가 극히 열악하다. 렌터카를 이용한 자가운전은 가급적 삼간다.
- 일부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며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차선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거의 지키지 않는다.
-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들로 차량 공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역주행, 차선을 무시한 주행, 무단 U턴, 급정거, 골목에서 간선도로로 갑작스런 출현, 곡예식 과속, 차선을 개의치 않는 좌우로의 위험한 추월, 주택가 과속 및 경적 사용 등 무질서한 교통 상황이 상식을 초월한다.
- 상호 우선관계, 도로별 속도 제한, 안전벨트, 주차 위반 등은 규정으로만 존재하고 교통사고 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경찰이 과실 시비에 대해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지중해성 기후로 대체로 겨울은 짧고 우리나라에 비해 온화하며 여름은 긴 편이다.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겨울철 우기는 11월 말에 시작되어 3월 말까지 계속된다.

-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많다. 11~3월 중에는 동쪽 산악지대(Mount Lebanon)에 많은 눈이 내려 시리아 국경으로 통하는 산간도로가 통제되기도 한다.
- 여름철 낮 기온은 5, 6, 10월에는 25~27℃, 9월에는 30℃, 8월에는 31℃ 이상 올라간다.

자연재해

-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하며,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적인 모래폭풍(질은 황사 현상으로 3~5월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발생하고 있다.
- 1956년 지진으로 139명이 사망하고, 6천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간헐적으로 3~5도 사이의 지진 기록이 관측되고 있다.
- 일반적인 생활 관습은 종파 간 종교 관습을 제외하고는 유사하나 기독교 계통은 개방적, 회교 및 드루즈 계통은 보수적 성향을 띠며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다. 옷차림에 대해서도 종교 관습에 의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 사회적인 특별한 규제는 없다.
- 각 정파, 종파 간 갈등이 상존하므로 종교에 관해 민감한 질문이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군부대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촬영할 경우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할 수 있다.
- 평상시 사회 치안은 양호한 편이나 야간에 단독 외출하는 것은 삼간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Diplomat Bld, 2F, Presidential Palace Street, Baabda P.O.Box 40-290 Baabda, Lebanon
- 전화 : +961-5-953167~9
- 팩스 : +961-5-953170
- E-mail : lbkor@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lbn.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961-3-732625(영사), +961-5-950397(참사관)

근무 시간

- 월~금 / 08:00~16:00(점심시간 12:00~13:30)
- 휴무 : 토요일,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레바논 공휴일
- ※ 레바논 공휴일(2008년 기준)
- 1월 1일 : New Year's Day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 1월 6일 : Armenian Christmas
 - 1월 9일 : Et-Hijra※ (Islamic New Year, 사우디 이슬람 종교 기관에서 공포)
 - 1월 19일 : Ashoura 시아파 성일 (Hijra 10일 후)
 - 2월 9일 : St. Maron Day (마로나이트 성일)
 - 3월 20일 : Mawlid al-Nabi (모하메드 탄신일)
 - 3월 21일 : Catholic Good Friday and Easter (가톨릭 부활절)
 - 4월 25일 : Orthodox Good Friday and Easter (정교회 부활절)
 - 5월 1일 : Labor Day
 - 8월 15일 : Assumption Day (St. Mary's Day)
 - 10월 2~3일 : Eid al-Fitr※ (라마단 종료 축제)
 - 11월 22일 : Independence Day
 - 12월 9~10일 : Eid al-Adha※ (Feast of Sacrifice)
 - 12월 25일 : Christmas
 - 12월 29일 : Et Hijra※ (Islamic New Year's Day)
- ▶ ※로 표시된 회교 휴일은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종교 기관에서 달을 관찰하여 결정한다. 상기 일자는 대략 계산된 날짜이며 1~2일 전 확정된다. 시아파는 별도로 달을 관찰하여 간혹 수니파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영사협력원 연락처

- 시리아(주레바논 대사관 관할국) 다마스쿠스에 영사협력원이 위촉되어 있으니 시리아 여행 중 긴급하게 영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한다.
 - 영사협력원 심재원(시리아 다마스쿠스 거주) : 핸드폰 +963-944-854594 / 시리아 내에서 전화 시 0944-854594



비자 정보

- 우리나라와 레바논과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1개월 관광비자는 레바논 입국 시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 및 학업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는 입국 이전 레바논의 재외공관에서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 비자 수수료는 15일 이내 \$17, 1~3개월 이내 \$34이다. 단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도착, 사증 발급 시 1개월 이내 관광 비자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며 1개월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
- 이스라엘 비자 소지자 또는 여권에 이스라엘 입출국 기록을 가진 여행자에 대해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통관

- 현금, 여행자수표의 반입, 반출에 제한이 없으며 애완동물은 방역을 요하고 무기

및 탄약의 반출입은 금지되어 있다.

- 입출국 시 반출입 통관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술 : 위스키, 샴페인, 코냑(2리터 이하), 기타 주류(4리터 이하)
 - 담배 : 일반 담배 800개비(1kg 이하), 시가류 50개비(1kg 이하)
 - 향수 : 100g 이하, 켈른(Cologne, 남성 향수)은 1리터 이하
 - 면세 한도 금액(일반 면세 기준) : 미화 \$1,333(2백만 레바논파운드) 이하의 생활용품
 - 외국환 신고 : 신고 의무 없음
 - 의약품 : 개인적으로 복용할 분량만 허용
 - 식품 : 특별한 규정 없음
 - 반입 불허 품목 : 무기류, 실탄, 음란물(책자, 영상물), 마약류
 - 기타 유의 사항 : 출국 시 모피류, 고급 의류, 보석류, 시계, 카메라 등의 품목은 \$1,600 이상 반출 시 신고가 필요하다. 무기, 실탄, 마약, 문화재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 중동에서 의료 시설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사우디, 쿠웨이트 등 인접 아랍 국가에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레바논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 공립 병원(Public Hospital)은 염가이나 수준이 열악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설 병원은 시설 및 서비스가 우수한 편이며 대부분 베이루트, 트리폴리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 및 산간 지역 소재 병원은 사설 병원인 경우에도 시설 및 서비스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 대부분의 사설 병원에서는 영어, 불어 등 외국어 사용이 가능하나, Public Hospital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
- 향정신성 약품 등 일부 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 약국에서 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심각한 질병 치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여 안내와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 베이루트 소재 주요 병원(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순)
 - Al Arz : Zalka, 876770
 - American University Hospital : AUH, 374474
 - Lebanese Canadian : Sin El-Fil, 511490
 - Rizk : Ashrafieh, 200800
 - St. George : Ashrafieh, 585700
 - St. Joseph : Dora, 248750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대사관 : +961(국가번호)-5-953167~9
- 경찰 : 112
- 앰블런스 응급실 : 140
- 화재 : 175
- 베이루트 국제공항 : 01-628000~099

차량 및 운전

- Left-Handle이고 전국이 가파른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 오토매틱(Automatic)이 운전엔 편리하다.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 차량으로 시리아 국경을 통해 레바논에 입국하는 경우 국경에서 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종합손해보험 가입이 바람직하다.
- 차량 사고 발생 시 차체의 외형 수리는 신속하고 양호한 편이나 주요 부품은 원산지로부터 조달해야 하므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팁 제도

- 식당에서는 음식 값의 3~5%, 호텔 포터는 \$1, 이발사는 \$2 정도를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으며, 서머타임 기간(4월 말~10월 말)에는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TV는 PAL 방식

레바논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레바논 관광청 : <http://www.lebanon-tourism.gov.lb>
- 레바논 여행 안내 : <http://www.travel-to-lebanon.com>
- 나우 레바논 : <http://www.nowlebanon.com>
- 레바논 와이어 : <http://www.lebanonwire.com>

언어

- 아랍어(공용어), 프랑스어, 영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프랑스어,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나 일반 시민 및 특히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랍어를 대부분 사용하며 프랑스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편 제도

- 한국과 레바논 간 항공 우편은 7~15일이 소요된다.
- DHL, UPS 이용이 가능하다.
- 우편물 배달 제도가 없으므로 사서함을 이용해야 한다.

환전

- 현지 상점 이용 시 미국 달러 사용이 가능하며, 현지화가 필요할 경우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미용 및 이발

- 미용실 및 이발소 시설은 양호하며 요금은 퍼머인 경우 \$60, 남성 이발의 경우 \$10 정도이다.

은행, 우체국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영업시간
 - 월~토 : 08:30~15:00(일요일 휴무)
- 우체국 영업시간
 - 월~토 : 08:00~14:00(일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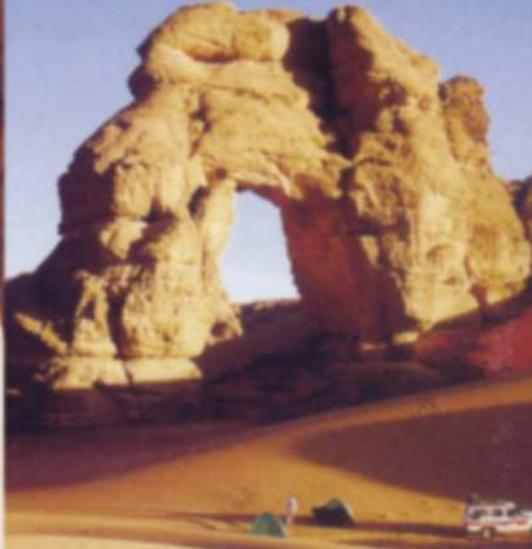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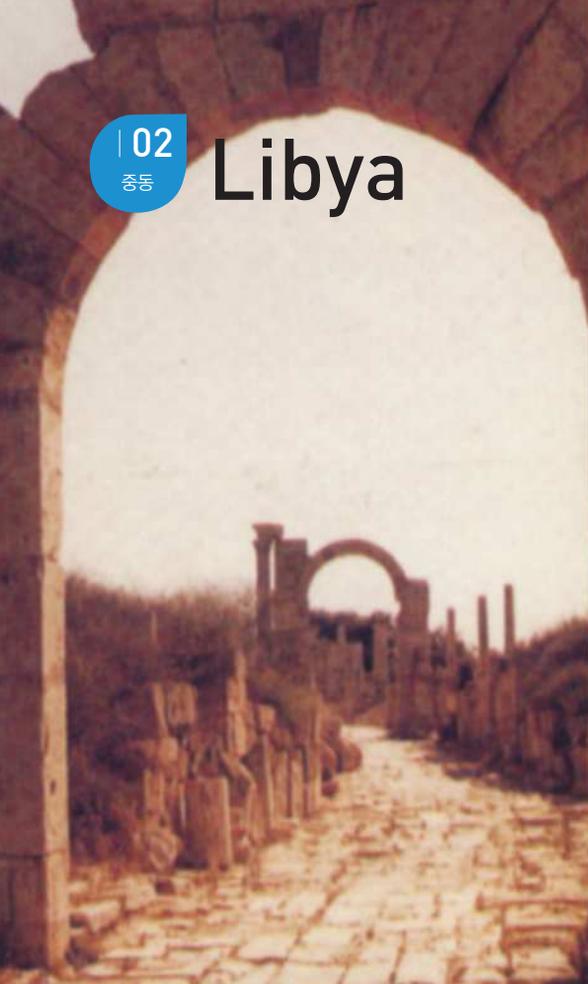
인터넷 사용 환경

- 베이루트 시내 중심으로 DSL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 02

중동

Libya



리비아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LD
대사관 홈페이지 | <http://lby.mofat.go.kr>
리비아정부 홈페이지 | www.gpco.gov.ly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최근 리비아에서는 주목할 만한 테러 사건이 발생된 바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예방 조치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 다만 대외 개방에 따른 고실업과 빈부 격차 등 사회 문제, 서방과의 관계 개선 등 정치적 사유로 인해 뱅가지 등 동부 지역 및 일부 사막 지역에서의 잠재적 테러 위협이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안정적인 사회 체제가 확립되어 치안 관련 사회 불안 요소는 많지 않다.
- 최근 대외 개방 가속화, 외국인 급증 및 불법 체류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강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 리비아인들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기 차량 파손 등에 대한 보험 처리가 곤란하므로 반드시 자차보험을 들어야 한다.

대중교통

- 시내버스는 요금이 저렴하지만 행선지가 표시된 경우가 거의 없어 버스 기사에게 행선지를 확인한 후 승차해야 하며 대부분 일반 리비아인이나 인근 국가에서 온 외국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택시는 개인택시(대우 누비라 형태)와 합승택시(기아 봉고 형태)가 있다. 시내는 요금이 3~5LD(리비아디나르) 정도이며, 승차하기 전에 운전기사와의 가격 흥정을 해야 내릴 때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는 영어를 못하므로 중요 목적지는 아랍어로 쓰인 메모를 갖고 다녀야 한다.
- 시외버스는 인근 국가를 왕래하는 직행버스와 리비아 내 각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가 있으나 차량이 노후화되어 한국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기차나 지하철은 없다.

도로교통

- 도로의 많은 부분이 파여 있으며, U턴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차선이나 신호등이 없으므로 1차선을 운행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 대형 건물에 주차장이 충분치 않아 인근 도로의 바깥쪽 차선 및 보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주변이 매우 혼잡한 경우가 많다.
- 주민들의 안전의식 미흡, 복잡한 도로 구조 및 다수의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방어 운전은 필수이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지중해성 기후로 습기가 없는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사계절 지속되나, 여름철(6~9월)에는 낮 평균 40℃를 넘는 더운 날씨가 많다.
- 여름철에 간혹 불어오는 모래바람(GIBLI)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무더운 바람으로 수 시간 내에 주위 기온을 10~15℃ 상승시킨다.
- 여름철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다.

자연재해

- 특별히 큰 자연재해는 없으나 겨울철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침수 구간이 많이 나타난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생활 관습

- 악수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양 볼에 키스하는 등 적극적인 친근감을 표시하나, 아시아, 유럽 등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악수 정도로 인사를 한다.
- 이슬람 계율에 따라 여성들은 히잡이라 불리는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니는 것이 전통적 관습이나, 트리폴리 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일반적으로 외부인 방문을 꺼리나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최대의 접대를 아끼지 않는다. 이때 손님 시중은 남자들이 든다. 초대받은 경우 조그만 선물을 가져가는 것

- 이 좋으며, 차려 놓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좋아한다.
-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시장을 보고 여자는 가정에서만 생활한다.

종교 생활

- 대부분이 이슬람 수니파이다.
- 모든 생활 규범은 코란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코란은 개인 생활은 물론 정부 시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나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발흥 억제를 위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세속적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금기 사항

- 여성을 유심히 쳐다보면 안 된다.
- 초대받지 않은 경우에는 남의 집 방문을 삼간다.
- 음주, 도박, 고리대금, 돼지고기는 엄금 사항이다.
- 이교도 출입 금지 구역인 모스크(회교 성당) 내에 들어가면 안 된다.
- 군사 시설물 보호 구역은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P.O.Box 4781, Abounawas Area, Gargaresh St., Tripoli, Libya
- 전화 : +218-21-483-1322
- 팩스 : +218-21-483-1324
- E-mail : liby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lby.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218-91-218-8611

근무 시간

- 일~목 : 08:30~17:00(점심시간 12:00~14:00 / 금, 토 휴무)
- 라마단 기간 : 08:30~14:30(점심시간 없이 단축 운영)
- ※ 리비아 공휴일
- 3월 2일 : 인민주권 선포일
- 9월 1일 : 9월 혁명 기념일
- 1월 1일 : 이슬람 신년
- 3월 12일 : 모하메드 탄신일
- 10월 10~12일 : 라마단 휴일
- 12월 20~22일 : 하지 휴일
- ▶ 주재국 공휴일은 주재국 정부가 예정 공휴일 1~2일 전에 확정 발표하므로 실제 공휴일 실시 여부는 매년 달라짐.



긴급 영사
연락망



비자 정보

- 해외 주재 리비아 대사관에 독자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국 승인 절차에 1개월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대부분 리비아 내에 있는 사업 파트너나 초청 기관이 리비아 이민 당국에 의뢰하여 비자 발급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나 초청 기관이 없는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기업인들에 대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리비아에 사업 기반을 가진 우리 기업인들이 리비아를 방문할 때마다 일일이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리비아에 주재하는 외국인 기업 간부들에 대해서는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 넘버 확인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 입국 시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다.

통관

- 술 : 절대 반입 불허(알코올이 포함된 모든 주류), 적발 시 압류 및 벌금에 처한다.
- 담배 : 400개비(개인 용도만큼 허용)
- 향수 : 개인 용도만큼 허용
- 면세 한도 금액(일반 면세 기준) :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노트북 등 각 1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물품
- 외국환 신고
 - 외화 현금, 여행자수표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한 후 신고서를 수령해야 한다.
 - 외화를 반출할 때는 입국 시 신고한 신고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환전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의약품 : 개인 용도의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약품은 소지가 가능하다. 단, 양이 많을 경우 의사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해야 한다.
- 식품 : 개인 용도의 일반 과자류, 포장된 식품류 등
- 반입 불허 품목
 - 모든 주류 및 돼지고기는 절대 반입 불허
 - 총기, 화약류, 유독성 물질류, 마약류
 - 축산물, 농산물, 과일·채소류
 - 선정적이거나 이슬람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잡지, 신문, 사진, CD, DVD 등
 - 다량 소지하여 상용 물품으로 오인되는 품목

- 공항 입출국 시 별도의 입출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제출은 필요 없다.
- 병원은 국립 병원과 사립 병원으로 구분되며 국립 병원의 경우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의료비는 무료이나 입원비는 유료이다. 의료 시설이 뒤떨어지고 의료진이 부족한 형편이다.
- 사립 병원의 경우 국립 병원보다 의료 환경이 월등히 나은 편이나 출산, 중병, 수술 등 큰 치료를 요할 경우는 인접국(유럽)이나 본국 치료가 바람직하다.
- 감기, 몸살, 피부 질환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은 전문의를 통해 진단한 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처방한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021-333-5405
- 응급 : 021-333-5000
- 소방서 : 021-444-8111~5
- 전화번호 안내 : 16

팁 제도

- 팁 문화는 없으며 피자 배달 등이 있는 경우 영수증에 배달 비용(1LD 정도)이 표시되어 청구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정전이 잦아 빌딩에서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비상용 랜턴 또는 양초를 필히 준비해야 한다.

리비아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리비아 뉴스 : <http://www.libya-watanona.com>

언어

- 공용어 : 아랍어(영어와 이탈리아어도 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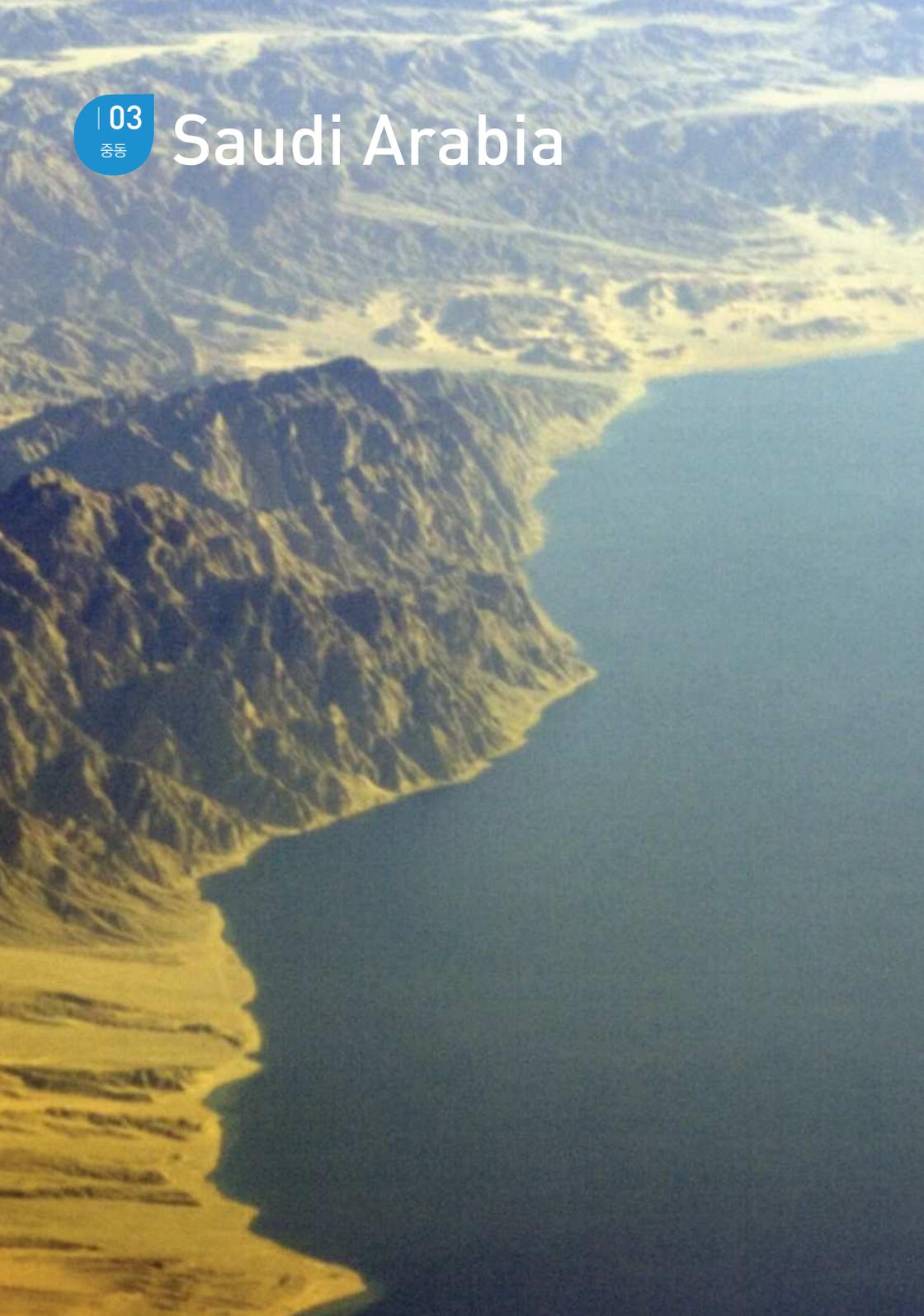
기타

- 수도물은 염분,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대개 생수를 사서 마셔야 한다.

| 03

중동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늦음

화폐 단위 | Riyal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au-jeddah.mofat.go.kr>

사우디아라비아정부 홈페이지 | www.mofa.gov.s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2003~4년 테러 단체의 외국인 주거 단지(리야드, 젓다, 담맘 지역)에 대한 테러 발생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테러 세력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 다만, 외국인에 대한 테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리야드, 젓다, 담맘 등 서구인 집단 거주 지역 내에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유색 인종(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며, 특히 부녀자(가정부)를 납치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시내 대형 쇼핑몰이라도 여성 혼자서는 출입을 삼가고 쇼핑몰 내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차량 운전 시

- 난폭 운전이 횡행하고 있으며, 차량 과속으로 인한 접촉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차를 직접 운전할 때는 방어 운전 및 안전 운행이 필수이다.

[대책]

- 안쪽 차선은 과속 차량이 주행하고, 3차선 주행 시에는 중간 차선을 이용하도록 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 및 책임 범



현지
치안 상황

위를 결정해 준다.

[사례 2] 옷차림이 불량한 여성 여행객

- 눈에 띄게 불량한 옷차림을 한 여성의 경우 종교 경찰(무타와)에게 연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대책]

- 이슬람 전통 복장인 아바야 착용은 필수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주요 도시 시내 중심가 이외의 외곽 지역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많아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저녁에는 단독으로 외곽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시내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장거리 시외버스 및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 택시는 외국인 기사가 대부분 운전하며 미터 요금은 비싼 편이므로 택시를 타기 전에 기사와 미리 택시 요금을 흥정하는 게 유리하다.

도로교통

-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아스팔트 노면이 미끄러워 급커브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 과속 단속 감시 카메라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과속 위반에 대한 벌금은 통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 매매 또는 국외 반출 시 위반 요금을 지불해야만 매매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 고속도로에서 난폭 및 과속 주행이 많아 차량 접촉 또는 전복 사고 발생이 많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통용되지 않으며, 여성에게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내륙 지역은 열대 사막 기후로 고온 건조하며 해안 지역(젠타 등 홍해 연안 지역, 담맘 등 걸프 연안 지역)은 고온 다습하다.
- 연평균 기온 30~40℃, 7~8월엔 최고 50℃ 이상, 12~1월엔 최저 -4℃까지 내려간다. 10~3월에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하며 낮에는 20~30℃ 정도이다.
- 동절기(11월부터 1월 말까지)를 제외한 기간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오므로 호흡기 및 눈병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도인 리야드(Riyadh) 지역은 매우 건조하므로 피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자연재해

- 진도 3~5 규모의 지진은 매년 한 차례 정도 발생하나 기록될 만한 피해는 없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통 이슬람 교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다.
- 특히 여성들의 외부 생활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여성들은 외출 시 '아바야(이슬람 여성 외출 복장)'라는 검은 옷을 착용해야 하며 운전도 할 수 없다.
- 무슬림 의무기도 시간(매일 5회) 중에는 모든 식당, 상가, 은행 등이 약 30~40분간 업무를 중단한다.
- 라마단(단식월)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및 식사를 할 수 없다.
- 식당은 남성 전용과 가족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가족 관계가 아닌 성인 남녀는 함께 자리를 할 경우 종교 경찰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 대부분의 건물(관공서 등)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낯선 여성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절대 안 된다.
- 주류 및 음란물, 종교 서적,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 잣다 총영사관

- 주소 : P.O.Box 55503, Jeddah 21544, Kingdom of Saudi Arabia
- 전화 : +966-2-668-1990
- 팩스 : +966-2-668-4104
- E-mail : jeddah@mofat.go.kr
- 홈페이지 : <http://sau-jeddah.mofat.go.kr>
- 근무 시간
 - 토~수 : 08:30~15:30(점심시간 12:30~13:30)
 - 공휴일 : 목, 금요일, 주재국 라마단 및 하지 기간, 우리나라 3대 국경일(3.1, 8.15, 10.3)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966-53-367-2214 / +966-50-432-6890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주소 : Dipomatic Quarter, P.O.Box 94399, Riyadh 11693, Kingdom of Saudi Arabia
- 전화 : +966-1-488-2211
- 팩스 : +966-1-488-1317
- E-mail : emsaudi@yahoo.co.kr



- 홈페이지 : <http://sau.mofat.go.kr>
- 근무 시간
 - 토~수 : 08:30~15:30(점심시간 12:15~13:00 / 목, 금 휴일)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966-50-648-9806 / 966-55-521-6935

출입국 시
유의 사항



비자 정보

- 주재국은 관광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상용 비자인 경우 스폰서(사우디아라비아인)의 초청장으로 비자를 발급해 준다.
-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은 여권 입국 스탬프에 기재된 체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류 기간 초과 시 스폰서(초청인)는 10,000리얄(\$2,667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초과 체류자는 억류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방접종

- 6~8월간 말라리아 및 뎅기열이 발생하므로 예방접종을 꼭 맞는다.
- 성지 순례 기간 중 특히 빈발하므로 주의한다.

통관

- 반입 금지 품목 :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종교 서적, 마약, 무기류 등
- 3,000리얄(\$800 상당) 이하 생활용품은 면세
- 60,000리얄(\$16,000 상당) 이상 현금 또는 고가의 물품은 반입 또는 반출 시 세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의료 시설은 최신이나 의사 수준은 중간 이하이기 때문에 당지 교민들은 수술을 해야 하는 중병이나 아기 출산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의사와 간호사는 외국인인 대부분이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단순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며, 의료보험 가입이 일반적이다.
- 젤다 지역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의 관문으로 연중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순례객들로 인해 뇌수막염, 뎅기열, 디프테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하지 순례기인 12월에는 콜레라, 조류독감, 뇌수막염 등 전염병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999

- 교통경찰 : 996
- 화재 신고 : 998
- 테러 : 990
- 응급환자, 앰블런스 : 997

차량 수리

- 사고 차량 수리 시 경찰 사고 조서가 없을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
- 사고 차량 견인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경찰이 협조해 준다.

팁 제도

- 요금에 봉사료(15%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약간의 봉사료가 필요하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110V, 220V / 60Hz
- 전기 사정은 양호한 편이며 가정용 요금은 저렴하나 누진제 적용으로 상용은 비싼 편이다.
- 한국 제품도 사용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정치, 경제, 교육, 언론 기관 Directory : <http://www.atsaudi.com>
- 교역 및 무역 : <http://www.saudiarabiatrading.com>
- 사우디 중요 뉴스 : <http://www.arab.com>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 대도시의 지식인 및 외국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

04

중동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시차 | 한국보다 5시간 늦음

화폐 단위 | Dirham

주 두바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 <http://are-dubai.mofat.go.kr>

대사관 홈페이지 | <http://are.mofat.go.kr>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 홈페이지 | www.government.ae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7개의 에미리트(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아즈만, 라스 알카이마, 움알케인, 후자이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 외교, 국방 및 국제통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있어 각 에미리트 지도자(Ruler)의 통치하에 강력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두바이는 대외 관계에 있어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 통상에 보다 치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 전쟁이나 내란은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편이며, 현재까지 테러 공격 발생 사례 또한 없다. 그러나 두바이 정부가 음주 및 돼지고기 허용을 포함하여 개방된 서구 문화를 용인함으로써 인해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표적이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국 지위에 있는 관계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대상 국가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 외국인에게 개방적이며 친미 성향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항상 테러의 목표로 지적되고 있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UAE를 높은 수준의 테러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 대중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 특히 쇼핑몰, 종교 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강력 범죄 발생률이 낮고 전반적으로 치안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두바이에는 제3국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생활여건 악화로 인한 범죄가 증



현지
치안 상황

가하는 추세이다.

- 인적이 드문 곳이나 공사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은 삼간다.
- 여성 혼자 야간에 택시를 타거나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도로에서 낯선 사람의 차량 동승 제의는 무조건 사절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음주 운전

-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운전에 관한 한 일체의 예외를 인정치 않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두바이는 호텔, 고급 음식점 등 제한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허용하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상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각종 사건, 사고 시 음주 상태 여부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책]

- 음주 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최선이다.
- 취한 상태에서는 공공장소를 배회하지 말고 곧바로 귀가해야 한다.

[사례 2] 성매매

-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매매, 혼외정사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현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여성의 자발적 동행 여부가 피해 사례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책]

- 여성들의 경우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삼가고 낯선 남자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차량 동승을 제의하더라도 절대 동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두바이 알 사트와(Al Satwa) 지역, 데이라(Deira) 지역 소재 재래시장 등 인파가 많은 곳을 방문할 때에는 스쿠터를 이용한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
- 나이트클럽 등 유흥 시설

대중교통

• 버스

- 수도인 아부다비의 경우 2008년 6월 30일부터 시내버스가 도입되어 연말까지 무료로 운행 중에 있다.
- 두바이의 경우 현재 일부 구간에 버스(요금 : 2디르함/560원)가 운행되고 있으



나 노선 및 버스 부족으로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택시 또는 승용차가 보편적 교통수단이다.

• 택시

- 새로운 택시 제도 도입으로 구형 택시를 신형 택시로 교체하고 있으며, 신구 택시가 모두 운행되고 있다.
 - 구형 택시(흰색과 브라운색 혼합형) : 기본료 2디르함(\$0.55) 및 1km당 0.5디르함 추가
 - 신형 택시(은색) : 07:00~22:00 기준(이외 시간에는 야간 할증료 부과)
 - 중형(흰색 캡) : 기본료 3디르함(\$0.82) 및 1km당 0.75디르함 추가
 - 소형(노란색 캡) : 기본료 2.6디르함(\$0.71) 및 1km당 0.65디르함 추가
 - 시내에서 승차를 하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 두바이에 메트로(Metro)를 건설 중이다.

도로교통

- 단기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으나, 현지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실제로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 일반 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거주자(Residents)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UAE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서 사용해야 한다.
-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차량 렌트가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출국 전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둔다.
- 주요 도시는 도로가 잘 되어 있어 1차선 주행 시 과속 차량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 두바이는 주요 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 통행료가 자동 부과된다. Salik Tag이라는 전자 칩을 구입(인터넷, 은행, 주유소 등에서 구입 가능)하여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유료 도로 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부과된다.
- 운전 시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증을 차량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 앞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기후

- UAE를 관광하기에 최적인 시기는 11~2월(13~26°C) 사이이며 밤낮의 기온차가 큰 편이다.
- 3~6월은 최고 기온이 30~40°C, 7~9월은 40~50°C에 평균 습도가 80% 이상에 달하여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가 어렵다.



기후와
자연재해



자연재해

-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거의 없다.

음주

- UAE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한해 5성급 호텔 및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만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샤자 지역 제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 또는 단기간의 구류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류 구입은 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일체의 예외를 인정치 않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음주 운전 적발 시 벌금이 최소 20,000디르함(약 \$5,480), 60일간 차량 압수, 교통법점 24점 부과 및 재판에 회부되어 최소 1개월 구속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의상 및 성 문화

- UAE 대부분의 도시에서 외국인의 의상에 대해 제한하지는 않으나, 외국 여성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 비교적 보수적인 도시인 샤자(Sharjah) 지역에서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배꼽, 등, 무릎 위가 노출되거나 타이트하고 속이 비치는 옷 등)은 단속 대상이 된다.
-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매매, 혼외정사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이슬람의 사리아(Saria)법에 의하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가 집을 나누어 쓰거나 밀폐된 공간(방, 차 안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때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표현, 동성애 및 동성애적인 복장 등도 금지하고 있다.

종교

- 외국인의 신앙 활동은 정해진 종교 단지 내에서만 허용되며, 여타 종교 선교 활동은 불법이므로 처벌받게 된다.
- 매년 1개월간 라마단(이슬람 금식월)을 지내며, 이 기간 중 이슬람 신자들은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 금식을 한다. 이 기간 중에는 외국인들도 허가된 식당 외의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필 수 없다. 2008년은 9월 1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되며, 매년 이슬람력에 따라 라마단 시작일이 약 11일씩 빨라진다.

방문 및 초대

- 문 입구에 슬리퍼가 있을 경우 신발과 바꾸어 신는 것이 예의이다.

- 문에 들어서면서 “아살라마리쿰(Peace to be with you)” 이라고 인사하며, “왈라이 쿨엘살람(with you too)” 이라고 답변한다.
- 집주인의 부인, 딸 등 여성의 안부를 묻는 것은 큰 결례이다.
- 자신의 발바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앉는 것도 실례이다.
- 여자 직원을 소개받을 경우 볼에 키스하지 않으며,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 경우 만 악수한다.
- 아랍인은 선물을 받으면 손님 앞에서 열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식당 주문 및 상담 예절

- 이슬람교에서 식음을 금지하고 있는 알코올이나 돼지고기가 들어 있는 음식은 주문에서 제외한다.
- “Business is not only business” 라는 말처럼 아랍인은 사업과 개인을 분리하지 않고 상대하는 경향이 있다.
- 반복적인 확인이나 너무 자세한 질문 등은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에 따라 상담 약속이 아무런 통보 없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통 복장

- 남자는 디시다샤(Dishdasha) 또는 따움(Thoub)이라고 부르는 긴 옷을 입으며, 통상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어두운 색(두꺼운 모직)을 선호한다.
- 남자는 성년이 되면 모자(흰색 또는 붉은색 체크무늬의 천)를 써야 하며, 집 안에서는 쓰지 않으나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착용하는 것이 예의이다.
- 여자는 아바야(Abayah)라는 긴 옷을 어깨부터 발까지 가리도록 입는다. 머리에도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기타

- 공항, 항만, 정부 건물, 군사 시설 및 각국 대사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현지 여성에 대한 촬영은 금지 사항이며, 이슬람 전통 복장을 입은 현지인을 촬영할 때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 마약 소지, 사용 및 유통에 관한 형사 처벌이 매우 엄격하여 최고 사형까지 언도 받을 수 있다.

주 두바이 총영사관

- 주소 : Villa #39, Street 24b, Jumeirah 2, Dubai / P.O.Box 126127, Dubai, United Arab Emirates



- 전화 : +971-4-344-9200
- 팩스 : +971-4-344-9183
- E-mail : dubai@mofat.go.kr
- 홈페이지 : <http://are-dubai.mofat.go.kr>
- 근무 시간 : 일~목요일 / 08:30~15:30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이강희 민원계장(휴대전화) : +971-50-469-8458
 - 오용진 영사(휴대전화) : +971-50-553-2816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 주소 : Saeed bin Tahnoon St, Abu Dhabi Immigration Area / P.O.Box 3270, Abu Dhabi, U.A.E.
- 전화 : +971-2-443-5337
- 팩스 : +971-2-443-5348
- E-mail : uae@mofat.go.kr
- 홈페이지 : <http://are.mofat.go.kr>
- 근무 시간 : 일~목 / 08:00~14:30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손용호 영사 : 971-50-641-3751
 - 정선미 서기관 : 971-50-613-5722
- ※ 아랍에미리트 공휴일
 - 1월 1일 : 신년
 - 1월 20일 : 이슬람력 신년*
 - 3월 30일 : Al Mawlid Al Nabawi*
 - 8월 10일 : Al Isra Wai Meraj*
 - 10월 12~14일 : Eid Al Fitr*
 - 12월 2~3 : UAE 연방 개국일
 - 12월 18~21일 : Eid Al Adha*
- ▶ *표시는 매년 변동 가능함.

출입국 시
유의 사항



비자 정보

- UAE 정부는 여행증명서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인근국 우리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를 교부받아 입국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 주재국 입국 시 공항에서 도착 사증을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이 사증은 30일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서 620디르함(약 \$170)의 수수료를 내고 30일간 연장

할 수 있다. 인접국(오만, 카타르, 이란 등) 방문 후 재입국하는 경우 1개월 체류 기간의 방문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취업, 학교 진학 등으로 인해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간염 및 에이즈 보균자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은 비자가 거부된다.

예방접종

- 단기 방문객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증명 등이 필요 없으나,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의약품

-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두바이 체재 기간 중 필요한 양과 처방 목적이 명시된 의사처방전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일부 국가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코데인(Codeine)의 반입, 진통·수면 효과가 있는 감기나 독감 관련 약품 및 호르몬제 소지는 불법이다.
- 소지한 의약품의 불법 여부를 모를 때에는 주재국 보건부(www.moh.gov.ae)나 주한 UAE 대사관(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5-5 / 02-790-3235~7)에 문의한다.

통관

- 술 : 1인당 4단위 이하(1단위 : 위스키·와인 등 1병, 맥주 12캔)
- 담배 : 2보루(20팩), 시가 50개비
- 면세 한도 금액(일반 면세 기준)
 - 총 합계 3,000디르함(\$817) 미만의 선물
 - 사용 중인 비디오카메라, 프로젝터
 - 휴대용 악기, 망원경, CD/DVD 플레이어, 휴대용 TV, 노트북, 휠체어, 스포츠용품 등(상업 목적이 아닌 경우)
- 외국환 신고
 - 18세 이상 성인 1인당 현금 및 여행자수표 40,000디르함 또는 \$10,000 초과 신고해야 한다.
- 의약품
 - 모든 종류의 의약품은 신고해야 하며, 의약품 소지 시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 식품
 - 모든 육류는 보건당국의 검역을 거친다.
- 반입 불허 품목
 - 마약류, 외설물(CD, 사진, 책 등), 위조품, 상아, 돼지고기 제품, 이슬람 외의 종교 흉보물, 양귀비 씨 등



- 외설물 반입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 세관 신고 품목
 - 무기, 탄약 등 군수용품
 - CITES 협약에 따른 가축 및 희귀동물(동물가족, 상아, 박제)
 - 다량의 필름, 책, CD 등
 - 나무, 식물 및 흙
 - 불꽃놀이 용품 및 폭발물
-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약간의 진료비(약 50디르함)만 지불하고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공립 병원은 긴급한 응급실 이용을 제외하곤 UAE 국민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나 방문객은 일반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일반 병원에서 1회 진료 시 약 150~200디르함(\$40~50)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 일반 병원은 많이 있으나 의료기기 등의 수준이 미흡하여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영어 사용이 가능한 병원(아부다비)
 - NMC(New Medical Center) : +971-2-633-2255
 - Ahalia Hospital : +971-2-626-2666
 - Gulf Diagnostic Center : +971-2-665-8090
 - Al Noor Hospital : +971-2-626-5265
- 두바이는 중동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가 상당히 고액이다.
- 의약 분업이 시행되고 있어 일상적인 가정용 약품 이외의 치료약 구입을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는 Rashid Hospital(04-337-4000), Dubai Hospital(04-271-4444) 등이 있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999
- 응급환자(앰블런스) : 998
- 화재 신고 : 997

차량 수리

- 사고 차량은 경찰의 사고 보고서 없이는 수리할 수 없으며, 개인의 과실로 차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차량을 수리

할 수 있다.

-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한 경우, 렌터카는 렌터카 회사에, 일반 차량은 차량 구입 대리점에서 지정한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면 곧바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지정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 견인 서비스 업체(AAA-Triple A : 04-285-8989)를 이용하면 된다.

팁 제도

- 식당에서는 청구서에 대부분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팁을 주는 경우가 드물다.
- 호텔이나 공항에서 포터 이용 시 현지화 5~10디르함 정도, 이발소 및 미장원에서 5~10디르함 정도 팁을 준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5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플러그 모양이 한국과 상이하므로 별도 구입해야 하며, 50Hz 사용 시 문제가 없는 전자제품의 경우 플러그 어댑터를 이용하면 한국 제품도 사용 가능하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Abu Dhabi Explorer 및 Dubai Explorer 책자와 Dubai Red Tape
- 한인회 : <http://www.uaekorean.com>
- 두바이 관광청 : <http://www.dubaitourism.ae>
- 아부다비정부 홈페이지 : <http://www.abudhabi.ae>
- 두바이정부 홈페이지 : <http://www.dubai.ae>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 일상생활(공항, 쇼핑몰, 택시 이용 등) 속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있다.

| 05

중동

Algeria



알제리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Dinar
대사관 홈페이지 | <http://dza.mofat.go.kr>
알제리정부 홈페이지 | www.el-mouradia.dz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현재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분자들의 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2006년부터 '마그레브 알카에다'로 개명한 테러 조직은 자살 폭탄 테러 등 알카에다 수법의 테러 방식을 채용하면서 도시 인근 지역에서 대량 폭탄 테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특히 2007년 4월과 12월에 수도 알제 시내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알제리 정부 당국이 곤경에 처해 있다.
- 알제리 보안당국은 2009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테러 잔당에 대한 섬멸 작전을 전개 중이나 북동부 산악 지역에 은거하고 있어 단기간 내 소탕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 1990년대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전개하여 대중들로부터 배척받게 되자 현재는 일반인에 대한 테러보다는 미디어 효과가 크고 주재국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목표물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에 주력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대테러 병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일반 범죄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에서 실업 청소년에 의한 소매치기, 폭언, 폭행사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외국인에 대해 적대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야간에는 행인이 적고 조명도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 지방으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사전에 대사관에 여정 및 연락처를 알려 놓고 간다. 사전에 대사관으로부터 여행 지역에 대한 치안 상황을 확인해 둔다.



현지
치안 상황

- 차량으로 여러 도시를 이동할 때에는 필히 현지 가이드를 동반하고 이웃 국가, 국내 대도시 간 이동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2007년 2월 튀니지-알제리 국경지대에서 오스트리아 여행객 2명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현금 및 물품 소매치기

- 대부분 호텔, 상점 등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다. 현금 사용이 빈번하여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 소지에 주의해야 한다.

[대책]

- 고액권 외화(100유로)는 특히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 도보 이동 시에는 고가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은 눈에 띄지 않게 가방에 넣어 다닌다.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카메라 날치기가 특히 많으므로 카메라 사용 시 주의한다.
-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야간에는 도보로 외출하거나 우범 지역을 배회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차량 이동 시 곳곳에 총기를 가진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으며, 검문소 앞에서는 서행하고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테러리스트에 의한 경찰 대상의 총기 및 폭탄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검문에 불응하는 행동은 차질 테러리스트로 오인하게 되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알제리 동쪽의 산악지대(부메르데스, 티지우즈 등)는 테러리스트들이 은거하며 수시로 출몰하여 자살 폭탄 테러가 빈발한 지역이다.



대중교통

- 지방 주요 도시에는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대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과 모로코, 튀니지 등 인접 국가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많아 다양한 방법으로 알제리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입출국 수속 지연 등으로 연발착 사례가 많다.
- 시내 이동에는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택시 요금은 미리 운전기사와 결정한 후 탑승해야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알제 공항에서 알제 시내 호텔까지는 600~1,000디나르(\$1=62Dinar)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팁으로 요금의 5~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 야간에 버스, 택시편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고 숙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교통

- 도로 사정은 개도국 수준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관리가 미흡해 도로 중간에 포장이 파여 있는 등 사고 요인이 많다.
- 알제 시내는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심각하며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여행자가 운전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렌트한다.
- 도로 주행 시 제한속도 초과, 무단 차선 변경 및 급정차 등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고 시에는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 도로변에 주차 시 유료 주차 구역이 아님에도 외국인에게 주차비 명목으로 20~50디나르(한화 300~700원가량)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지불해도 무방하다.

기후

- 한반도의 10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로 인해 지역(해안, 고원, 사막)마다 기후가 차이가 나므로 여행할 도시의 날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인구가 집중된 북부 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6~9월)에는 고온 건조하며 겨울(10~3월)에는 저온 다습하다.
- 수도 알제시 기준 겨울철 평균 기온은 9~15°C이며, 여름철은 평균 20~22°C이나 한여름에는 최고 41°C까지 올라간다.

자연재해

- 2003년 5월 진도 6.8의 강진이 수도 알제 근처의 부메르데스에서 발생하여 2,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8년 1월과 6월에도 오란 지역에서 진도 5.3과 5.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진 이외에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다.
- 이슬람 사원(모스케)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출입 시에는 반바지 차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여자는 머리에 히잡(아랍 여성이 두르는 스카프의 일종)을 착용해야 한다.
- 이슬람 국가이긴 하나, 호텔 및 일부 식당에서는 음주(주로 와인)를 할 수 있으며 주류를 파는 상점도 있다. 구입한 주류는 가방이나 불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휴대하는 것이 좋다.
- 라마단 기간 중에는 일출 후부터 일몰 때까지 음식(물 포함)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거리에서 음료수나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하고 호텔이나 식당 등 가려진 곳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9 Av. Mohamed Khoudi, El-Biar, Algier, Algeria
- 전화 : +213-21-79-3400~2
- 팩스 : +213-21-79-3404
- E-mail : koemal@mofat.go.kr
- 홈페이지 : <http://dza.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213-661-50-6281

근무 시간

- 토~수 : 08:30~17:00(목, 금 휴무일)



비자 정보

- 관공,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비자가 면제된다.
- 일반 여권 소지자는 주한 알제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주한 알제리 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2-6 / 02-794-5034

통관

- 알제리는 이슬람 국가로서 돼지고기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무전기는 사전 승인 없이는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 출입국 시 여권 소지인 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조 여권으로 오인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을 해 둔다.
- 입국 시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외화는 출국 시 반출하지 못한다. 알제리 현지화는 반출이 불가하므로 출국 전에 모두 환전해야 한다.
- 출입국 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후 항공사 부스 옆에 마련된 간이 심사대(Control)에 가서 비행기 탑승권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 출입국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국내선은 비행기 출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선은 1~2시간 지연 출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영 의료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사설 개인 의원도 있다. 진료비는 비싸지 않으나 의료 기술 및 시설 낙후로 인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가벼운 질병은 치료에 무리가 없으나 프랑스어, 아랍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 간단한 약품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나 주사 등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병원은 영어 사용이 불가하며 아래 병원의 일부 진료 과목에 한해 영어로 진찰이 가능하다.
 - CLINIC DIAR SAADA : 021-69-8711
 - CLINIC CHIFA HYDRA : 021-60-4646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7
- 화재 : 14
- 테러 신고 : 1590
- 응급 의료 : 021-67-1616

차량 수리

- 소형 카센터를 통해 차량 수리를 대부분 하고 있으며 현대, 기아 및 유럽 메이저 자동차 회사(벤츠, 푸조 등)는 직영 수리 센터가 있다.

팁 제도

- 음식점에서 식사 후 식사 금액의 5~10%의 팁을 준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전원 플러그 모양은 한국과 동일하여 전자제품 사용 시에 별도로 전원 플러그용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으나, 전압이 불안정하여 전자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여행 가이드 : <http://www.lonelyplanet.com>
- 아프리카 가이드 : <http://www.africaguide.com>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관계로 일상생활에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영어는 특급 호텔을 제외하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현지
치안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2004년 중반 자이디(Zaydi) 시아파(당시 지도자 : Hussein Badr Al-Din Al-Houthi)가 주재국 정부의 친미 태도와 북부 사다(Sa'ada) 지역에 대한 정책 배려 소홀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었으며 정부군과 알-후티(Al-Houthi) 반군 간 전쟁이 사다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군은 주기적으로 반군과 무력 충돌을 벌여오다 2007년 6월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으나, 2008년 1월 초 정부군과 알-후티 반군 간의 전투가 재발했다.
- 2008년 정부군의 알-후티 반군에 대한 공세는 중병기를 동원함으로써 교전 지역 내 많은 가옥과 하부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증대하고, 일부 부족들은 반군에 가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 2008년 7월 중순 주재국 살레(Saleh) 대통령이 북부 사다 지역에서 정부군과 알-후티 반군 간의 전투 종결(cease fire)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했으며, 이에 대해 알-후티 반군 지도자는 살레 대통령의 전투 종결 선언을 수락하는 서한을 주재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 이에 따라 현재 주재국 정부는 사다 지역에 대한 피해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며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사다 지역 재건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7월 중순 및 8월 말 주재국 정부는 주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하여 사다 지역 재건 지원을 요청했다.
- 사다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제 NGO(World Wide Service) 팀원은 사다 지역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이전과 달리 사다 지역 시내를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가 많이 나아짐.

예멘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늦음

화폐 단위 | Riyal

대사관 홈페이지 | <http://yem.mofat.go.kr>

예멘의회 홈페이지 | www.yemenparliament.com



- 수도 사나(Sana'a)와 사다 지역 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 승용차뿐 아니라 물건을 실은 대형 트럭도 순조로이 통행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디젤 등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는 않고 있음.
-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군이 장악하고 있으며,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예멘은 오래전부터 알카에다 등 다수의 국제 및 국내 테러리스트 조직을 위한 은신처가 되어 오고 있으며, 전 지역이 알카에다의 테러 공격 위협 아래에 있는 나라로 수도인 사나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곳이 거의 없으므로 지방 방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관광객들도 정부나 산업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 2000년 이후 주재국 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자행한 테러 행위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10월 남부 아덴(Aden)항 정박 미해군함(USS Cole)에 대한 폭탄 투척으로 미해군 17명이 피살되었다.
 - 2002년 10월 남부 무칼라(Mukalla)항 인근에 정박 중인 프랑스 유조선(Limburg)에 대한 폭탄 투척으로 1명이 사망했다.
 - 2006년 1월 주재국 감옥에 수감 중이던 23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 2006년 9월 주재국 대통령 선거 수일 전 중부 지역 마립(Marib) 및 Gulf of Aden해안 담바(Dabba) 지역 소재 유전 시설에 대한 알카에다의 자살 공격 기도를 주재국 보안군이 사전에 차단했다(2006년 1월 주재국 감옥에서 탈출한 알카에다 조직원 중 일부가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
 - 2007년 7월 마립 소재 고대 유적지 발키(Balqi, 수도 사나에서 160km)에서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스페인 관광객 7명 및 예멘인 2명이 피살되었다.

- 2008년 1월 18일 동부 하드라마우트(Hadramout)주 도안(Do'an) 계곡에서 벨기에 관광객 2명 및 예멘인 2명이 피살되었다.
- 2008년 3월 18일 사나 미국 대사관 인근 여학교에 3발의 박격포가 발사되어 예멘 학생과 미국 대사관 외곽 경비들이 부상을 당했다.
- 2008년 4월 6일 외국인들의 거주 지역에 수발의 박격포가 발사되었다.
- 2008년 4월 10일 사나 핫다 지역 캐나다 석유 회사인 Nexen의 사무실 근처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 2008년 4월 30일 사나 이탈리아 대사관 근처에 2발의 박격포가 발사되었다.
- 2008년 7월 24일 하드라마우트 지역 축제가 이슬람 전통에 맞지 않게 수행되었음을 이유로 이 지역의 세윤(Seyoun)시 정부 건물을 공격하여 7명이 사망하고, 수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예멘에서 지방 부족에 의한 납치는 거의 천년 동안 이어져온 악습으로 지방 부족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도로 건설, 일자리 등을 요구하는 협상 수단으로 외국인 납치나 시설물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납치에 대한 예멘 정부의 강경 조치의 결과로 지난 5년 동안 납치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1998년 1월 3일 수도 사나에서 주예멘 한국 대사관 1등서기관의 부인과 세 살 난 딸이 교민 1명과 함께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수일 만에 무사히 풀려나기도 했다.
- 2005년 12월에 전 독일 외교관과 그의 가족이 납치되었다가 무사히 풀려났고, 그 직후 4명의 이탈리아 관광객이 마립(Marib) 지역 부족에 의해 납치된 후 예멘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협상과 성공적인 구출 작전의 결과로 인질들은 수일 후에 풀려났다.
- 2007년 11월 중순 동부 시바(Shabwa)에서 부족들이 원유 시설 경비대에게 총격을 가해 경비원 10명과 부족 10명이 피살되었으며, 일주일 후 동부 마립-홍해 라스 이싸(Ras Issa) 간 원유 수송관을 폭파했다.
- 총기 소유가 예멘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 따라 성인 1인이 평균 3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 수는 대략 1,700만 정으로 추산된다. 'Small Arms Survey 2007' 에 따르면,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폭력적인 사회 중의 하나이다.
- 일부 부족들은 정부에게 지방 부족들과 부를 나누어 갖거나 부족 분쟁을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나 다른 비싼 장비를 강탈하기도 한다.
- 잦은 총기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족이나 집안 간의 갈등이 종종 총격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4년 동안 발생한 45,000건의 범죄 중 50%가 총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 외국인들 납치 사건이나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이 근절되지 않고 활동하며 예멘을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총기나 화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테러의 위험 및 시위 사태

- 예멘에서는 테러 공격의 우려가 높아 누구든지 테러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극도의 주의와 철저한 신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 2007년 8월 마립에 있는 발전소가 공격당했으며, 2007년 7월 스페인 관광객 7명 및 예멘인 2명이 피살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 예멘 정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분노로 지난 2007~2008년 간 아덴(Aden), 타이즈(Taiz), 이브(abb), 무칼라(Mukalla) 등 남부 지역에서 지속적인 시위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책]

- 호텔, 클럽, 레스토랑,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외국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은 출입을 자제한다.
- 특히 예멘 중부 마립(Marib) 지역은 테러 공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여행을 삼간다.
- 시위자들의 행동이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매체를 통해 시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방문을 삼간다.

[사례 2] 납치

- 지방 부족에 의한 외국인 납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책]

- 대도시를 벗어나 여행하는 경우 무장 경찰 호위하에 단체 여행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 사나 외곽으로 단독 여행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지방을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므로 지방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사례 3] 노상 차량 강탈

- 무장 괴한에 의한 노상 차량(특히 4륜구동) 강탈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

[대책]

- 운전할 때는 창문을 잠근 상태로 운전하고, 차량을 장시간 길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귀중품은 차 안에 보이도록 두지 않는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사다(Sa'ada), 마립(Marib), 샤브와(Shabwah), 하드라마우트(Hadramout), 알조프(Ai Jawfi), 아비안(Abyan), 다르마르(Dharmar), 암란(Amran) 등지는 테러 위협과 지방 부족에 의한 납치 등의 이유로 필수 여행을 제외하고는 자제해야 한다. 이 지역 방문을 원하는 사람은 예멘 정부(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마립, 샤브와 및 하드라마우트 지역은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여행 자체가 강력히 권고되는 지역이다.
 - 2007년 8월 마립 지역에서 자동화기와 로켓포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발전소와 군사 및 정부 시설을 공격했다.
 - 2007년 7월 마립 지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스페인 관광객 7명과 예멘인 2명이 피살당했다.
 - 2007년 6월 샤브와 지역에서 무장 괴한이 미국 석유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 2008년 1월 18일 동부 하드라마우트주 도안(Do'an) 계곡에서 벨기에 관광객 2명 및 예멘인 2명이 피살당했다.
- 아덴-타이즈-사나 간 고속도로 노상을 비롯하여 알조프, 아비안, 다르마르, 암란 등지는 예멘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지방 부족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대중교통

- 사나 등 도시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택시와 미니밴이 있으나, 차량의 안전 기준과 장비가 결여되어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 노선버스는 없다.
- 부득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미터기가 달린 회사 택시(Raha)를 이용하면 안전하며 또한 바가지요금을 방지할 수 있다.
- 사나와 지방 도시 간 이동 수단으로 버스가 있긴 하지만, 차량 정비 상태가 불량하고 과속을 일삼아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

- 예멘 사람들의 운전 습관과 차량 상태가 매우 나쁜 편이며, 대부분의 도로에 가로등이 없고, 라이트가 고장 난 차가 많아 해가 진 후에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도로 공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등과 경찰관이 있어도 교통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
- 역주행하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 택시나 미니밴 등은 손님을 태우거나 내릴 때 다른 차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내릴 때는 알아서 좌우앞뒤를 잘 살피고 내려야 한다.
- 도시 간 고속도로는 비교적 포장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시골 도로는 거의 포장 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4륜구동 차량을 타야 한다.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벌금형이나 구속 수감될 수 있다. 인명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최장 3년 감옥형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가 측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

- 예멘의 기후는 고도에 따라 다양하다.
- 해안 저지대는 고온 다습(15~40°C)하며 일 년 내내 무덥고 먼지가 많다.
- 고원 산악지대는 온화하고 건조(0~25°C)하며 여름에 다소 더운 편이나 겨울철 (11~2월)에는 밤에 추위를 느낄 정도이다.
- 사나 지역은 습도가 높지 않아 온도가 높아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 겨울에는 약간 쌀쌀하며, 여름철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적합한 날씨이다.

자연재해

- 예멘은 남서부에 예멘 고원(해발 고도 450~1,500m), 동북부에 룽알할리 사막이 있으며, 남동부 해안선을 따라 좁은 해안 평원, 서부 홍해 연안을 따라 넓이 25~40km 의 해안 평야지대인 티하마(Tihama) 평원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원인으로 지진, 홍수 및 바위 붕괴 등의 천재지변에 노출되어 있다.
- 2005년 1년 동안 2,485회의 지진이 관측되었으며, 수도인 사나 지역을 비롯하여 하자(Hajja), 알-마위트(Al-Mahwit), 알-베이다(Al-Beidha), 야파(Yafa) 및 사다(Sa'ada) 등지에서도 광범위한 지진 활동이 관측되었다.
- 예멘 남부 다르마르 지역에서 1982년 12월의 대지진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약 3,000명의 인명 피해와 5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 예멘 중서부에 위치한 40여 개의 산악 지역은 자연 침식 현상으로 인해 바위 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 2005년 12월 28일 거대한 바위가 수도에서 서쪽으로 42km 떨어진 Al-Dhafeer 마을을 덮쳐 65명의 인명 피해와 가옥 16채가 파손되었다.
- 예멘의 해안 저지대와 북동부의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에 불과한 영농 불모지대이나, 남서부 고원지대는 연평균 강수량이 400mm이고 일부 지역은 750mm에 이르기도 한다. 다르마르, 호데이다, 이브, 사나, 타이즈 등지에서는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6월부터 9월 사이가 몬순(monsoon) 계절이기 때문에 폭우로 인해 때때로 홍수가 발생한다. 사전에 여행지에 대한 기상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 모래 및 먼지 폭풍우도 자주 발생하며, 지진 및 화산지대에 위치해 있다.





옷차림

- 예멘 여자들은 자신의 몸과 머리카락을 필히 가려야 한다. 히잡(hijab)이라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기 위해 긴 드레스 같은 발토(balto)를 입는다.
- 외국인 여성들도 검정색 발토를 입으면 예멘 남성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본인 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다. 여성들은 여행 시 가급적 남자와 동행을 하고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가 많이 드러나는 옷은 피하는 것이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예멘 남자들은 따옴(Thoub) 혹은 잔나(Janna)라는 하얀 옷을 입는다. 발토와 다름 없이 긴 소매가 달린 긴 치마라고 볼 수 있다. 보통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기도하러 갈 때 입는다. 그리고 '잠비아' 라는 칼을 몸 앞쪽에 꽂고 다닌다.
- 관광객이 성지 같은 장소를 방문할 때는 짧은 옷보다는 긴 소매 옷과 바지를 입는 것이 좋으며, 모스크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관습

- 서로 인사할 때 전통적으로 악수를 하므로 방문객도 현지인을 만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좋다. 단 악수를 하거나, 음식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 고아원이나 양로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예멘에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적은 돈을 주거나 검지로 하늘을 찌를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치안법령

- 술이나 마약은 공공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사나 시내 일부 식당에서는 술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파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방문객은 정부 건물, 군사 시설, 여자, 경찰관 등의 사진을 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공개적으로 이슬람 외의 종교를 설교하거나 전도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다.
- 라마단 기간 동안 일출과 일몰 사이 음식 및 음료 섭취, 흡연은 무슬림에게 금지되어 있다. 방문객은 현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8년 라마단 기간은 9월 1일~9월 30일까지이며 매년 13일 정도 앞당겨진다.
-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은 예멘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형사법상 유죄로 인정되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동성애도 불법이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House No. 4(off iran Street), Hadda Area, Sana'a, Yemen



- 전화 : +967-1-431-801~4
- 팩스 : +967-1-431-805
- E-mail : yemen@mofat.go.kr
- 홈페이지 : <http://yem.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967-7343-60003

근무 시간

- 토~수 : 08:30~17:00(점심시간 12:00~13:30 / 목, 금 휴일)

비자 정보

- 입국
 - 예멘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출발지 국가에 있는 예멘 대사관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서울에서는 주한 예멘 명예 영사관(<http://www.yemen.co.kr>)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2005년 7월 이후부터 G-8, EU, GCC 및 일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들은 예멘 공항 도착 시 방문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단수 여권을 소지하고 예멘을 출국하는 것은 인정하나, 단수 여권으로 예멘 입국 시에는 출발지 국가에서 비자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인정해 준다. 단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예멘 공항에서 방문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 출국 시에는 여행증명서 소지를 인정하나, 예멘 입국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이스라엘 입국 비자나 이스라엘 입출국 스탬프를 여권에 소지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관에 의해 입국이 불허된다.
 - 출국
 - 예멘의 이민법에 따라 예멘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예멘을 떠나기 전 출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에서 출국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출국 일자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권을 분실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 ※ 외국인들이 반드시 사나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 중의 한 명이 예멘 사람이나, 이 부모가 예멘을 함께 출국하지 않는 경우
 3. 입국 비자가 들어 있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4. 예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거주 비자의 목적이 고용이나 유학인 경우



5. 현지인과 혼인을 한 경우

예방접종 및 건강

- 사나에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콜레라나 말라리아 예방접종은 하는 게 좋다.
- 특별한 풍토병은 없으나, 해안 저지대(호데이다, 아덴 등)에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수도물은 식수로서 부적합하며 병에 넣은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게 안전하다.
- 사나는 2,400m 고지대로 산소가 평지의 60~70% 정도로 고혈압 및 저혈압 환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통관

- 방문객에게 허용되는 면세품 수량
 - 담배 600개비(시가 60개비 혹은 토바코 450g)
 - 주류 2병(비무슬림에게만 허용)
 - 향수 1병
 - 100,000에멘리알을 초과하지 않는 선물
 - 여성들은 금 350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음란물, 반무슬림 및 이스라엘 관련 출판물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 진료비가 매우 비싸고 병원과 의사는 진료비 선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Yemen German Hospital' 과 같은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의료 시설은 사나와 아덴 정도에서만 존재하고 대도시와 떨어진 곳은 현대적인 의료 시설이 없으며 구급차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 약품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의약품은 충분히 지참하는 것이 좋다.
- 한국인 의사 근무 병원
 - Sana'a Korean Medical Center(문의의사 : Dr. John Park) : +967-1-234-808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사건사고 및 범죄 신고 : 199(에멘 전역에서 사용 가능) / 01-270-440
- 화재 신고 : 191
- 교통사고 : 194
- 전화 문의 : 118

- 외교부 : 01-202-544/7
- 내무부 : 01-252-701
- 이민국 : 01-250-761/3
- 시외버스 회사 : 01-262-111
- 적십자 : 01-203-131

차량 수리

- 간단한 고장은 현지 정비소에서 고칠 수 있으나, 부품 교환이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팁 제도

- 호텔, 레스토랑 등지에서 보통 5~10%의 봉사료를 지불한다.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팁 문화가 없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230V / 50Hz
- 플러그 어댑터를 이용하면 한국 제품도 사용 가능하다.

예멘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예멘 관광부 : <http://www.yementourism.com>
- 예멘 안내 : <http://www.al-bab.com/yemen>
- 안내 책자 : 《Yemen》, 저자 Daniel McLaughlin, 출판사 Bradt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현지 일반인과의 영어 소통은 거의 불가능하다.

| 07

중동

Oman



오만



시차 | 한국보다 5시간 늦음
화폐 단위 | Riyal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mn.mofat.go.kr>
오만정부 홈페이지 | www.omanet.om

-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야간에 이동하거나 제3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택시는 가급적 여성 혼자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이용함이 안전하다.
 - 여성이 야간에 혼자 외출할 경우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 현지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과속, 난폭 운전이 심하다.
 -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해서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 교외 지역을 운행할 경우 도로변에 방목하고 있는 낙타, 양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겨울철(11~2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기후

- 서부 내륙 지방은 전형적인 사막성 기후로서 연중 고온 건조하나 수도 무스카트를 포함한 해안 지방은 고온 다습(최고 기온 49℃)하다.
- 국토 최남단 도파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여 일부 열대작물 재배가 가능하며 6~9월 몬순 기간 중에는 안개비가 내린다.
- 무스카트를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은 최고 48℃, 최저 13℃이며 습도는 연평균 최고 100%, 최저 4%이다.
- 강우량은 해에 따라 연평균치가 40~250mm로 큰 편차를 보이며 우기가 별도로 없으나, 단시간 동안 폭우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재해

- 2007년 6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이 무스카트 지역을 강타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오만 경찰의 다수가 부업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으므로 운전사에게 주재국 정책이나 국왕의 치세 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 신체가 많이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 차림이나, 여성의 경우 몸매가 드러나는 노출된 복장이나 타이트한 옷은 가급적 입지 않도록 한다.
- 라마단 중에는 공공장소 및 실외에서 음료,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삼가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Way No. 3023, Bld. No. 1921, Shati Al Qurm, Muscat, Sultanate of Oman (P.O.Box 377, Madinat Qaboos, Postal Code 115)
- 전화 : +968-24691490~2
- 팩스 : +968-24691495
- E-mail : emboman@mofat.go.kr
- 근무시간 : 08:00~14:30(점심시간 없음 / 목, 금 휴무)
- 홈페이지 : <http://omn.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사공효식 서기관) : +968-99357254



비자 정보

-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2004년 11월 1일부터 관광, 통과 목적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오만 공항에서 단기 입국 사증(30일)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60일 체류가 가능하다.
- 통상 2년 기간의 장기 거주 사증은 오만 내 스폰서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통관

- 술 : 비무슬림인 경우에 한해 가족당 2병(2리터)
- 담배 : 480개비
- 향수 : 개인 사용에 한해 2~3병(227리터)까지 통관 허용
- 면세 한도 금액 : 여행 중 사용이 필요한 개인 물품에 대해 면세
- 외국환 신고 : \$20,000를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 의약품 : 중독성 마약류는 반입 금지, 개인 치료용 의약품은 통관이 허용된다.
- 식품 : 개인용 식품은 반입이 허용되며, 돼지고기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 반입 불허 품목 : 무기, 총기류, 폭발물, 포르노물, 대추야자, 꿀벌, 콜레라 발생 지역에서 반입되는 비통조림 식품 등
- 비디오테이프는 8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나, 세관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 압류하여 검열한다(통관에 약 1주 소요됨).
- 애완동물 통관 시에는 출발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건강 증명서와 애완동물의 경우 광견병 예방주사(1~6개월 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국하기 전에 오만 농수산부의 애완동물 통관 허가증을 사전에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 수도 무스카트에 술탄카부스 대학병원, Royal 병원, 쿠알라 병원, 알나흐다 등 4개의 국립 종합병원이 있다.
-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다. 진통제, 간단한 감기약을 구입할 때는 필요 없다.
- 매일 일간지에 야간 약국명과 전화번호가 게재되며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이 있다.

긴급 사항 시 연락처

- 경찰 및 화재 신고 : 999
- 긴급 의료지원 : Royal Hospital(2875055) / Sultan Qaboos Univ, Hospital(24211151) / Khoula Hospital(24563625)

차량 수리

- 자동차 판매 회사의 자체 정비 공장에서 수리하며 기타 개인 차량은 정비 업소에서 수리가 가능하다.

팁 제도

- 세금과 함께 봉사료가 8% 부과되므로 팁은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전력 사용 현황

- 220~240V / 50Hz

오만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여행 안내 : <http://www.destinationoman.com>

언어

- 공용어 : 아랍어(영어도 통용됨)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기타
참고사항

| 08

중동

Jordan



요르단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화폐 단위 | JD
대사관 홈페이지 | <http://jor.mofat.go.kr>
레바논 정부 홈페이지 | www.nic.gov.jo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1946년 독립 이래 이스라엘과 두 차례 전쟁(1967년 6일 전쟁,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을 겪었으나,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2005년 11월 테러(알카에다에 의한 호텔 3곳 자살 폭탄 테러로 60명 사망) 이후 요르단 정부의 테러 위험 방지 및 치안 강화 노력에 의해 현재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 요르단의 가장 중요한 관광 산업 보호를 위해 테러 예방 및 공공 안전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관계로 관광객이 느끼는 위험 요소는 많지 않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치안 상태

- 이슬람 국가로서 경건한 생활습관과 여성에 대한 보호의식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주 사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 외국인에게 상당히 친절한 편이며, 종교적 언행으로 인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신변 위협은 크지 않은 편이다.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 목적을 제외한 형사상 범죄로서 살인, 강도, 납치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신용카드 위조

- 신용카드는 호텔, 유명 식당 등에서 활발히 통용되고 있으나 가끔 일부 식당에서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지
치안 상황



[대책]

-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는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말고 직접 카운터에 가서 계산한다.

[사례 2] 기념품 가게 폭리

- 사해 화장품, 기념품, 공예품 등에 대해 대형 기념품 가게에서는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명 관광지 주변 기념품 가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대책]

- 기념품이나 선물을 살 때는 현지인과 동행하는 게 좋다.

교통수단

• 시내버스

- 운행 구간이 많지 않고 탑승 시까지 장시간 대기해야 하므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요금은 0,15JD, 우리 돈으로 약 200원이다.

• 택시

- 관광대국의 특성상 많은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요금은 미터제로서 2008년 8월 말 현재 기본요금은 0,25JD이다.
- 택시는 상당히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택시 운전사들도 매우 친절하다. 다만 영어가 통하지 않는 운전사가 약 50% 정도 되므로 승차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타야 한다.
- 택시 미터기 요금 표시에 소수점이 표시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기본 요금이 0,25이지만 미터기 요금 표시는 250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외국인이 25JD를 지불할 경우 우선 운전사가 굉장히 놀라며, 일부는 관광객임을 악용하여 그대로 받기도 한다.

• 열차

- 열차는 승객용으로는 거의 운행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

- 수도 암만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 및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잘 구비돼 있으며, 포장 상태도 양호하다.
- 다만 상당수의 도로들이 인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 시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통행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은 우측통행, 사람은 좌측통행이다.



기후

- 반 건조성, 지중해성 기후이다.
- 여름은 기온이 18~32°C로 고온 건조하며, 겨울은 4~12°C로 선선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감기에 주의해야 한다.
- 수도 암만은 해발 800m에 위치해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한 편이며, 높은 지대로 인해 노약자 및 어린이가 두통이나 호흡 장애에 시달리거나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다.
- 봄, 여름철에 덥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꽃잎, 꽃가루 등이 신체 부위에 닿게 되면 두드러기 증세(특히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사람)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경우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안질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사막 국가의 특성상 공기 중에 미세 먼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외선이 강렬하므로 외출 시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자연재해

-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으나 5~6월에는 사막에 돌풍을 동반한 황사현상으로 인해 가끔 도로가 차단되거나 공항이 폐쇄되기도 한다.

- 요르단은 회교도가 94% 이상을 차지하는 이슬람 국가이나, 기독교 등 여타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 단, 포교 활동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종교법을 어길 경우 추방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니 유의해야 한다.
- 관공서, 식당, 상점 등에 불일을 보러 가면 일 처리가 매우 느린 편이다. 최근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국민에 비해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다.
- 질서의식이 희박하여 새치기가 빈발하지만 현지인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바, 지나친 과민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만, 라마단에는 금식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슬람 국가의 교리상 돈이나 물건을 건넬 때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 그러나 현지인의 종교 관습을 존중하여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 주변국의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관공서, 공항, 항만시설, 군사기지, 국경지대 등에 대해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곳이 많으므로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한다.
- 현지 여성에 대한 사진 촬영은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특별히 여성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복장 제한은 없으나, 이슬람 관습을 존중하여 어깨가 드러나는 티셔츠나 반바지 차림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종교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 인신 구속 등 강경한 조치가 수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이 현지 범죄 행위로 인해 인신 구속을 당할 경우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뜻밖의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사관(안치연 영사 : 079-551-3319)이나 한인회(이태인 회장 : 077-777-0601)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P.O.Box 3060, Amman 11181, Jord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전화 : +962-6-593-0745~6
- 팩스 : +962-6-593-0280
- E-mail : jordan@mofat.go.kr
- 홈페이지 : <http://jor.mofat.go.kr>
- 24시간 비상연락망
 - 안치연 영사 : +962-79-551-3319
 - 주정훈 부영사 : +962-79-560-0316
 - 이태인 한인회장 : +962-77-777-0601
 - 백운기 한인회부회장 : +962-79-592-1918

근무 시간

- 일~목 : 08:00~16:00(금요일, 토요일, 한국의 신년,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요르단 공휴일 휴무)
- 라마단 기간 : 08:00~15:00
- 라마단 기간 현지 관공서 및 회사 근무 시간 : 08:00~14:00
- ※ 요르단의 공휴일
- 기독교도인 경우 일요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관공서에 출근하지 않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 금요일에는 이슬람교계 상점은 휴업을 하는 반면 기독교계는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으며, 관공서는 금, 토요일이 휴무이다.
- 기타 공휴일
 - 1월 1일 : New Year
 - 1월 30일 : King Abdullah Birthday
 - 5월 1일 : Labour Day
 - 5월 25일 : Independence Day
 - 6월 10일 : Army Day
 - 11월 14일 : King Hussein's Birthday
 - 기타 이슬람 월력에 의한 Mawlid Al-Nabl(The Prophet's Birthday), Isra Al-Maaraj, Eid Al-Fitr, Eid Al-Adha, Islam New Year, Al-Ashoura 등의 공휴일이 있다.



사증 및 노동 허가

-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국 전 주한 요르단 명예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입국 시 공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10JD, 약 \$14이다.
- 주한 요르단 명예 영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화재 해상보험 1층 해외영업부
 - 전화 : 02-3701-8474

예방접종

- 입국 시 특별한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말라리아, 황열병 등 풍토병은 없다.

통관 및 공항 출입

- 출입국 시 입출국 신고서 작성은 필요 없다.
- 세관 신고서는 없으나 모든 여행객의 수하물은 반드시 X-ray 검색대를 통과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퀸 알리아(Queen Alia) 국제공항은 암만 시내(공항 위치)에서 약 35km 거리이며 30분 정도 소요된다.
 - 공항은 터미널 I, 터미널 II로 구분되어 있으며, 터미널 빌딩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 양쪽 터미널을 도보 왕래할 수 있다.
 - 공항은 크게 붐비지 않으며, 탑승 또는 수속에 30분 정도 소요된다.
 - 모든 출입국 여행객들은 면세점(Duty Free Shop) 이용이 가능하다.
 -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 사건과 이라크전 이후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물건은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면세 반입 가능 품목
 - 주류 2병
 - 담배 2보루
 - 향수 2병
 - 6개월 이상 사용한 개인 생활용품
 -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오디오세트, 휴대폰
- 반입 금지 품목
 - 비가공 농수산물, 마약, 군수품 및 무기류, 상아, 가죽, 외설 서적 및 DVD, 보석류, 인화성 물질, 부탄가스 등
- 입국 시 현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출국 시에는 미화 \$10,000를 초과할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므로 환전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휴대해야 한다.

- 상기 규정을 위반 시에는 몰수, 인신 구속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출국 시 공예품, 예술품 등에 대한 제재가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된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해야 하며,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요르단의 의료 시설 및 의료진은 중동 지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응급 체계도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
- 약국에는 다양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약품 구입 시 주사약이나 항생제 등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설사약, 알레르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웬만한 중소 도시에도 약국이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다.

기타 참고사항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서 : 절도범 침입 등 보안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에 긴급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 경찰 : 192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경찰국에 연락 : 489-6390
- 화재 발생
 - Amman fire brigade : 199
 - Civil Defence Rescue : 463-0341
- 긴급 의료기관(응급) : 195
- 앰블런스 요청 : 국번 없이 193, 77-5111

팁 제도

- 식당 이용 시 식대에 세금(16%) 및 서비스 봉사료(10%)가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가 특별히 좋은 경우 약간의 팁을 주는 것도 괜찮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다.
- 여름철 서머 타임을 실시할 경우 한국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전압은 한국과 동일하나 플러그 모양이 상이하므로 어댑터가 필요하다. 시중 슈퍼마켓에서 멀티 어댑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 불안정한 전압으로 인해 음향기구나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전원 주파수(Hz)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전자레인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 암만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는 영어도 널리 통용된다.

주요 기관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 08:30~15:00
- 우체국 : 08:00~14:00
- 상점 : 08:00~20:00 / 금, 토요일 휴무
- 박물관 관람 시간 : 09:00~17:00 / 화요일 휴무
- 아랍식당 : 09:00~23:00(금요일은 14:00 이후부터 영업) / 중국 식당 등 외국 식당 : 12:00~15:30, 18:00~23:30 동안 영업하며 휴무일은 없다.

기타

- 환전
 - 환율은 US\$1=0.708JD(미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이며, 암시세는 없다. 은행, 호텔, 시내 환전소 등에서 환전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용 환경
 - 인터넷 전용 라인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모뎀을 사용하고 있다.
 - 한국에 비해 속도가 떨어지나 가입은 쉬운 편이다.
 - 4, 5성급 호텔은 대부분 무선 인터넷을 구비하고 있어 로비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할 수 있다.
- 수돗물
 - 석회질이 많고 수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식수로 사용할 경우 신장 결석증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생수를 사서 마신다.
- 미용 및 이발
 - 호텔 내 미용 요금은 25~30JD, 이발료는 5JD이며, 5%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상례이다.

| 09

중동

Iran



이란

시차 | 한국보다 5시간 30분 늦음

화폐 단위 | Rial

대사관 홈페이지 | <http://irn.mofat.go.kr>

이란정부 홈페이지 | www.parstimes.com/gov_iran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이란은 서부 이라크, 터키 접경 지역과 동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접경 지역이 치안 불안 지역이다.
- 특히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국경 지역인 시스탄-발루체스탄주 지역은 소수 민족(발루치족)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요 마약 밀매 경로이자 반군들의 활동 지역이다. 이슬람혁명(1979) 이래 이 지역에서 이란 정부 군경과 마약 관련 테러 단체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 약 15,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외국인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여행하기엔 위험한 지역이다.
- 2007년 10월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 지역을 여행 중이던 일본인 대학생이 무장 단체에 피랍되어 시스탄-발루체스탄주 지역에 억류되었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 2007년 2월에는 시스탄-발루체스탄주 접경 지역인 자헤단(Zahedan, 테헤란으로부터 1,300km)에서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대원을 태운 버스를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이라크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이란 남서부 국경 지역인 쿠제스탄주는 이라크계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 분쟁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 서부 국경 지역인 코르데스탄주는 자치를 요구하는 쿠르드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쿠르드 반군과 이란 군경과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지역으로의 여행은 삼간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이란의 치안 상태는 일부 테러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파키스탄 및 아



현지
치안 상황

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남동부의 시스탄-발루체스탄주 지역, 서부 이라크와의 국경 지역, 서북부 아제르바이잔주 지역, 남서부 쿠제스탄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나, 청년 실업률이 높아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최근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강도, 납치 등 강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특히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엄격한 이슬람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란 체류(여행) 중에는 이슬람의 가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경찰 위장 범죄

- 경찰로 위장한 자들에 의한 외국인 차량 탈취, 현금 강탈, 폭행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3~4인이 한 조가 되어 가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차량 검문, 마약 단속을 핑계로 차에서 내리게 하여 폭행한 후 차량을 탈취하거나 소지품과 몸을 수색하는 척 하면서 지갑 등을 강탈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 이들은 주로 경찰 순찰차와 색깔이 비슷한 'Paykan' 승용차를 이용한다.

[대책]

- 외출 시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가능한 한 적게 소지한다.
- 차량을 운전할 경우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를 주로 이용한다.
- 보행할 경우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도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례 2] 오토바이 날치기

- 수도인 테헤란뿐 아니라 지방 중소 도시에서도 오토바이에 의한 날치기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대책]

- 핸드백이나 가방은 도로 반대편 손으로 든다.
- 현금은 가급적 적게 소지하고, 여권이나 신분증은 사본을 반드시 준비해 두고 가급적 핸드백이나 가방에 넣지 말고 안전한 곳에 둔다.

[사례 3] 택시를 이용한 범죄

- 택시를 이용한 강도, 납치 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대책]

- 택시는 반드시 콜택시 또는 '택시 Agency'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경우는 공항 내 택시 정류장(Airport Taxi라는 사인이 있음)에서 정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길거리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는 번호판이 오렌지색 또는 오렌지색 선이 들어 있는 정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사례 4] 소매치기

- 버스터미널, 쇼핑센터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외국인들이 소매치기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터미널 등에서 수면제가 혼용된 음료를 이용한 강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대책]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갈 경우 귀중품 등은 안전한 주머니에 보관하고, 가방 및 핸드백은 앞쪽으로 든다.
-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수는 절대 받아 마시면 안 된다.

[사례 5] 마약 사범

- 마약 사범은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므로 부지중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마약을 소지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책]

-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신 짐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부탁을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 감언이설로 마약 복용을 권하더라도 절대 응용해서는 안 된다.

[사례 6] 친한 척 접근함

- 바질(쇼핑센터)이나 시장 등에는 몇 마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현지인들이 친한(親韓) 인사임을 가장하며 접근하여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어 믿게 한 후 한국 비자 발급에 협조를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
- 무심코 건네준 주소나 명함,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이 다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대책]

- 거리에서 모르는 현지인이 접근하여 극진한 친절을 베풀어도 현혹되지 말고, 부탁을 들어주거나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서부 이라크 국경 부근 전 지역
 - 이라크 저항 세력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 부근 전 지역 및 시스탄-발루체스탄주 지역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에서 넘어온 무장 마약 밀매 조직과 이란 경찰의 산발적인 충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조직에 의한 외국인 납치, 살해 사건이 수시로 발생한다.



- 이란 서북부의 코르데스탄주, 아제르바이잔주(East&West), 케르만샤주, 남서부의 쿠제스탄주 지역
 - 이란 내 소수 민족(쿠르드족, 아랍족, 아제르바이잔인)에 의한 폭탄 테러 등 반정부 시위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

대중교통

• 버스

- 각 도로마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류장 근처의 매표소에서 버스 티켓을 구입 후 탑승 가능하다.
- 탑승 요금(국영 버스 200Rial, 민영 버스 1,500Rial)

• 기차

-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용이하며, 장시간 이동 시에는 침대칸을 이용할 수 있다.
- 테헤란 ↔ 마샤드 : First class 240,000Rial(한화 약 24,000원) / Second class 160,000Rial
- 테헤란 ↔ 이스파한 : 6인 침실 1인당 50,000Rial / 4인 침실 1인당 79,000Rial
- 테헤란 ↔ 케르만 : First class 64,500Rial / Second class 40,500Rial

• 지하철

- 테헤란 동-서 구간 운행 중이다.
- 이란 중부 이스파한 도시는 현재 공사 중(201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 탑승 요금 : 2,000Rial 티켓으로 모든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 구간 택시(모스타짐) : 정해진 노선 없이 운행하며, 시내 원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면 된다. 합승이 가능하며 탑승 요금은 기본요금인 2,000Rial이다.
- 구간 택시(다르바스) : 한국과 같이 길거리에서 타는 택시로 합승은 불가능하다. 탑승 요금은 기본요금 30,000Rial이다.
- 콜택시(어전스 택시) : 전화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가장 안전하다. 요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본요금은 20,000Rial이다.

• 대중교통 이용 팁

- 장거리 여행 시에 야간 기차를 이용하면 숙박비 절약 및 안전 여행을 할 수 있다.
- 테헤란에서 타 도시로 이동할 때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고, 타 도시(관광 도시)에서는 영어 소통이 가능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하루 콜택시 이용 요금은 300,000~500,000Rial 정도이다.

도로 교통

- 대부분의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에 잘 되어 있는 편이나, 일부 도로에는 군데군데 파인 곳이 있어 타이어 펑크의 위험이 있다. 2008년 9월부터 아스팔트 보수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도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 불법 주차 시 벌금은 100,000Rial이며 고속도로 역주행, 불법 주차, 차선 불이행, 폭주족 등 대부분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고 위험이 높다.

기후

- 카스피해 및 서북부는 지중해성 기후이며, 내륙 고원은 사막성 기후, 페르시아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이다. 테헤란을 포함한 북부 지역은 한국과 같은 사계절이 있다.
- 연평균 기온은 10~30°C이며 사막 지역은 여름철 50°C까지 상승하며, 테헤란 지역 및 북부 카스피해 지역의 겨울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기도 한다.
- 연평균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평균 300~350mm에 불과하나 카스피해 연안은 2,000mm에 달해 인구 조밀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재해

- 지질학적으로 지층이 매우 불안정한 단층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는 국립방재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nidp.go.kr>)를 참고한다.
- 2008년 밤(Bam)에서 진도 6.7의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 전체 인구의 60%인 3만 명이 사망했다.

이슬람 문화와 풍습

- 이슬람 율법의 여성은 손발을 제외한 몸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며, 실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머리에 스카프(루싸리)를 두르고 엉덩이를 덮는 코트(차도르, 히잡, 망토)를 착용해야 한다. 사원 방문 시 여성은 반드시 차도르를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 남성은 반바지나 민소매 차림으로 외출할 수 없다. 최근 이란 정부는 이슬람 복장 규정을 강화했으며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 외국인 여성이 이란 남성과 동행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할 경우 풍속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 주류는 물론 돼지고기의 반입은 금지되며, 포르노 잡지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 나와 있는 잡지나 서적, 록, 팝 등 테이프나 CD, 서적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세관이나 경찰에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 촬영

- 공항, 군사시설, 국경지대, 주요 관공서 지역에서의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 사진 촬영 금지 지역에서 촬영을 할 경우 자칫 스파이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

종교 활동

- 이슬람 외 공공장소에서의 타 종교의 선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단 여행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라마단 기간에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라마단 기간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좋다.

타로프(Taarof) 문화주의

- 타로프는 정확한 번역어가 없는 이란 고유의 단어로서, 칭찬 혹은 체면 문화를 뜻한다.
- 상대방이 가진 물건을 칭찬할 경우 물건 주인은 체면을 위해 칭찬한 자에게 그 물건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진짜 가지려고 한다면 그 주인은 매우 불쾌해한다.
- 택시를 타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주인이 우린 친구이므로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이란의 타로프이므로 여러 번 실랑이 끝이라도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한다.
- 남의 아내를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은 그 아내를 탐한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 어린이를 칭찬할 경우, 반드시 '머살라(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말하며 주위에 있는 사물을 툭툭 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어린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칭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비난 받을 수 있다.
- 식사 초대를 받는 경우, 꽃이나 과자를 선물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선물을 건넬 때 항상 약소하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식사를 마칠 때 약간의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절이다.
- 선물을 받을 때는 곧바로 개봉하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기타

- 타인 앞에서 방귀를 끼면 상대방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생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하품을 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하며, 하품을 했을 때 진지하게 '신의 용서를 빕니다' 라고 말한다. 하품을 할 때 악마가 입속에 침을 뱉거나 방노한다는 미신이 있다.
- 한국인에게 최고라는 표시인 엄지를 치켜드는 행위는 이란에선 욕으로 받아들인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No.18, West Daneshvar st, Shaikhbahai ave, Sheikhbahai sq, Tehran, Iran, (P.O.BOX 11365-3581 Tehran, Iran,)
- 전화 : +98-21-8805-4900~4
- 팩스 : +98-21-8805-4899
- E-mail : emb-ir@mofat.go.kr
- 홈페이지 : <http://irn.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98-912-105-1662

근무 시간

- 일요일~목요일 : 08:30~16:30(점심시간 12:00~13:30 / 관계관 별도 추가 근무)

영사협력원 연락처

- 휴대폰 : +98-912-324-0791
- E-mail : seongeunlee@gmail.com

비자 정보

-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 소지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비자 획득이 필요하다. 입국 후 외무부에서 2년 기한의 멀티플(Multiple)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외교관 : Diplomat Multiple Visa, 관용 여권 : Service Multiple Visa)
- 일반 여권 소지자는 공항에서 사전에 비자 없이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 등 일반 목적 방문자에게는 7일, 여행 목적 방문자에게는 3일의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때 초청자 측의 서한이나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예방접종

- 전염병 및 풍토병이 없으므로 특별한 예방접종이 필요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란을 경유하여 타 국가로 여행을 갈 경우 국가 특성에 맞춰 황열병,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광견병, 파상풍, 폴리오, MMR, 말라리아 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통관

- 여성은 공항 도착부터 출국까지 룽코트 및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
- 통관 금지 품목 : 술, 돼지고기, 비디오테이프(특히, 이슬람 문화에 위배되는 테이프 등), 음란물, 잡지 등은 모두 몰수하며 심문을 받을 수 있다.
- 골동품 등은 반출이 불허되나, 카펫은 1인당 1장(2m×3m)씩 허용된다. 영수증은 필히 지참해야 한다.



긴급 영사
연락망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의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요구된다. 단, 감기약 등 간단한 약품은 약국에서 처방 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 노동 허가와 거주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주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절차도 까다롭고 소요 시간도 많이 걸려 실행이 전 무한 상태이다.
- 국립 병원은 기본 치료비가 30,000Rial(한화 약 3,000원) 정도이고, 개인 병원은 100,000Rial 정도이다.
- 각 구역마다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이 있다.
- 영어 사용이 가능한 병원
 - Day(종합병원) : 021-8887-0050~8
 - Jam(종합병원) : 021-8883-3133~9
 - Tehran Clinic(종합병원) : 021-8871-8113~6
 - Mehr(종합병원-피부과 전문) : 021-8896-0081~9
 - Mehrad(종합병원-산부인과 전문) : 021-8874-7401~9
 - Noor(안과) : 021-8870-2700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29
- 화재 : 123, 955554, 954444, 952222
- 긴급 의료기관 요청 : 129
- 앰블런스 : 123

차량 수리

- 현대자동차, 벤츠 등 외국 수입 차량 직영 서비스 센터가 있다. 개인 서비스 센터도 곳곳에 많이 있다.
- 부속품 조달이나 서비스 제도가 낙후되어 있어 차량 수리에 어려움이 있다.

팁 제도

- 고급 식당, 호텔 등에서는 15% 서비스료가 함께 청구되므로 별도의 팁은 필요 없다. 일반 식당 등지에서는 책정된 서비스료가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10% 정도 지급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5시간 30분 늦다.
- 서머타임(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 때는 4시간 30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110~220V 사용
- 여름철에 전력량 부족으로 인해 정전이 자주 일어나므로 자가 발전기나 UPS가 필요하다.

이란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사단법인 한국-중동협회 : <http://komea.or.kr>
- 이란 여행 뉴스 : <http://www.irtat.ir>
- 이란 관광 정보 : <http://www.tourismiran.ir>
- 이란 외교부 : <http://www.mfa.gov.ir>
- 《낙타선생 페르시아 가다》, 한솜 미디어, 주태균
- 《페르시아 문화》, 살림 출판사, 신규섭

언어

- 공용어 : 페르시아어

기타

- 주요 기관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 08:00~15:00
 - 우체국 : 08:00~12:00
 - 박물관 : 08~12:00, 14:00~17:00
 - 휴무일 : 금요일, 혁명기념일, 신년(노르쥬), 5명의 이맘 순교일 및 탄신일, 호메이니 사망일 등

| 10
중동

Israel



이스라엘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화폐 단위 | Shkel
대사관 홈페이지 | <http://isr.mofat.go.kr>
이스라엘정부 홈페이지 | www.info.gov.il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인접국 중 이집트(1979년) 및 요르단(1994년)과는 각각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수립했으나, 시리아 및 레바논과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다.
- 2008년 8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국 체제를 지향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 평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분리 정책(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일부 및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을 철수시키고 분리 장벽을 건립함)이 효과를 거두어 이스라엘 내에서의 테러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대 이스라엘 강경 노선을 견지하는 팔레스타인 단체 하마스(Hamas)가 2007년 6월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세력을 축출한 이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공격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 2008년 6월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 사이에 6개월간 잠정 휴전이 성립한 이후 가자 지구로부터의 로켓포 공격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하마스는 휴전 기간을 군비 재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휴전 또한 언제 파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최근 들어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의 불도저를 이용한 테러가 예루살렘에서 세 차례나 발생,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내부 테러에 적극 대처기 위해 테러범 거주 주택 파괴, 동예루살렘인의 이스라엘 여타 지역 출입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테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공항, 호텔, 식당 등의 건물에는 보안요원이 상



현지
치안
상황

주해 있고, 유사 시 독자적인 응사권이 인정되는 군인들이 실탄이 든 총기를 갖고 종종 거리를 왕래하기 때문에 강력 범죄는 적은 편이다.

- 빈집털이(호텔 객실 포함),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의 절도 범죄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이스라엘 입국 및 출국 심사필 도장 문제

- 여권에 이스라엘 사증, 입국 또는 출국 심사필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회교권 국가들 중에는 자국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대책]

- 이스라엘 방문 후 같은 여권으로 회교권 국가(이집트와 요르단 제외)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경우, 입국 및 출국 심사관에게 심사필 도장을 별지에 찍어 달라고 사전에 요구해야 한다.
- 이미 이스라엘 사증, 입국 또는 출국 심사필 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여권을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행 계획을 사전에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

[사례 2] 여권 분실

-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정규 여권(전자 여권) 발급 신청을 받은 후 이를 외교통상부로 송부, 외교통상부가 제작한 여권을 다시 받아 여권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있어 총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 긴급한 경우 대사관에서 단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작,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한국 귀국용이고, 단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정규 여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다.

[대책]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지역번호 없이 100번에 전화를 걸거나 투숙하고 있는 호텔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 경찰로부터 경찰 조서(Police Report)를 받은 후 대사관에 방문하여 단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사본을 준비하여 여권과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한국에 있는 가족의 요청으로 대사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인의 안전 여부를 이스라엘 당국에 요청하고자 해도 정확한 여권 번호, 여권상 영문 성명 및 생년월일이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여권 번호 등을 가족에게 알리고 출국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지배하에 있으나, 정파 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에 의한 군사 작전도 종종 수행되고 있다.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하마스가 장악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에 따라 인도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 및 인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 유대교 극보수주의자가 거주하는 주택가
 - 주로 곰솔곰솔한 구레나룻 및 긴 수염을 하고 흑색 중절모, 재킷, 바지 및 백색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들이 많이 보이는 주택가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긴팔 셔츠, 긴 바지, 긴 치마 등 보수적이고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
 - 유대교는 안식일인 샤바트(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에는 기계류 사용은 물론, 불을 켜는 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샤바트에 자동차 운전을 하면 돌팔매질을 당하는 등 봉변을 당할 수 있다.
- 바닷가 : 파도가 강해 종종 익사 사고가 발생하므로 멀리까지 헤엄쳐 나가지 않도록 한다.

대중교통

- 버스
 - 전국적인 버스 회사는 Egged이며, 대부분의 버스는 깨끗하다. Egged의 버스(<http://www.egged.co.il>)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서예루살렘 및 하이파(Haifa)에서는 시내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 샤바트가 시작되는 금요일 일몰에 앞선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일몰 30분 후까지 운행이 완전히 중단된다.
 -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Tel Aviv)의 시내버스(<http://www.dan.co.il>)는 Dan이 운영하고 있다.
 - 나자렛(Nazareth), 동예루살렘 및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는 아랍계 버스 회사들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택시
 - 일반적으로 시내 이동의 경우에는 미터기를 사용하고,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탑승하기 전에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에 요금을 정한다.
 - 공항 또는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이동 지역까지의 적절한 택시 요금을 사전에 확인해 둔다.
 - 요금 협의 시 운전기사가 화폐 단위를 빼고 금액 숫자만 언급한 뒤 나중에 요금을 달러화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스라엘 화폐 단위인 '셰켈'로 계산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철도
 - 이스라엘 국영 철도(<http://www.isr rail.org.il>)가 주요 도시를 비교적 저렴한 요



금으로 연결하고 있다.

• 렌터카

- 텔아비브 및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Hertz(<http://www.hertz.co.il>), Avis(<http://www.avis.co.il>) 및 Budget(<http://www.budget.co.il>) 등 미국계 대형 렌터카 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 외국인 단기 방문자의 경우, 자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고 하나, 언어 및 문자 소통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항상 소지하는 게 좋다.
- 렌터카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

- 이스라엘인들의 운전 매너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일반 도로에서 도로를 막고 정차하여 차 안에서 자신의 볼일을 보는 경우도 흔하다.
- 주요 도시의 도로 포장 상태는 양호하며, 도로 표지판도 히브리어 외에 영어 표기가 되어 있다.
- 로터리 안에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에서 서서 주행 차량이 빠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 백색 및 적색이 교대하는 선이 있는 길가는 주차 금지 구역이며, 백색 및 청색이 교대하는 선이 있는 길가는 주차 가능 구역이다. 인근에 주차권 판매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구입하여 차량 앞좌석 유리 안에 밖에서 보이도록 비치해야 한다.



기후

- 지중해에 임한 텔아비브(해발 49m)는 5월경부터 무더워지기 시작하여 10월까지 30℃를 넘는 덥고 습한 여름이 계속 이어지며, 이때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
-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나, 한국과 같은 장마나 태풍은 없다.
-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해발 759m)의 기후는 텔아비브와 비슷하나, 텔아비브보다 기온이 3~5℃ 낮다.
- 주요 관광지인 사해 및 홍해에 임한 휴양 도시인 에일랏(Eilat)은 연중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여름에는 기온이 40℃를 넘는다.
- 대다수 이스라엘인들(유대교 극보수주의자 제외)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지낸다.

자연재해

- 장마, 태풍, 폭설 등은 없다.
- 전반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 유대교 안식일 사바트를 따르므로 공공기관 및 상점 등은 금요일(오전 또는 전일)과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평일이다. 단,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일이다.
- 일상적으로 서구의 태양력도 사용하나, 공식적으로는 유대교 태음력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이에 맞춘 이스라엘 공휴일은 매년 날짜가 바뀐다.
- 유대교 성지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방문하는 구역이 구별되어 있다. 남자의 경우 통곡의 벽에 다가설 때에는 유대교 특유의 모자인 키파(kippa)를 써야 한다. 통곡의 벽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5m 정도 벽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로 빠져나가야 한다.
- 유대주의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신교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으나, 타 종교인에 대한 선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4 Hasadnaot St., Herzliya Pituach 46728(P.O.B. 12747 Industrial Zone, Herzliya Pituach 46733)
- 전화 : +972-9-951-0318/22
- 팩스 : +972-9-956-9853/4
- E-mail : israel@mofat.go.kr
- 홈페이지 : <http://isr.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여권 분실 및 일반 민원 : +972-50-641-3026
 - 사건 사고 : +972-50-528-8345

근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00~17:00(점심시간 12:30~14:00)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이스라엘 공휴일 휴무

영사협력원 연락처

- 정현호(예루살렘 및 인근 지역 담당) : +972-50-837-6623

사증 및 출입국 심사

- 2008년 8월 한국-이스라엘 간에 사증 면제 각서를 교환함에 따라 한국인은 사전에 이스라엘 사증(비자)을 받지 않고 관광 및 출장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이스라엘에 체류할 수 있다.
- 유학, 취업, 영리 행위, 키부츠 체류, 장기 체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이스라엘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출입국 시
유의 사항

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18층 / 02-3210-8500)으로부터 적절한 사증을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 입국 심사관이 심사 과정을 통해 사증 면제 취지에 반하는 목적 또는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어 출발지로 추방된다.
- 만약 입국이 거부될 경우 탑승해 온 항공사의 출발지로 향하는 다음 항공편 좌석이 확보되어 강제 출국될 때까지 이스라엘 당국의 구치소에 구류된다.
- 외국인의 자국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허가 여부는 해당국의 주권 사항으로서 이스라엘 입국 심사관이 입국 거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대사관이 이를 반복시킬 수 없다.
- 입국 심사 시 입국 심사관에게 출국 예정일이 명기된 이스라엘 출국 항공권을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할 경우, 이스라엘 내 체류지(호텔 등) 주소 및 연락처, 방문 목적 및 예정지 등을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입국 거부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다.

사증 및 출입국 심사

-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 및 테러 세력과의 대치 등을 이유로 출입국 심사가 까다롭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인성을 높이면 불필요하게 입국 절차가 지연되거나 입국 거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항 출국 시 보안 검색

-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을 출국하는 경우, 먼저 탑승권 발급에 앞서 위탁 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받게 된다. X-Ray 검사에서 의심이 가는 물건이 인지된 경우, 화물 소유주 입회하에 화물 개봉 검사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탑승권 발급 후 출국 심사 및 항공편 탑승에 앞서 소지품 및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을 또 받는다.
- 2008년 8월 기준으로 이스라엘 내 항공기 탑승객은 액체류를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 출국 시 보안 검색 결과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에 대한 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정밀검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될 경우, 물품을 그대로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보다 최소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물품을 압류당하게 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추후 반송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분해 정밀검사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물건이 고장 나거나 검사관이 재조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방접종

- 세계보건기구(WHO)는 방문 예정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및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의료 체계는 양호하며, 국가의 보조를 받는 공공 병원 외에 사설 병원 또는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다. 큰 병원에는 영어를 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두통약, 설사약 등)으로 구분된다. 큰 약국에는 영어를 하는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 경우 출국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 출국 전에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00 / 앰블런스 : 101 / 소방서 : 102

팁 제도

-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식당에서는 세전 청구액의 10~15%를 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다.
- 호텔에서는 객실 청소원을 위해 매일 아침 \$1 또는 현지화 30~40세켈 정도를 베개 위에 두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다.
- 서머타임(3월 하순에서 9월 초순) 때는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30V / 50Hz

이스라엘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이스라엘 관광부 : <http://www.goisrael.com>
- 이스라엘 외교부 : <http://www.mfa.gov.il>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 <http://seoul.mfa.gov.il>
- 영자지 예루살렘 포스트 : <http://www.jpost.com>

언어

- 공용어 : 히브리어(소수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고려하여 아랍어도 공용어로 채택되어 있음)
-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세운 나라인 관계로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등을 사용하는 그룹이 있다.

11
11월

Egypt



이집트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화폐 단위 | EGP
대사관 홈페이지 | <http://egy.mofat.go.kr>
이집트정부 홈페이지 | www.egypt.gov.eg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고대 유물,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관광 명소인 룩소(Luxor)에서 1997년 11월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차별 총격을 받아 독일, 일본 등 외국인 5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년간 이집트는 비교적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해 왔다.
- 그러나 2004년 10월 시나이반도 휴양 도시인 타바(Taba)에서 연쇄 폭탄 테러로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6년 4월에도 시나이반도 휴양지 다합(Dahab)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 특히 시나이반도 지역의 지속적 테러 발생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2006년 4월 27일부로 시나이반도 전 지역에 대해 '해외여행 경보 제1단계 지역(여행 유의 : 신변안전 주의 지역)'으로 지정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이슬람교 국가로서 강력한 군경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편이다.
- 이집트인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씌우기, 경미한 절도, 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데다 피해를 당한 여성이 법에 호소를 해도 여성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어 가해 남성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 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 관광 안내를 해 주겠다고 접근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절도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특급 호텔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나 공항, 버스터미널에서는 소매치기 등이 흔히 발생하므로 여권,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등을 잘 간수해야 한다.



현지
치안 상황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교통사고

- 이집트 전역에 난폭 운전 등 교통 무질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사고 시에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책]

- 이집트 정부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노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사용 허가 연장 불허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사전에 국내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여행 중에는 항상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 대중 교통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운행되는 미니버스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카이로의 무카탐(Muqattam) 언덕은 카이로 시내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야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외국인들을 상대로 강도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 슈브라(Shoubra) 등 극빈자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강도 및 절도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 나일강변에 위치한 소규모 나이트클럽 및 카지노 출입 시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이집트 남부 아슈우트 지역과 미니아 지역은 무슬림, 콥트교인들 간의 대립이 심한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카이로의 명물 전통 시장인 칸 엘 칼릴리는 매우 넓고 복잡하므로 쇼핑할 때 인적이 드문 깊숙한 골목에는 접근을 삼가고, 야간에 피라미드 지역을 관광할 경우 혼자 외딴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대중교통

• 항공

- 국제선, 국내선 모두가 연발착이 잦은 편이므로 72시간 이상 이집트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예약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출발 시에는 최소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 철도

- 이집트 철도청에서 관장하며 총 연장 약 5천km로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나 카이로-알렉산드리아 구간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권장할 만한 교통수단이 되지 못한다.

- 남부 지역은 치안이 불안하므로 철도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은 삼간다.

• **버스**

- 시내버스는 매우 혼잡하다. 미니버스의 경우 과속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장거리 운행 버스는 카이로 시내 타흐리르(Tahrir) 광장 및 람세스역에서 출발하며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 시나이 반도, 후르가다 등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 **지하철**

- 카이로 시내에 1~2호선(3호선은 현재 공사 중)이 운행 중이며, 역 명칭이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다. 기본요금은 10이집트파운드이며 이용하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 이슬람의 남녀 분리 전통에 따라 열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은 여성 전용이다.

• **택시**

- 호텔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운행하는 리무진과 '우그라' 라는 일반 택시가 있다.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은 타기 전에 미리 흥정해 두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은 단거리는 5파운드, 20~30분 운행 거리는 15~20파운드 정도이다.

※ 현지 택시 기사들이 북한 대사관과 우리 대사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도로교통

- 도로 상태도 나빠져 노견 주차, 무단 횡단 등으로 인해 운전하기가 어렵다.
- 고속도로나 준고속도로(카이로의 경우 링로드 포함)에서는 과속,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기후

- 아열대성 기후와 사막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나일강 델타 지역 : 알렉산드리아 등 지중해 연안 지역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나 그 외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이다.
 - 나일강 유역 : 나일강을 따라 형성된 폭 2~20km의 초원지대로 아열대성 기후이다.
 - 사막 지역 : 국토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일강 서편의 광대한 리비아 사막 지역, 동편의 길고 좁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 그리고 홍해를 건너 위치한 시나이 사막 지역 등으로 여름철 한낮의 기온이 40~50℃에 달한다.
- 이집트도 사계절이 있으나 봄가을은 매우 짧으며, 겨울인 12~2월에도 기온이 영하



로 내려가지는 않으나 아간에는 체감 온도가 낮다.

- 3~5월 사이 약 50일 동안 심한 모래바람이 간헐적으로 부는 기간을 '캄신(아랍어로 50을 의미)' 이라고 하는데 모래바람으로 인해 외출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자연재해

-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댐을 건설한 후 나일강의 범람도 없어졌으며 캄신을 제외한 자연재해는 거의 없는 편이다.
- 카이로대 지질학 교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카이로에서 수년 내 대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만일을 대비하여 내진 설계된 호텔 등 지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숙박 시설에 투숙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종교 활동

-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나 콥틱 교회(기독교의 한 분파)를 인정하는 등 법령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자말렉, 헬리오 폴리스, 마아디 등에는 성당, 개신 교회 등이 있다.
- 단, 선교 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무슬림에 대한 선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대인관계 문화

- 인사할 때 주로 악수나 양 볼에 입 맞추는 정도이나 아주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껴안기도 한다.
- 너무 짧고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한다.
- 종교에 따른 금식 기간인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에 시행되며 태음력에 기초하므로 해마다 시기가 약 11일씩 앞당겨지는데, 2008년의 경우 라마단은 양력 9월이다.
- 라마단 기간에는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 금식을 하므로 현지인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주, 흡연 등은 삼가야 한다.
- 영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나 '슈크란(고맙다)' 등 간단한 아랍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며, 이집트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특히 이집트 국내 정치, 종교 문제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

긴급 영사 연락망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 Boulous Hanna St., Dokki, Cairo, A,R,E
- 전화 : +20-2-3761-1234~7
- 팩스 : +20-2-3761-1238

- E-mail : egypt@mofat.go.kr
- 홈페이지 : <http://egy.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20-12-211-4809 / +20-12-227-5057

근무 시간

- 일~목 : 08:30~15:30(점심시간 : 12:00~13:00 / 금, 토 휴무)

영사협력원 연락처

- 김태엽(휴대전화) : +20-10-550-7258
- 이메일 : cears@hanmail.net

비자 정보

- 여행자의 경우 이집트 도착 시 공항 또는 항구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30일 유효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미화 \$15이다. 또한 사전에 주한이집트 대사관(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6-1 / 02-749-0787)에서도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심사

- 여행 중 여권의 신원정보란(사진 부착과 인적 사항이 기록된 페이지)이 훼손될 경우 출입국 시 출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이 불허되거나, 대사관과의 확인 과정에서 장시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여행 전에는 반드시 여권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훼손된 경우 새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 중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 서한을 발급 받아 이집트 출국 시 제출하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 훼손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집트 여행 후 터키 등 제3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 그곳 공항 당국에 의해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 카이로 국제공항은 제1, 제2터미널의 2개 청사가 있으므로 출국 시 이용해야 할 공항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다.
- 주재국에서 이스라엘로 입국이 가능하나, 요르단을 제외한 중동 지역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가 있는 경우 입국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입국 시 별지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 한국에서 직접 이집트에 입국하는 경우 예방주사 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콜레라, 황열병 등 풍토병도 희소한 편이다. 인접 아프리카 등 예방접종이 필요한 국가로부터 입국할 경우는 접종 증명서(Yellow card)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출입국
시
유의 사항



통관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하물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규정상 입국 시 100이 집트파운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형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등도 관세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 고가 물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밀수품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입국 시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등록된 경우 출국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등록된 제품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 현금의 경우 미화 \$10,000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외화 5,000이집트파운드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 및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의료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위생 관념이 낮다. 수술을 해야 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인근 국가(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상, 골절상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분야의 이름 있는 의사에게서만 치료 받을 것을 권장한다. 현지 병원에서 초진 시 50~150이집트파운드(약 \$10~30)의 진찰료를 청구한다.
- 수도물은 식수로서 이상이 없다고 하나(석회석 함유량 많음), 가급적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게 안전하다.
- 입국 전 건강 진단을 받고 가는 것이 좋으며 가정상비약을 준비해 간다.
- 경미한 질환에 대한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범죄 신고 : 122
- 화재 신고 : 180
- 전화번호 안내 : 140
- 고속도로 견인 : 136
- 앰بول런스 : 123
- 응급 의료센터 : 앓쌀람 병원 2524-0250 / 카이로 메디컬 센터 2258-1206

팁 제도

- 이집트에는 팁(박시시) 제도가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호텔에서의 서빙은 물론 식당,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서빙을 받았을 때도 50피아스타 내지 1파운드의 팁을 준다.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는 계산서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와 별도로 봉사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다.
- 서머타임(4월 마지막 주 목요일~9월 마지막 주 목요일) 때는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 전압 차가 심하고 단전이 잦으므로 전기 제품 보호를 위해서는 정압기를 사용하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60Hz용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은 손상될 우려가 많다.

이집트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여행 안내
 - <http://www.visitegypt.gov.eg>
 - <http://www.tourism.egnet.net>
- State Information Service : <http://www.sis.gov.eg>
- 이집트 국회 : <http://www.parliament.gov.eg>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 상류층 또는 외국인을 접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영어가 통용되고 있고 프랑스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환전

- 시내 곳곳에 은행과 환전소가 있으며, 환전소는 은행이 영업을 끝낸 시간에도 운영한다. 2008년 8월 25일 은행 환율은 \$1=5,344이집트파운드, 환전소의 환율은 \$1=5,334이집트파운드이다.
- 호텔이나 역에도 환전 창구가 있으며 일류 호텔은 항상 영업한다.

| 12

중동

Qatar



카타르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화폐 단위 | QR

대사관 홈페이지 | <http://qat.mofat.go.kr>

카타르 외무부 홈페이지 | <http://english.mofa.gov.qa>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내 정세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치안 상태도 확고하여 여행객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는 매우 적은 편이다.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미미하며, 대형 미군 공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미군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 행위는 거의 없었다.
- 이란과 사우디라는 중동 지역 내 최강대국과 인접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리적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란 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발전할 경우 주력 산업인 천연가스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세 안정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외국인이 거주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대부분이 중동 및 아시아 출신 제3국 근로자이나 강력한 치안 및 출입국 정책으로 이들의 범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 외국인이 다수를 이루는 인구 구조상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및 연관 범죄, 특히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거의 없다.
-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호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치안은 매우 양호하며, 도하 시내 전반에 치안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은 없다.
- 수도인 도하에 대부분의 인구와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교외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교외 지역 역시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현지
치안 상황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교통사고

- 오일 특수를 바탕으로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교통·운전 문화는 성숙하지 못해 차량 접촉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책]

-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그대로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현지 법규에 따라 바로 경찰을 불러 상황을 일임함이 바람직하다.

[사례 2] 음주운전

-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짐에 따라 대개 주말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문책되며, 바로 입건 또는 추방당한다.

[대책]

- 중동 국가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상대적으로 제3국 노동자들이 밀집하는 시내 교통 중심지인 전통 시장 쑉(Souq) 근처나 도하 시내 북부의 산업공단(Industrial Area)의 경우는 사고 발생 건수가 다소 빈번하며, 특히 산업 공단의 경우 열악한 근로 조건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시위도 가끔 발생하나 여행객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우 드문 편이다.
- 일부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주말인 금요일을 Family Day로 정하여 가족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곳도 있다.
- 소규모의 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며, 외국인 손님을 노린 금전 사기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단이 있기는 하나 대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 버스 요금은 3QR, 일반 택시는 기본요금 4QR, 공항 택시는 기본요금 8QR 정도이다.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의 단속이 매우 심하며, 벌금도 상당히 비싼 편이다.
- 신호 위반의 경우 벌금이 6,000QR(약 180만 원)이다.

기후

- 연중 사막성 기후로 특히 하절기에는 50°C에 이르는 혹서 기후이다.
- 3, 4, 11월은 기온이 20~35°C로 비교적 쾌적하다.
- 5~10월은 40~65°C로 무더우며 습도가 70~90%로 높다.
- 겨울인 12~2월은 10~20°C로 온화한 편이나 기온이 떨어져 한국의 초겨울 같은 날씨가 계속되기도 한다.

자연재해

- 자연재해와의 연관성은 매우 적다.
- 간음, 매춘, 음주, 돼지고기, 이자놀이, 도박 등은 생활의 금기 사항이다.
- 이슬람교도가 아닌 경우 이슬람 사원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앞을 지나가거나 말을 걸지 말고, 기도할 때 까는 담요를 밟으면 안 된다.
- 친한 사이가 아니면 종교나 상대방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 여성의 경우 옷차림은 정숙해야 하며,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는다.
- 라마단 단식 기간(해가 뜨기 시작해서 질 때까지) 중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껌을 씹는 것을 삼가야 한다.
- 특별히 의심되지 않는 카타르인이 제공하는 아랍 커피와 차는 받아 마시는 것이 예의이며,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을 때는 잔을 들고 세 번 흔들어 주면 된다.
-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한다.
- 카타르인과 면담 시 신발 바닥이 보이도록 앉는 것은 큰 실례이다.
- 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신체 접촉 및 욕설은 삼가야 한다.
-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서의 사진 촬영은 엄금하고 있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P.O,BOX 3727, West Bay, Diplomatic Area, Doha, Qatar
- 전화 : +974-483-2238/9
- 팩스 : +974-483-3264
- E-mail : koemb_qa@mofat.go.kr
- 홈페이지 : <http://qat.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박현규 영사 : +974-582-8295
 - 문성환 참사관 : +974-583-7526



기후와
자연재해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긴급 영사
연락망

근무 시간

- 일~목 / 07:30~14:30

출입국 시
유의 사항



비자 정보

- 비자 취득 절차상 스폰서(현지 개인 또는 법인)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비자와 스폰서 없이 취득이 가능한 비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방문, 취업 비자는 스폰서가 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결핵 병력 및 간염, 전염성 병력이 있는 사람은 취득이 불가능하다.
- 상용(비즈니스), 관광 비자는 스폰서 없이도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기 체류 시 취득하면 된다.
- 공항 도착 후 공항 현장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하나, 상용 비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한 카타르 대사관(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77 / 02-790~1308)에서 발급 받는 것이 용이하다.
- 공항에서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모든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현금보다는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다.
- 체류 기간은 1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100QR이다.
-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통관 절차

-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회교국인 카타르는 회교 가르침에 위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까다롭게 심사한다.
- 돼지고기, 술, 비디오테이프 등 음란물은 반입 금지 품목이다.
- 언론인들의 위성통신 등 방송 장비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 카타르를 포함하여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여행증명서 및 단수 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복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부주의로 카타르 입국 비자를 단수 여권으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곳 현지에서는 단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고 있다.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응급 상황 발생 시 999번으로 알리면, 국립병원인 Hamad General Hospital로 이송되어 응급처리를 받을 수 있다.
-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먼저 Primary Health Clinic(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필요 시 의사 소견서와 함께 국립병원인 Hamad Hospital에서 재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영어 통용이 가능하며, 국립병원 및 Primary Health Clinic 진료를 위해서는 가족 모

두의 의료카드가 필요하다(1인당 연 \$28 소요).

- 국립 병원
 - Hamad General Hospital : 24시간 근무 / 444-6446
 - Women's Hospital : 여성을 위한 병동으로 면회 시간 이외에는 남성의 출입을 금함 / 442-0555
- 사설(개인) 병원
 - Al Ahli Hospital : 489-8888
 - Al Emadi Hospital : 466-6009
 - American Hospital : 442-1999
 - Doha Clinic Hospital : 438-4333
- 사설 치과
 - Queen Dental Center : 493-2888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모든 긴급, 응급 상황 : 국번 없이 999

팁 제도

- 주로 호텔에서 5~10% 정도 팁으로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240V / 50Hz

카타르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카타르 한인교회 : <http://www.qatarchurch.org>

언어

- 영어, 아랍어



기타
참고사항

| 13

중동

Kuwait



쿠웨이트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늦음
화폐 단위 | Dinar
대사관 홈페이지 | <http://kwt.mofat.go.kr>
쿠웨이트정부 홈페이지 | www.da.gov.kw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대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라크와 북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아라비아만을 넘어 이라크와 인접해 있어 외부 불안 요인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2005년 2월 쿠웨이트 내 자생 테러 단체인 반도 사자단(Peninsula Lions) 조직원 37명이 체포된 바 있듯이 청년층의 지하드 참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공항, 항만, 고급 호텔, 정부 주요 시설 등에 출입 시에는 각종 검문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과 취재 활동을 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 외교통상부 여행 경보 4단계(유의, 자제, 제한, 금지) 중 2단계인 '여행 자제' 국가이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치안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 다니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국가로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편이다.

[대책]

-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의 조사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



현지
치안 상황

[사례 2]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 주류의 제조나 반입,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사람은 처벌 받거나 추방된다.

[대책]

- 쿠웨이트 입국 시 주류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체류 중 음주를 삼가야 한다.

[사례 3] 출국 금지

- 쿠웨이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업체와 연관된 제3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건설 현장의 책임자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관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

[대책]

-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 좋으며 필요 시 대사관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대중교통

- 버스 요금은 200Pils(\$0.75)이며 10KD(\$37)로 KPTC 카드를 구입하면 이 카드로 1개월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요금은 탑승 전 미리 금액을 합의해 두고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나 대략 2~5KD(\$8~20) 수준이다.
- 쿠웨이트인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버스는 주로 제3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끔적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교통

- 단기 방문자는 국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며, 장기 체류자는 거주 비자와 외국인 신분증(Civil ID)를 발급 받은 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한국 운전면허증, 대학 졸업증명서, Civil ID)를 내무부 교통국에 제출하면 시험 없이 쿠웨이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준다.
- 쿠웨이트 경찰은 운전 시 휴대폰 사용, 속도위반, 정지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최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와 자연재해



기후

- 연중 6개월 정도가 30~50°C 사이의 고온인 열대성 사막기후로 매우 덩다.
- 6~8월의 경우 연중 최고 기온인 53°C까지 기온이 올라가기도 한다.
- 겨울에는 아라비아반도에서 기온상 가장 추운 지역이다.

자연재해

-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지만, 환절기에 모래폭풍(심할 경우 1개월 이상 지속)이 심하며, 겨울철에는 매우 드물지만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기도 한다.
- 종교는 이슬람교(수니파 70%, 시아파 30%)이며, 외국인을 위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지정 교회가 있어 지정된 교회 내에서의 종교 활동만 허용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여타 종교에 대한 선교 활동이나 이슬람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외국 여성의 경우 히잡을 쓸 필요는 없다. 단, 가능한 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와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 이슬람교도가 아닌 경우 이슬람 사원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다만,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Grand Mosque)는 사전에 예약하면 예배 시간 이외에는 안내를 받아 방문할 수 있다.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과 양말을 벗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사원에서 제공하는 이슬람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라마단 기간(매년 다르나 통상 9~10월 중 1개월) 중에는 주간에 모든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하며, 공공장소나 이슬람 신자가 보는 가운데 음료수나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앞을 지나가거나 말을 걸지 말고, 기도할 때 끼는 담요도 밟으면 안 된다.
- 종교나 상대방 부인에 관한 이야기는 삼가고, 여주인이나 여자 식구를 위해 선물을 사 가거나 여주인의 안부를 물어서는 안 되며, 거리에서 여인의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
-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Qortoba Block 4, Street 1, Jaddah 3, House No. 5(P.O.Box 4272, Safat 13043, Kuwait)
- 전화 : +965-2533-9601~3
- 팩스 : +965-2531-2459
- E-mail : kuwait@mofat.go.kr
- 홈페이지 : kwt.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영사 : +965-9943-2519
 - 부영사 : +965-9936-7387
 - 영사보조 : +965-9792-5528





근무 시간

- 일~목 : 08:00~14:30(금, 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쿠웨이트 공휴일 휴무)
- ※ 쿠웨이트 공휴일
- 1월 1일 : 신년일
- 1월 10일 : 이슬람 신년일
- 2월 25일 : National Day
- 2월 26일 : Liberation Day
- 3월 20일 : Muhammad 생일
- 7월 30일 : Al-Isra & Miraj (Muhammad 승천일)
- 10월 1~4일 : Eid Al-Fitra (라마단 종료 축제일)
- 12월 7~10일 : Al-Adha Eid(희생일)

비자 정보

- 쿠웨이트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9-15 / 02-743-3688)을 방문하여 방문 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단기 방문인 경우에는 쿠웨이트 공항 비자 발급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다.
- 취업 등 장기 체류를 위한 거주 허가 취득 절차
 - 쿠웨이트인이나 스폰서 또는 고용주가 노동부에 취업허가서를 발급 신청 받아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 신청,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송부해 오면 이 NOC를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에 제출한다.
 -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신체검사증을 제출, 주한 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 쿠웨이트에 입국한다.
 - 입국 후 노동부에 스폰서십 증명서 발급을 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 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 허가(여권에 거주 비자 스티커 부착 형태) 발급을 신청한다.
 - 거주 허가 발급 후 1개월 내에 내무부 이민국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을 신청한다.
 -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 허가는 신청 후 1주일일 소요되며, 거주 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에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 허가 발급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 경과 시 벌금이 부과된다.
 - 보통 취업 및 거주 허가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 취업 허가는 다른 스폰서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 한국에서 쿠웨이트로 입국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올 경우에는 필요하다.

통관

- 쿠웨이트는 주류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류 반입이 적발될 경우 압수 및 추방당할 수 있다.
- 이외에 총기, 마약류, 도검 등도 반입 금지이며 동식물, 과일, 채소 등도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공공 병원에서 1KD(\$4)를 지불하면 진료를 받고 의약품 받을 수 있다. 사립 병원 이용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의료보험 없이 사립 병원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 쿠웨이트 내 대부분의 공공 및 사립 병원에서는 영어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항생제, 습관성 의약품 등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화재 신고, 응급 상황 : 777
- 전화번호 안내 : 101

팁 제도

- 식당에서는 팁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호텔 내 식당의 경우 계산서에 서비스 비용(5~10%)이 포함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40V / 50Hz

쿠웨이트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 정부 정보 제공 : <http://www.ipd.gov.kw>

언어

- 아랍어 이외에 영어도 통용



14

중동

Tunisia



source — 튀니지대사관

튀니지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화폐 단위 | TND(Tunisian Dinar)
대사관 홈페이지 | <http://tun.mofat.go.kr>
튀니지정부 홈페이지 | www.ministeres.tn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튀니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치안 상황도 좋아 무장반군 단체나 테러 단체의 활동은 없으나, 알제리 국경 통과 및 국경 주변 여행은 삼가는 게 좋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현황 등 치안 상태

- 정부가 철저히 치안을 통제하고 있어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 범죄는 많지 않으나, 소매치기 등에 의한 도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광장, 철도역 등에서 소지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사례 1] 교통질서 의식 부재

- 튀니지인은 교통질서를 잘 준수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는 무시하고 가버리는 경향이 있다.

[대책]

- 도보 여행 시에는 차량을, 운전 시에는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조심해야 한다.

[사례 2] 현지인이 돈을 요구할 때

- 요청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대책]

- 짐을 들어 주거나 가이드를 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 구걸을 목적으로 여행객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당황하여 손찌검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삼가고,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치안 상황



대중교통

- 버스 : 일반 요금은 0,35디나르, 거리에 따라 최대 1,5디나르이다.
- 전철 : 일반 요금은 0,4디나르, 거리에 따라 최대 0,7디나르이다.
- 택시 : 기본요금은 0,38디나르(야간 0,57디나르), km당 0,6디나르(야간 0,9디나르)씩 추가된다. 큰 짐이 있을 경우 1디나르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도로교통

- 차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중앙선 침범 또는 역주행하는 차량도 다소 있으며, 튀니스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 도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나, 튀니지인의 운전 습관이 험하므로 안전벨트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기후

- 겨울철 기온은 낮지 않으나(1월 평균 11°C), 흐리고 비가 자주 내려 쌀쌀한 편이다.
-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건조하다.
- 6~9월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한낮에 40°C를 웃도는 날이 많고 햇살이 매우 강하므로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북서부 산악 지방은 겨울에 추위 눈이 내리기도 한다.
- 남부는 사하라사막의 영향으로 여름에 대단히 덥고 건조하며, 겨울철에도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다.
- 해수욕을 위한 최적 시기는 여름이나, 사막 등 기타 관광의 최적 시기는 봄 가을이 좋다.

자연재해

-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없다.



- 이슬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이슬람 관습 및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예 : 마약, 매춘, 선교, 과다 노출 등 금지).
- 관공서의 일 처리가 매우 느린 편에 속하므로 필요한 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6, Rue Caracalla, Notre Dame, Tunis, Republique Tunisienne
- 전화 : +216-71-799-905

- 팩스 : +216-71-791-923
- E-mail : tunisie@mofat.go.kr
- 홈페이지 : <http://tun.mofat.go.kr>
- 근무 시간 외 비상연락처 : +216-98-329-685

근무 시간

- 월~금 : 08:00~17:00(점심시간 12:00~14:00)
- 7, 8월 하계 기간 및 라마단 시 : 08:00~13:30
- 휴무일 : 토,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튀니지 공휴일
- ※ 튀니지 공휴일
- 1월 1일 : 신년
- 1월 20일 : 회교 신년일 (1429년)
- 3월 20일 : 튀니지 독립 기념일, 마호메드 탄생일
- 3월 21일 : 청년의 날
- 4월 9일 : 순교자의 날
- 5월 1일 : 노동절
- 7월 25일 : 공화국 선포일
- 8월 13일 : 여성의 날
- 9월 30~10월 1일(추정) : 라마단 종료 축일 (Eid AL Fitr 속칭 L' Aid)
- 11월 7일 : 대통령 집권 기념일
- 12월 8~9일 : 종교기념일 (Eid AL Adha)
- 12월 29일(추정) : 회교 신년일 (1430년)

비자 정보

- 양국 간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0일간 체류할 때는 비자가 필요 없다. 단, 입국을 위해서는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전에 비자를 얻어야 하며 당지 도착 후 2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입국 후 2개월 내에 체류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여권과 사진 2매를 구비하여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 튀니지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치 않고 2년 기한의 비자를 연장케 하는 제도가 있다.

예방접종

- 말라리아, 황열병 같은 풍토병이 없어 입국 전 별도의 예방접종이나 약 복용은 필요 없다.



출입국 시
유의 사항



통관

- 육류, 과일, 채소 등은 반입 금지 품목이다.
- 입국 시 \$4,000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만 출국 시 이를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다.
- 외국인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다소 비싼 편(단순 진료비가 \$40 정도)이나, 의료 수준이 높아 리비아, 알제리 등 주변국에서 치료차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 대형 병원의 경우 의사의 영어 구사가 가능하며,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다.
- 진통제, 급제, 설사약, 감기약 등은 미리 한국에서 구비하여 입국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경찰 : 197
- 화재 신고 : 198
- 앰불런스 : 190

차량 수리

- 차량 이상 시(견인 등) 신고 : 71-799-999

팁 제도

- 호텔 또는 고급 식당의 경우 대체로 음식 값의 5%를 지불한다.

한국과의 시차

-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다.

전력 사용 현황

- 220V / 50Hz

언어

- 공용어 : 아랍어
- 프랑스어가 통용되며, 영어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